



2018. 5. 27. 권오광. 7고.

암전.

‘타짜1 O.S.T-인트로’의 구슬픈 멜로디.

0. 공사중인 고층빌딩 옥상. 밤.

어둠속. 커다란 가방을 들고 도망치는 남자. 실루엣.

추격하는 서넛의 무리들. 실루엣.

얼마가지 않아 남자는 무리들에게 붙잡히고 격투를 벌인다.

격투라기보다는 일방적인 구타에 가깝다.

남자는 들고 있던 가방을 놓치지 않으려 필사의 몸부림을 치지만 무리들의 완력을 당해내지 못한다.

마침내 가방을 놓고 쓰러지는 남자.

개떼처럼 가방으로 달려드는 무리들.

남자가 마지막 힘을 짜내 무리들에게 달려들지만 역부족이다.

발길질에 밀려난 남자가 옥상 난간에서 떨어질 위기에 처한다.

떨어지기 직전 가까스로 철제 난간을 붙잡고 매달린 남자.

난간을 붙들고 있는 남자의 오른손은 갈고리다.

그제서야 도시의 불빛이 비스듬하게 남자의 얼굴을 비추면... 남자는 <타짜-1편>의 짝귀(남/58)다.

매달려 있는 짝귀에게 다가오는 또 하나의 실루엣. 마귀(미상/마귀의 얼굴은 어둠속).

마귀는 담배 한 개비를 물고 불을 붙인다.

담뱃불이 타들어 갈 때 마귀의 얼굴이 언뜻 보일 듯. 이내 어둠속으로 사라진다.

짝귀의 하나뿐인 손에 점점 힘이 빠진다.

마귀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자 마침내 짝귀는 난간에서 손을 놓친다.

어둠속에서 짝귀의 갈고리가 건물의 쇠벽에 걸리며 불꽃을 일으킨다.

쿵. 육중하고 둔탁한 소리.

그리고 정적.

마귀는 짝귀가 떨어진 밤의 허공속을 바라보다 물고 있던 담배를 획 집어던진다.

이리처럼 어슬렁거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마귀와 무리들.

음악이 속도감 있게 변주되며.

마귀가 사라진 어둠속에서 나타나는 오프닝 타이틀.

타짜 - 원 아이드 잭

음악. 멈추고 암전.

1. 도일출

1. 텔보 하우스 흥. 밤.

방배동 텔보 하우스. 외관은 낡은 모텔로 위장되어 있다.
자욱한 담배연기. 왁자한 소리들. 허름한 인테리어.

자막 - 20년 후

딜러의 손이 바쁘게 움직이고 마지막 히트카드들이 확확 날아다닌다.
카드를 받은 손들이 일제히 카드를 쏘는데 한사람의 손만 가만히 카드 위에 있다.
그 손을 따라 올라가면 수수한 차림의 **도일출**(남/29/이하 일출)이다.

양복(남/46), **사시생**(남/32), **스냅백**(남/27)이 일출과 500원 뺑 세븐 오디를 하고 있다.

일출, 패를 까지 않고 패를 보는 사람들의 표정을 확인한다.
신중하게 패를 쏘는 사람들은 저마다 알 수 없는 표정을 짓고 있다.
그제서야 패를 확인하는 일출. 개패다. J원페어.

사시생 (패를 덮으며) 팩.
스냅백 거 참. 쫄보형. 또 쫄았네. 재미없게.

사시생, 애꿎은 담배에 불을 붙인다.
양복, 수북이 쌓인 칩을 보더니.

양복 하프면 얼마야? 한 이십만 되냐? 스무개.
스냅백 (패를 덮으며) 좇밥은 빠집니다.

일출, 양복의 덮여진 카드를 보고 잠시 생각에 빠진다.
양복은 액면 포플러시. 일출은 액면에 족보 계통이 없다.

일출 (결심한듯) 받고 사십 더요.

양복, 일출을 노려본다.

양복 ... 받고 전부.
사시생 와, 씨발. 판 크다.
스냅백 오, 오.

일출과 양복의 팽팽한 기싸움.

일출 (포기한다는 듯) 에이, 막판이니까. 전부면 한... 오십... 되요?

일출, 칩을 세어 앞으로 밀어 넣는다.

양복 ...
일출 (J 원페어를 뒤집으며) 투 페어 이상이면 드세요.
사시생 짜 원? 원페어였어?
스냅백 원페어 들고 포블한테 달려들었다고? (양복에게) 형님은 뭐예요? 플러시
 죠?

양복, 말이 없다. 손에든 세장의 카드가 조용히 구겨진다.

일출, 실실 웃으며 칩을 쓸어 담아 정리한다.

일출 그럼 전 약속대로 막판했으니... 일어납니다.
스냅백 에이~ 칼맨. 또 칼같이 이러기야?
사시생 거, 참 사람... 거 아무리 없게.

양복, 칩을 가져가는 일출의 손을 덥석 잡는다.

양복 어이. 많이 땀이니 한수 좀 배웁시다. (무섭게 노려보며) 내가 지금 약간
 의심이 들거든? 어떻게 내가 뺑카를 칠 때마다 다 잡아내는 거야?

당황한 일출, 꾸뻑거리며 손을 뺀다.

일출 에이, 형님도. 영업비밀을...

일출을 노려보던 양복, 주머니에서 두툼한 지갑을 꺼내 만 원 짜리 지폐를 세기 시작한다.

양복 좋다. 씨발.

양복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주목하는 일출, 스냅백, 사시생.

양복 자, 백만원.

스넵백 (눈치 보며) 와우.
양복 내 뺑카가 계속 잡히는 이유를 설명해봐.
일출 설명이 안 되면?

양복, 눈짓으로 천장 구석에 설치 된 CCTV를 힐끔 가리킨다.

양복 털보한테 얘기해서 화면 돌려 봐야지... 이 씨발롬아.
사시생 허, 형님...

침묵이 흐르는 포커 테이블.

일출, 표정이 잠시 무섭게 굳더니 이내 어린 아이 같은 얼굴을 하고 자리에 앉는다.

일출 (짧게 한숨) 습관이 있어요, 형님은.
양복 습관?

일출, 아예 다시 카드를 놓아 보여주며 설명한다.

일출 자, 히든이 들어왔다. (양복을 훑내내며) 일단, 족보를 노릴 때 카드를 너무 쪼아서 봐. 개패일 때는 쪼는 거랑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일출을 바라보는 일동.

일출 족보를 노렸다가 히든에서 뺑이 났다. 노 메이드. 뺑카로 가야 된다. 그럼 그 때부터 블러핑 할 준비를 해요. 이렇게 히든을 반듯하게 놓으면서. 메이드일 때는 오히려 카드를 좀 흐트러뜨리죠. 이렇게. 이게 너무 일정해요.

양복 ...

일출 결정적으로. 리듬이 달라요. 빠따치는 리듬이. 메이드일 때는 앞사람 콜 후에 하나, 둘... 혹은 하나, 둘, 셋... 이런식으로. 뺑카일 때는 콜이 반박자씩 빠르거나... 꼭 늦더라구요.

양복 ...

일출 (양복을 보며) 언더스팬?

사시생 허... 타잘세.

스넵백 그럼, 나는? 나는?

양복, 일출을 무섭게 노려보다 어쩔 수 없이 인정하고 피식 웃고 만다.

일출 (침을 몇 개씩 던져주며) 이건 뽕찌들 하시고... (백만원에 손을 가져가며) 저는 오랜만에 고기를 좀 먹으려...

양복 너...

일출의 손, 백만원 지폐 위에서 멈춘다.

양복 (어금니를 깨물며) 다음에 다시 해. 방금 그 얘기한 거 후회하게 해줄테니까.
일출 형님.
양복 ...
일출 제가 다 얘기해준 것 같아요?

일출, 씨익 쪼개며 지폐 다발을 들고 일어선다.

2. 텔보 하우스 사무실. 밤.

일출, 가지런히 정리된 침상자를 내려놓는다.

햇바를 물고 있던 텔보(남/38)가 침을 보고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선다.

텔보 미친놈. 500원 뺑에서 도대체 얼마를 딴거야?
일출 (양복에게 받은 백만원을 세며) 간절히 정성을 다하면 우주의 기운이 도와줍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다. 대학교 부정입학 소식을 알리고 있다.

텔보 (일출을 보고) 너 그거 뭐야? 현금 플레이 금지했잖아!

일출, 지폐 다발을 열린 야상주머니에 넣고 책상에 걸터앉아 자신의 이름이 적힌 장부를 찾는다.

텔보 어떻게 된 세상이 씨발, 규칙을 지키는 새끼들이 없어.
일출 (장부를 펼쳐 들고) 얼마?
텔보 (궁시렁대며 침을 쏜다) 삼백... 오십칠만사천에 타임비, 자릿세 떼고 삼백십구만삼천원. 구만삼천원 우수리 떼고..
일출 우수리를 왜 떼? 배맞춘 사이도 아닌데.
텔보 너 인마. 자꾸 악착같이 이럴래? 노름꾼한테는 자고로 아량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아량. 넓은 마음... 알아?
일출 그런게 어딴어? 씨발, 노름판에. 죽기살기로 붙어서 딴건데.. 삼백십구만... 얼마?
텔보 ... 삼천원. 씹새야.

일출, 장부에 천원단위까지 꼼꼼하게 적어 놓는다.

일출 아싸, 천만 돌파!
 탈보 (침 정리하며) 너 이 새끼야. 학생이 그런 강으로 공부를 했으면 씨발, 공무원 시험 까짓 거 벌써 붙었겠다.
 일출 (비웃으며) 형. 요즘 공부를 무슨.. 강으로 하는 줄 알아요?
 탈보 그럼 월로 하는데? 머리?

일출, 한심하다는 듯 책상의 침을 들어 보여준다.

일출 (침을 들어보이며) 다 이거로 하는 거지, 이 양반아. (티비를 보며) 봐. 가진 놈들은 출발점부터가 달라. 부모 잘 만나서 어릴 때부터 학원에, 과외에, 유학에... 대학까지 맘대로 들어가는 애들을 나같은 흙수저가 무슨 수로 이겨?
 탈보 그렇다고 노름을 하나?
 일출 얼마나 좋아? 금수저나 흙수저나 카드 일곱장 들고 치는 건 마찬가지인데. 훨씬 해볼 만하지 않아요?
 탈보 말하는 건 완전 국회의원이다, 이새끼야.
 일출 (씩 웃으며) 에이~ 그런 씹새끼들이랑은 다르지.

3. 노랑진 저리 밤 몽라-주. 밤.

- 탈보하우스 앞.
 낡은 모텔로 위장된 탈보하우스 주차장을 자전거를 타고 빠져나가는 일출.
- 이수 교차로.
 늦은 밤의 거리는 어둡고 조용하다.
 일출의 자전거가 거리를 가로지른다.
- 편의점.
 허기진듯 허겁지겁 컵라면을 먹는 일출.
- 학원 앞.
 학원 앞을 쏟아져 나오는 학생들. 학생들을 피해가며 달리는 일출의 자전거.
- 오르막 길.
 인형 뽑기를 하는 학생들을 지나 오르막을 힘차게 오르는 일출의 자전거.
- 고시원 앞.
 자전거를 잠그고 고시원 안으로 빨려들듯 들어가는 일출.

4. 고시원 방. 밤.

컴컴한 고시원에 들어서면서 불을 켜는 일출. 누군가 침대에서 부스스 일어난다.
깜짝 놀라는 일출.

일출 아, 씨발. 깜짝이야.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던 사람은 일출의 **엄마**(여/52/)였다.

엄마 (눈을 비비며) 엄마한테 씨발이 뭐니, 씨발이.

일출 아니... 오면 온다고 얘기를 하시지. 불도 꺼놓고.

엄마 (하품하고) 공부하고 있을거 뻔한데 전화하면 뭐, 방해밖에 더 돼?

일출, 책상구석에 놓인 트럼프카드와 포커노트가 눈에 들어온다.

얼른 책상으로 가서 카드를 감추는 일출.

일출 왜, 왜요? 식당은?

엄마 (기지개 켜고) 일찍 닫았어. 하루.

일출 왜? 무슨 일 있어요?

엄마 반찬 좀 싸다줄라고.

방구석에 정성스럽게 쓴 반찬꾸러미가 두 개나 놓여 있다.

일출 (놀라며) 저 많은걸 혼자서 들고 왔어?

엄마 그럼 둘이 드니?

일출 버스 타고?

엄마 그럼 걸어와?

일출 아니, 짐이 있으면 택시를 타시지...

엄마, 일출을 잠시 노려보다 잔소리 투척을 시작한다.

엄마 택시는 무슨 택시? 택시 탈 돈 있으면 야, 너 학원 한 군데라도 더...

일출 (또 시작이라는 듯) 아. 알았어, 알았어. (혼잣말처럼) 궁상 하여튼.

일출, 짜증내며 책상에서 일어나 괜히 반찬으로 다가간다.

일출 (반찬통들을 열어보며) 뭘, 또 이렇게 많이... 오, 잡채!

일출, 손으로 잡채를 집어먹는다.
엄마, 그런 일출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엄마 너... 열심히 하고 있지?
일출 그, 그럼... 당연하지.
엄마 됐다. 그럼.

엄마, 자리에서 일어나 외투를 걸친다.
일출, 놀라 엄마를 본다.

일출 ... 왜?
엄마 간다. 내일은 가게 열어야지.
일출 ...

5. 고시원 앞. 새벽.

엄마가 어둠속으로 걸어간다.
뒤늦게 따라 나온 일출, 엄마를 따라 걷는다.

일출 가긴 어딜 가요? 이 시간에.
엄마 첫 차 다녀. 가게 문 열어야지.
일출 가게... 까짓 거 하루 더 달아요. 거 얼마나 번다고.

엄마, 갑자기 멈춰선다.

엄마 (일출 보며 단호한 얼굴) 얼마나? 아들. 그 돈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거야.
 너 학원도 가고. 남한테 싫은 소리 안 하고.
일출 ... (아, 엄마의 잔소리가 또 시작 됐다)
엄마 그리고, 꼭 돈 때문에만 그러는 것 같니? 매일매일 꼬박꼬박 아침밥 먹으
 러 오는 손님들 있어. 그건 엄마랑 손님 사이의 약속이야.
일출 ... (아, 좇됐다)
엄마 아무리 하찮아 보여도 약속하고, 지키고.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야. 집 나
 간 니 아버지처럼 그렇게 무책임하게...

잔소리 끝에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자 일출은 듣기 싫다는 듯 말을 끊는다.

일출 아, 알았어, 알았어. 그 소리 또 왜 안 나오나 했네.
엄마 ...

일출 알았으니까, 그럼... (주머니를 뒤지며) 택시라도 타고 가요. 터미널까지...

일출, 야상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는데. 아무렇게나 넣어두었던 지폐 다발이 한꺼번에 흘러나와 바닥에 떨어진다. 만 원짜리 100장이 바닥에 흩날린다.

일출, 깜짝 놀라 돈을 줍기 시작한다.

엄마 ... 웬 돈?

일출 그, 그냥... 아, 아르바이트 했어요.

엄마 ...

일출, 흩날리는 만원짜리를 열심히 줍고, 엄마는 그런 일출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일출, 돈을 다 주웠다. 엄마 앞에 뻗뻗하게 선 일출.

일출 아니, 누,누가... 알바를 잠깐... 소개를...

엄마 ... 일출아.

일출 ...?

엄마 엄마가... 더 못해줘서 미안해.

일출 ...

엄마 그래도 우리 아들, 잘 할 수 있지?

일출 ...

엄마, 뒤돌아 어둠속으로 멀어져 간다.

지폐 다발을 든 일출, 물끄러미 엄마의 뒷모습을 바라본다.

멀리서 서서히 동이 튼다.

6. 공무원 학원 복도. 낮.

공시생들로 분주한 공무원 학원의 복도.

‘도일출’이라고 써진 자신의 사물함을 무섭게 노려보는 일출.

수업시작을 알리는 벨이 울리고 복도를 가득 채운 공시생들이 모두 사라지지만 일출은 혼자 복도에 서서 사물함을 바라보고 있다.

일출, 마침내 결심한 듯 사물함을 벌컥 연다.

일출 오케이. 다이. 죽었어. (책들을 꺼내며) 그래. 해보자. 까짓 공무원 시험. 그게 뭐라고. 씨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한 번 해보...

7. 학원 강의실. 낮.

말이 끝나기도 전에 커트가 바뀌면 졸고 있는 일출의 얼굴.
수학 과목 강사가 어려운 공식들을 나열하며 열심히 설명중이다.
일출, 잠을 깨기 위해 얼굴을 부비다 급기야 자신의 뺨을 때린다.
옆에 앉아 있던 여학생이 신경질적으로 일출에게 주의를 준다.

여학생 (신경질 적으로) 쏙!

일출이 보면 여학생은 다시 앞만 보고 미친 듯이 필기 중이다.
일출이 무안해 주위를 둘러보면 다른 학생들은 하나같이 열심히 필기를 하고 있다.
다시 마음을 다잡고 칠판을 바라보는 일출.

그런데. 칠판 위의 숫자들이 빨간색과 검은색으로 나뉘어져 있다.
숫자들 사이에서 스페이드, 다이아, 하트, 클로버 무늬들이 튀어나오고.
카드들이 날아와 패가 만들어 지고 칩이 굴러와 베팅이 시작된다.

일출은 눈을 비벼 보지만.
칠판은 어느새 완벽한 포커 테이블이 되어 있다.
일출의 얼굴 일그러지며 깊은 한숨이 새어 나온다.

8. 리보 하우스 홀. 밤.

짜증과 환호가 뒤섞인 초록 포커테이블.
담배를 입에 문 일출이 테이블의 칩을 쓸어간다.
테이블의 아주머니들이 짜증을 내지만 생기가 넘치는 일출은 싱글벙글.

일출 (샤프질 하며) 자, 또 돌아요.

9. 리보 하우스 VIP룸 앞. 밤.

기분 좋은 얼굴로 칩상자를 들고 정산하러 사무실로 향하는 일출.
그 때, 복도에 딸린 밀실(VIP룸)에서 광하는 소리와 함께 소란스러운 소리가 난다.
무슨 일인가하고 밀실 쪽을 보는 일출.
짧은 고성과 욕지거리가 들리더니 알 수 없는 여자 **마돈나**(여/30)가 튀어나오며 밀실의 문

을 랑 달는다. 문에 기대 고개를 숙이고 있는 마돈나는 아직 화가 가시지 않았는지 혼자서 욕지기를 중얼댄다.

일출, 좀 이상한 여자라 생각하며 자리를 피하려는데 마돈나가 일출을 부른다.

마돈나 야.

일출,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다.

일출 저, 저요?

마돈나 ... 밥 먹으러 갈래?

일출 ... 네? 왜, 왜요?

마돈나 배고파. 밥 먹자.

마돈나, 일출을 지나쳐 먼저 하우스 밖을 나간다.

어리둥절한 일출의 얼굴.

10. 해장국집. 밤.

해장국 집 밖으로 굵은 장대비가 내리고 있다.

뜨거운 국물을 떠먹는 마돈나. 손을 조금 떼다. 딱 봐도 노름에 찌든 얼굴. 그러나 자세히 보면 대단한 미인이다.

일출, 해장국을 앞에 놓고 그런 마돈나를 바라본다.

마돈나, 소주를 글라스에 부어 단숨에 들이킨다. 그제야 정신이 좀 드는 듯. 불안하게 여기 저기를 훑거려더니 일출을 본다.

마돈나 누구니?

일출 네?

마돈나 학생이야?

일출 네.

마돈나 학생이 이런데 다니고. 혼난다.

마돈나의 시선은 여전히 여기저기를 불안하게 훑거린다.

일출 저 카드 잘 쳐요.

마돈나의 시선이 그제서야 일출에게 고정된다.

마돈나 손 좀 쥐 볼래?

일출 ... 네?
마돈나 손 좀 쥐봐.

일출, 손바닥을 바지에 한번 쓱 문지르고 쭈뼛쭈뼛 내민다.
마돈나, 일출의 손을 이리저리 만져본다.
긴장하는 일출.

마돈나 너무 투박하다.

마돈나, 일출의 손을 볼에 갖다 댄다.

마돈나 따뜻하고.

일출, 괜히 얼굴이 붉어진다.
마돈나, 쓸쓸하게 웃고는 일출의 손을 놓아준다.

마돈나 이런 손은 노름 못해. 공부해야 돼.

마돈나, 다시 글라스에 소주를 따른다.
일출은 어찌해야할지 모르고 마돈나는 계속해서 해장국집 밖을 훑기댄다.

일출 내가 오늘 얼마 딴 줄 알아요?
마돈나 (다시 불안하게 시선을 움직이며) 나는 방금 일억 잃었어.
일출 (놀라서) ...
마돈나 (흔잣말처럼) 잡았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제일 위험한 거야. 노름도, 연애도.

마돈나, 다시 소주 한잔을 들이킨다.

일출 근데 왜 자꾸 반말해요? 언제 봤다고.

마돈나, 다시 일출을 본다.
일출도 지지 않고 마돈나의 눈을 똑바로 본다.

마돈나, 피식 웃는데 창밖으로 획 하고 지나가는 벤츠가 시선에 들어온다.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가게 밖으로 나가버리는 마돈나.
일출도 놀라서 따라 나가려는데 누군가 일출을 부른다.

종업원 저기요!
일출 ...?
종업원 계산.. 하셔야죠.

일출, 어찌해야할지 몰라 하다가 지갑을 꺼낸다.

일출 어, 얼마요?

종업원 해장국 두 개에 소주 한 병... 만 팔천원이에요.

일출이 카드를 내밀고 종업원이 계산을 하는 사이.

마돈나는 빗속에서 세워진 벤츠를 발로 차고 악을 써가며 소리를 지른다.

벤츠에서 내린 남자 **이상무**(남/48)가 우산을 받쳐주며 마돈나를 달래지만 마돈나는 악을 쓰며 남자의 손을 뿌리친다. 남자는 억지로 마돈나를 붙들며 벤츠 옆 좌석에 태운다. 빗속에서 두 남녀가 가관이다.

계산을 끝마치고 허겁지겁 식당을 나온 일출. 그러나 벤츠는 이미 떠나가고 있다.

일출, 하릴없이 떠나가는 벤츠를 바라보며 영수증과 카드를 지갑에 집어넣는다.

11. 고시원 방. 밤.

일출, 비좁은 고시원에 누웠다. 유리창을 때리는 빗소리.

작은 창으로 들어온 일렁이는 불빛이 일출의 얼굴을 비춘다.

일출, 가만히 자기의 손을 뺌에 대본다. 생각에 잠기는 일출.

12. 털보 하우스 사무실. 밤.

털보에게 침을 받으며 장부에 적는 일출.

털보 살살 쳐라. 제발.

일출 형. 방에서 칠려면 뺑이 얼마예요?

털보, 진지한 얼굴로 일출의 사타구니를 만진다.

털보 왜? 우리 일출이 자지가 좀 컸나?

일출 (피하며) 에이~ 씨... 얼마쯤 놓고 치는데?

털보 그때그때 달라. 만원 뺑도 있고 십만원 뺑도 있고... 포 맞추기에 따라 다르지.

일출 ...

털보 어떻게? 적당히 포 한번 맞춰줘?

일출 (잠시 생각하다가) 됐어요, 뭐...

13. 텔보 하우스 흥. 밤

노름꾼들 틈에 끼어 바둑이를 하는 일출.
패를 받고도 계속 룬 쪽을 흘깃거리며 본다.

노름꾼1 땀.
노름꾼2 땀.
노름꾼3 박스.

일출의 차례에 VIP룸 쪽에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린다.
일출이 소리 나는 쪽을 보면 낯선 사람들이다.
딜러인 노름꾼1이 일출을 부른다.

노름꾼1 아저씨.
일출 (놀라서) 네?

노름꾼1, 눈짓으로 일출의 카드를 가리키며 일출의 차례임을 알려준다.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일출.

일출 아, 아... (카드 덮으며) 죽어요.

일출, 짜증이 나는지 테이블 위에 있는 맥주를 벌컥벌컥 들이킨다.

14. 텔보 하우스 앞. 새벽.

일출, 자전거에 올라타 모텔로 위장된 텔보하우스를 빠져 나간다.
주차장의 가림막을 통과하는데... 쿵. 하고 갑자기 튀어 들어오는 승용차와 부딪힌다.
처참하게 넘어지는 일출.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이상무다.

이상무 에이~ 씨발, 왜, 또 왜?!!
일출 ...

이상무, 우그러진 차의 문짝을 확인한다.

운전석 옆에는 마돈나가 타고 있다. 지난번과는 많이 다르게 정돈된 모습. 심하게 예쁘다.
일출, 마돈나를 보고 깜짝 놀란다.
마돈나는 밖의 일에 관심이 없다.

이상무 (일출을 보고) 별, 그지같은게. 너 이 차 문짝이 하나에 얼마 줄 아냐? 너
이거 어떻게 할거야?

일출, 그제야 정신 차리고 이상무를 쳐다본다.

이상무 이 씹새끼, 눈깔 예쁘게 안 떠?
일출 ... 얼마데?
이상무 뭐?
일출 (나지막이) 문짝이 얼마냐고. 이 씹새끼야.
이상무 (갈잖아서) 하, 요 쥐 좇만한 새끼가. 씨벌, 심장이 막 벌렁벌렁한다야.

그 때, 마돈나 문을 열고 나온다.

마돈나 그만 해요. 똥차 겨우 굴러가는 거.

마돈나, 털보 하우스로 들어간다.
이상무, 일출을 한심하게 바라본다.

이상무 조심해라. 간뎡이가 이렇게, 이렇게 자꾸 막 커지잖아? 그러다가 결국 좇
이 돼요.

이상무, 경박스런 발걸음으로 마돈나를 쫓아간다.

이상무 (쫓아가며) 뭐, 알아? 아는 애야?

일출, 넘어진 자전거를 일으켜 세우면 자전거의 앞바퀴가 힘없이 떨어져 나간다.

15. 털보 하우스 VIP룸. 밤.

Insert - 일출의 손에 들려진 자전거 바퀴가 빠르게 복도를 따라 움직인다.

벌컥, 하고 열리는 룸의 문.
깜짝 놀라 쳐다보는 사람들.
자전거 바퀴를 든 일출이 괴상한 모습으로 서 있다.

일출 (바퀴를 테이블에 던지며) 문짝 얼마냐고, 이 씹새끼야!

(Cut to - 시간 경과)

테이블에 마주 앉은 일출과 이상무.

테이블 위에는 여전히 떨어진 자전거의 앞바퀴가 놓여 있다.

이상무 내 차가 벤츠여서 좀 비싸. 문짝 하나에 한... 천만원쯤 하나?

마돈나 미친.

일출 (자전거 바퀴를 흘깃 보며) 잘됐네. 내 자전거도 천만원쯤 하니까.

이상무 (겉겉 웃으며) 미친 새끼. 좋다. 그럼 이렇게 하자. 천만원빵 카드를 쳐. 종목은... 뭐, 니 맘대로 하고. 이기는 놈이 문짝을 갈든 자전거를 새로 사든 알아서 하는 걸로. 어때?

일출 안되지. 난 국밥값도 받아야 되는데. (마돈나를 보며) 만 팔천원.

마돈나, 어이없어 피식 웃는다.

이상무 둘이 뭐, 뭐 했어?

일출 (여전히 마돈나를 보며) 국밥 값 안 받을테니까 내가 이기면 나랑 데이트 해요.

마돈나 너도 미친놈이네?

이상무 (둘을 번갈아 보며) 했네, 했어. 에라이 씨발것들.

마돈나는 짜증나서 이상무를 쳐다보지도 않는다.

이상무 몰라, 씨발. 떡을 치든 빵을 굽든 그건 뭐 알아서들 하시고 (일출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어이, 좇만이. 너 천만원은 있냐?

일출 넌 있냐?

이상무 (웃으며) 이 놈 이거... 돈 따면 존댓말부터 가르쳐야겠네. (마돈나를 보고) 그리고 씨발년, 넌 뒤졌다.

마돈나 ...

이상무 빵은 십만원. 금방 끝낼테니까 형님들은 잠깐 구경들 하시고 딜러는 공평하게 우리 둘 다 한 마돈나가. 쿨?

일출 미친 새끼.

이상무, 어이없다는 듯 킬킬거리며 웃는다.

16. 러브 하우스 VIP룸. 밤.

마돈나의 예쁜 손이 움직일 때마다 카드들이 춤을 춘다.
그 모습에 매혹된 일출이 맥주를 마시며 훑쳐본다.
일출이 패를 잡고 베팅을 하면 계속해서 이상무가 죽는다.
지리한 몇 판이 이어지다 드디어 이상무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일출 땡.
이상무 레이즈, 땡 받고 이십만.

일출의 눈이 반짝인다.
이상무의 액면은 6원페어.

일출(E) 액면 6원페어. 6한장은 방금 내가 찢었고... 6봉? 6집?

일출은 이미 포플러시.

일출 이십 받고 사십 더.
이상무 형님들, 이번 판에서 끝날 것 같은데? 사십 받고 팔십 더.

구경꾼들 흥미로운 얼굴로 모여든다.
일출, 긴장한다.

일출(E) 더 때렸다? 집인가?
일출 팔십 콜.

마돈나의 예쁜 손으로 6구째 패가 돌려지고.
이상무는 개패. 스트레이트도 플러시도 없다.
일출에게 다이아 6이 떨어진다. 여전히 포플러시.

이상무 (아쉬워하며) 까비야.
일출(E) 6은 다 깨졌다. 기껏해야 하이 투페어.
일출 하프.
이상무 하프가 어딴? 친목도모하냐? 받고 플로.

이상무는 액면 6 원페어.
일출은 액면 개패. 손에든 카드를 합치면 스페이드 포플러시.

일출(E) 때려서 먹겠다? (코웃음) 백프로 땡카다.
일출 (망설이는 척) 콜.

마돈나 히든.

마돈나의 손에서 마지막 히든카드가 돌려진다.
히든카드를 쏘는 일출.

일출(E) 스페이드... 스페이드...

일출의 히든카드는 스페이드 에이스. A플러시. 마지막 카드로 메이드.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는 일출.

일출 다 넣어요.

구경꾼들이 웅성인다.
이상무, 일출을 한참 노려본다.

이상무 (담배를 비벼 끄며) 콜.

구경꾼들의 작은 탄성. 팽팽한 긴장감.
일출, 담담하게 패를 깬다.

일출 에이 탑, 플러시.

구경꾼들의 탄성이 터진다.
일출, 회심의 미소.

이상무 ... 히든에 들어왔냐?

일출 왜? 뽕카가 잡히니까 불알이 쪼그라들었냐?

이상무 (피식 웃으며 구경꾼들에게) 이래서 없는 새끼들이 싫어. 정직하거든. 조금
만 높은 패가 뜨면 그저 돈 딸라고 환장해서 달려드는데... 아, 니 손에 든
패가 안 보이겠냐? 이 재미없는 새끼야.

일출, 표정 굳는다.

이상무 (카드를 뒤집으려 액션 취하며) 형은 집이야.

일출 (당황해서) 유, 육은 없는데?

이상무 육? 누가 육이래?

이상무, 패를 까면 2폴하우스. 손에든 카드가 모조리 2다.

이상무 이 세개. 이집.

일출, 얼굴이 일그러진다.
점점 커지는 구경꾼들의 탄성.
마돈나의 작은 한숨.

17. 렐보하우스 사무실. 밤.

꾸욱. 하고 눌러지는 지장.
턱. 하고 놓여지는 침상자.

허겁지겁 침을 잔뜩 챙기는 일출. 일출의 눈은 이미 돌아가 있다.
털보, 일출의 손을 잡는다.

털보 일출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무르자.
일출 (침 챙기며) 콜 했어. 이미.
털보 내가 여기서 이렇게 쫓된 새끼들을 몇 명이나 본 줄 알아? 이거... 아니야.

털보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일출. 침을 열심히 챙긴다.
털보, 일출의 손을 잡는다.

털보 너 이 새끼! 공지가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알아?!!

테이블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던 공지들이 털보 쪽을 본다. 공지들은 무섭게 생겼다.

공지1 에이~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같은 계열사끼리.
공지2 (차용증을 들어 보이며) 어떻게? 취소?
일출 형. 이길 수 있어.
털보 여자 때문이냐?
일출 ... 아니.
털보 그럼, 왜?!!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일출 나도 몰라, 씨발!!!

침을 들고 비척비척 걸어가는 일출.
그 모습을 바라보는 털보의 애처로운 얼굴.

느리고 슬픈 음악.

일출(E) 육 원페어만 보였다.

18. 렉소하우스 비룡. 밤.

셔플을 하는 마돈나. 그 모습이 너무 우아해서 비현실적이다.
판이 이어지는 족족 일출이 패배한다.

일출 카투.
이상무 아투.

일출(E) 육 한 장은 내가 찢었고 한 장은 들고 있었으니까.

(JUMP)

일출 줄.
이상무 집.

일출(E) 육 투페어에서 어떻게 그렇게 레이즈를 하지? 저 새끼도 히든 메이드인데 어떻게...

(JUMP)

이상무 하프
일출 ... 죽어.

일출(E) 아니야. 포플러시에서 먼저 지랄한 건 나였어. 그 때 알았겠지. 내가 뺑카라는 걸.

(JUMP)

이제 일출의 칩은 거의 없다. 칩이 줄어든 만큼 일출의 눈동자도 텅 비어간다.
셔플을 하던 마돈나가 안타까운 얼굴로 일출을 바라본다.

마돈나 (패를 돌리며) 학생은 이제 그만 하지?
일출 이겨야죠. 이길 수 있어.

마돈나, 패를 집으려는 일출의 손을 잡는다.

마돈나 야.

일출, 텅빈 눈으로 마돈나를 본다.

마돈나 이거, 장난 아니야.

일출 (마돈나의 손을 보며) 나도 알아. 장난 아닌 거.

마돈나, 알 수 없는 슬픈 눈.

이상무 (자신의 패를 까뒤집어 보며) 쌍년~ 쥐도 꼭 좇같은 패를..

일출 (마돈나를 보며) 왜 저런 남잘 만나요?

마돈나 ... 너는? 왜 도박을 하는데?

일출 ...

마돈나, 일출의 손에서 자신의 손을 빼낸다.

일출, 패를 까보면 K가 석장 들어왔다. 일출, 무의식적으로 마돈나를 본다.

마돈나는 예의 알 수 없는 표정.

이상무 어이. 좇만이. 너 얼마나 남았냐? 한 오십 되냐? 그거 가지고 한 판은 치겠냐? 그냥, 그거 다 넣자. 막판!

일출 ...

이상무 왜? 배짱 어디 갔어? (테이블 아래를 살펴보며) 어디 떨어졌나?

일출 ...

일출, 앞에 남은 칩을 모조리 밀어 넣고 자신의 카드 세장을 깐다.

모두들 놀라는 얼굴.

당황한 이상무, 어쩔 수 없이 카드를 까면 A탑 개패.

마돈나가 빠르게 패를 돌리고.

음악이 고조되며 일출의 목소리와 함께 화면은 느리게 이어진다.

일출(E) 마지막에 스페이드 에이스가 안 들어왔더라면...

5구... 일출, 개패 K봉. 이상무, A 원페어.

일출(E) 그 새끼한테 2한장이 안 들어갔더라면...

6구... 일출, 개패 여전히 K봉. 이상무, A원페어 + 포플러시.

일출(E) 6원페어가 액면에 깔리지만 않았더라면...

마침내 히든카드를 돌리는 마돈나의 손. 일출, 개패. K봉 마감.

일출(E) 애초에 6한장을 버리지 않았다면...

이상무, 히든에서 A플러시 메이드.
터지는 환호성. 환호하는 이상무.
일출을 바라보는 마돈나의 슬픈 눈.

일출(E) 그랬다면... 달라졌을까?

허무하게 마돈나를 바라보는 일출의 텅 빈 눈.
일출의 의자 뒤에서 여러개의 손들이 튀어나와 일출을 감싼다.

일출(E) ... 씨발.

손들이 일제히 일출을 확 잡아 끌어당긴다.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일출.

암전.
고요 속에 울려 퍼지는 한 남자의 휘파람 소리. ‘김상국 - 불나비’

2. 애꾸, 혹은 원아이드 잭

19. 수산시장 뒷골목. 밤.

캄캄한 밤. 한 남자가 비좁은 수산시장 뒷골목을 비척비척 걷는다.
휘파람을 흥얼대는 남자는 검은 옷에 검은 선글라스. 구릿빛 피부에 긴머리를 틀어올려 질끈 묶었다. 그 모습이 괴이하다.
비장하고 기이한 음악이 남자의 휘파람 소리와 함께 고조된다.
길을 걷던 남자가 문득 멈춰 선다. 발바닥을 들어보면 껌이 진득하게 달라붙었다.
화면, 남자의 얼굴로 올라가면 남자는 **애꾸**(남/38)다.

애꾸 (나즈막하게) 씨벌...

애꾸, 인상을 쓰며 바닥에 구두를 문지른다.

그 때, 멀리서 들려오는 우당탕소리.
애꾸 두리번거리며 소리의 근원지를 찾는다.
애꾸의 시선 따라가면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오래된 건물 옥상 주차장 난간에 걸쳐지는 일

출. 쿵 줌. 멀리서 봐도 피떡이다.
누군가의 손이 일출을 낚아채 건물 안쪽으로 사라진다.

비장한 음악이 변주되며.
한 쪽 눈썹을 치켜뜨는 애꾸.

20. 수산시장 건물 옥상. 밤.

착. 뿌러지는 물줄기.
정신을 잃은 일출의 얼굴에 물이 뿌려지면 일출, 겨우 눈을 뜬다.
일출을 들여다보는 공지1과 2. 뭔가 좀 어병해보인다.
하도 때려서 공지들도 지친 모양이다.

공지1 (양동이를 던지며) 일어나. 오늘 맞을 건 다 맞아야지.
공지2 (일출의 상반신을 일으켜 세우며) 너 때리느라 살이 다 빠진대 이눔아. 아, 마누라가 의심한다니까!

공지2가 주먹으로 일출의 얼굴을 내리치면 일출, 다시 쓰러진다.

공지1 (다가가며 호소하듯) 이자가 불어서 원금의 두배다. 암마, 우리같이 하는 데도 없어.
공지2 아, 형님. 오늘은 일단 뭐라도 하나 자릅시다. 맨날 빈손으로 가는 것도 염치가 있어야지.
공지1 (품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며) 너... 어머니가 동인천에서 밥집 하시더라.

일출의 얼굴로 사진들을 던지는 공지1.
사진 속에는 작은 밥집에서 일하는 일출 엄마의 모습들이 찍혀 있다.
일출, 그 모습을 보고 사력을 다해 상체를 다시 일으킨다.
일출, 공지들을 보고 뭐라고 뭐라고 웅얼대는데 잘 들리지 않는다.

공지1 뭐라는 거야, 씨발.

공지2, 일출에게 다가가 일출의 입에 귀를 대고 일출의 말을 듣는다.

공지2 (일출의 말을 들으며) 응, 응. 아... 어이구... 응.
공지1 뭐라는데?
공지2 아... 애네 어머니가 참 불쌍한 분이래요. 아버지도 없이 이 놈 하나 키우느라 가진 것도 없고...

공지1 그렇게 씨발, 가진 것도 없는 놈이 노름을 왜 해? 노름을! 아이, 몰라. 이번에는 털보 얼굴 봐서 조용히 밥만 먹고 나왔는데 다음부터는 거기서 수금할 거야. 그런 줄 알아.

일출, 다시 뭐라고 뭐라고 웅얼거리기 시작한다.

공지2가 다시 일출 가까이로 귀를 대고 얘기를 듣는다.

공지2 (귀 기울이며) 응, 응. 아... 응.

공지1 뭐래?

공지2 (난처해 하며) 아, 저기... 그게...

공지1 왜?

공지2 아... 지 어머니 근처에 얼씬만 하면... 죽어버린다는데요.

공지1, 어이가 없어 일출을 가만히 쳐다본다.

공지1 아, 씨발놈 상황파악이... 안되나? (다가가며) 야. 손가락 하나 자르자.

공지2가 일출의 팔을 잡고 공지1이 잭나이프를 꺼내 일출의 손가락을 자르려 한다.

일출, 사력을 다해 반항해 본다.

공지1 일단, 대. 하나 자르고 얘기하자. 자르고.

이때, 멀리서 들리는 애꾸의 목소리.

애꾸 에이~ 그르른 안 돼.

공지2 (애꾸 보고) 뭐여? 까마귀여?

애꾸 (다가오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생각이 없어? 아, 노름꾼 손가락을 자르면? 돈은 어떻게 갚으라고?

공지1 (일출에게) 뭐? 아는 사람이야?

일출, 애써 알아보려하지만 모르는 사람이다. 고개를 가로젓는 일출.

공지2, 일어서서 애꾸에게 다가간다.

공지2 에이~ 니미, 환장하겠네. 뭐여? 일하는 거 안 보여? 지나가던 사람이면 굶게 그냥 지나...

애꾸, 다가오는 공지2를 그대로 지나치며 곧바로 일출에게 다가간다.

애꾸 돈 몇 푼 때문에 사람 때리고 그러는 거 아냐, 이십일세기에. 그거 얼마나 된다고... (쭈그러 앉으며 일출을 보고) 안 그래, 일출아?

공지2 (다가오며) 씨발, 사람이 말하는데...

애꾸 니가 도일출이나?
 일출 (어리둥절) ...
 애꾸 맞지? 도일출?
 일출 (고덕) ...
 애꾸 됐어, 그럼. (꽂지들에게) 돈은 내가 갚아줄게.
 꽂지2 뭐?
 꽂지1 돈만 주면 우리야 땡큐지.
 애꾸 얼마야, 빚이?
 꽂지2 (급하게 계산) 이... 원금 사천오백에 석달치 이자하고 연체료 해서... 일억
 조금 넘나?
 애꾸 (놀라서) 일, 일억?
 꽂지1 어떻게? 갚아 줄 수 있어?
 애꾸 (일출을 보며 슬쩍 웃으며) 이야... 너 보기보다... 개새끼구나?
 일출 ...

애꾸, 자리에서 일어나 꽂지들 앞에 선다.

애꾸 음... 이렇게 하자. 지금은 내가 돈이 없어. (손을 들어보이며) 보다시피,
 그런데 내가 갚아줄게. 갚아줄 거니까 오늘부터 이자는 받지 마.
 꽂지2 이 씨벌놈이 장난을 쳐도 유분수지.
 꽂지1 어이. 우리는 땅파서 장사 하는 줄 알아? 당신을 뭘 믿고 이자를 안 받아?
 애꾸 청량리 용팔이네 애들이지?
 꽂지2 야, 이 까마귀같은 새끼야. 말조심해. 어디 남의 형님 이름을...
 애꾸 가서 용팔이한테 얘기해.

애꾸, 선글라스를 벗으면 한쪽 눈알이 없다. 그 모습이 공포스럽다.

애꾸 애꾸가 보증 선다고.

깜짝 놀라는 일출과 꽂지 1,2.

꽂지1 (놀라서 애꾸를 가리키며) 애, 애, 애...

2. 앙구정 미니카-지도. 밤.

미니카지도. 룰렛 앞에서 애꾸가 베팅을 하고 있다. 애꾸 앞에 수북이 쌓여있는 칩들.
 얼굴이 엉망인 일출이 애꾸 옆에서 죄지은 사람처럼 서서 고개만 숙이고 있다.
 애꾸는 신경 쓰지 않고 룰렛만을 바라본다.

일출 (꾸뻏거리다) 저...
 애꾸 ...?
 일출 ... 고, 고맙습니다. 돈은... 제가 어떻게든 갚...
 애꾸 (롤렛만 보며) 너 나 아니?
 일출 아, 알죠. 애꾸... 이 바닥에서 카드 좀 친다는 놈들은... 다 알죠. 전설적 인... (주위를 한 번 둘러보고) 타짜...시라고.

애꾸, 피식 웃는다.

애꾸 타짜는 무슨... 그냥 사기꾼이지. 계속 서 있을 거야?

일출, 뺄뚱하게 옆자리에 앉는데 롤렛의 구슬이 애꾸가 베팅한 곳에 정확히 멈춘다.
 작게 터지는 함성. 칩을 애꾸에게 몰아주는 딜러.

애꾸 (칩을 정리하며) 진짜 타짜가... 하나 있긴 있었지. 옛날에.
 일출 ...?
 애꾸 짹귀라고.
 일출 짹귀요?
 애꾸 그래. 짹귀, (일출보며) 도성길.
 일출 도성...길? 도성... 우리 아버진데?
 애꾸 (웃으며) 그래. 닥 아버지.
 일출 (믿기지 않는 얼굴) 에이~ 아니에요.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는 그냥... 그... 아무 것도 아닌데?
 애꾸 (다시 베팅하며) 내가 아주 철부지일 때, 너희 아버지한테 빚을 좀 졌어. 결국... 갚지는 못했지만.
 일출 우리 아버지는... 저 어릴 때 젊은 여자랑 바람나서 집나갔다고...
 애꾸 (잠시 생각) 하긴, 아버지가 전설적인 타짜라는 건 차라리 모르는 편이 더 낫겠다. 어머니가 현명하시네.
 일출 우리 아버지가... 그, 그렇게 대단한 타짜였다구요? (믿기지 않는 듯) 짹귀? 별명이 짹귀였어요?
 애꾸 대단했지. 노름 하면... 우리 나라에 딱 셋이었거든. 경상도에 짹귀, 전라도에 아귀, 그리고 전국적으로... 댕다.
 일출 그런데 왜... 돈 한 푼 없이 길에서 객사했대요?
 애꾸 도박꾼의 말로는 원래 그래. 너도 비참한 말로를 맞고 싶지 않다면 이제 일어나서 다시는 이 바닥에 얼쩡대지 마. 니 빚은 니 아버지가 갚아줬다 생각하고... 아버지, 원망하지 말고.

애꾸, 롤렛 테이블로 시선을 옮긴다. 생각에 잠긴다.

일출, 갑자기 들은 아버지에 대한 얘기에 어안이 벙벙하다.

애꾸 뭐해?
 일출 네?
 애꾸 일어나서, 나가.
 일출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아, 네. 네...

일출, 일어나서 인사를 꾸벅하고 꾸뻑꾸뻑 뒤돌아서는데. 침을 들고 가던 어떤 중년여성과 부딪힌다. 침들이 바닥에 떨어지고 중년여성은 짜증을 내며 침을 줍는다.
 일출, 꾸그리고 앉아서 중년여성과 함께 바닥에 떨어진 침들을 함께 줍는다.

일출 (침 주으며) 아, 죄, 죄송합니다.
 중년여성 (일출의 손을 탁 치며) 아, 됐어. 재수없게. (기도에게 짜증) 아, 여긴 아무
 나 막 이렇게 들여보내...?

미니카지노 안이 소란스러워지고 기도들이 다가온다.

일출 아, 죄, 죄송합니다.

기도들, 일출을 데리고 나가려는데.
 애꾸, 그런 일출의 모습이 눈에 밟힌다.

애꾸 ... 의심은 해 봤냐?
 일출 (돌아보며) ... 네? (기도들에게) 자, 잠깐만.

일출은 힘을 쓰며 버티지만 기도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다.

애꾸 돈 잃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게 뭐야?
 일출 ... 의심?
 애꾸 할거면, 제일 가까운 사람부터.

기도들에게 끌려 나가는 일출. 무언가를 생각하는 일출의 얼굴.

22. 텔보하우스 앞 복도. 낮.

씩씩거리며 걷는 일출의 손에는 어디서 났는지 야구방망이가 들려 있다.
 뭔가를 중얼대며 텔보하우스 문 앞에 다다른 일출.
 거침없이 발로 출입문을 뺑 차버린다.

23. 텔보하우스 홀. 낮.

텅하고 열리는 출입문. 분노한 일출이 등장하고.

일출 텔보! 이 개새끼 어디...

카메라가 쭉 빠지면 텅 빈 텔보하우스. 을씨년스럽다.

일출의 분노는 확신이 된다.

사무실로 서둘러 달려가는 일출.

24. 텔보하우스 사무실. 낮.

텅빈 사무실에 쓸쓸히 남아있는 텔보의 책상.

일출 텔보... 이, 이 개새끼!!

분노한 일출, 들고 온 야구방망이로 텅 빈 텔보의 책상을 닥치는대로 부셔버린다.

일출 개새끼! 개... 씨발 새끼!!

25. 압구정 미키카지노 앞. 밤.

으스스한 압구정 뒷골목을 애꾸가 전화를 하며 걷고 있다.

애꾸 아이고... 포 맞추는 거야 뭐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 회장님이 판을 자꾸
 키우시니까. (웃음)

장난스럽게 웃으며 골목길을 빠져나오는데.

갑자기 튀어나오는 일출.

애꾸, 깜짝 놀란다.

애꾸 아, 씨발새끼 놀래라.

일출 아니, 저... 제가...

애꾸 (전화기에) 아, 아니에요. 고양이 새끼가 튀어나와서... (웃음) 아닙니다.

계속 걷는 애꾸와 애꾸를 졸졸 따라오는 일출.

애꾸 예. 그럼 제가 적당히 날을 한번 잡겠습니다. 네.

애꾸, 전화를 끊자 압구정 하우스 앞에 다다랐다.

애꾸, 전화를 끊자마자 말을 시작하는 일출.

일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애꾸 (말 끊으며) 내가 전에 뭐라 그랬냐?

일출 의심! 의심해 보라구요. 그랬더니...

애꾸 아니, 그 전에.

일출 ... 네?

애꾸 다시는 이 바닥에 얼쩡거리지 말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일출 아니, 그게 저...

애꾸 같은 얘기 두 번 하는 거. 나 그거 되게 싫어해.

애꾸, 지하 미니카지노 안으로 쑥 들어가고 일출이 따라 들어가려 한다.

미니카지노 입구 뒤에 기대어 있던 기도(덩치가 크고 험상궂다)가 일출을 막아선다.

기도가 일출의 가슴을 밀어내자 일출이 짜증을 낸다.

일출 아, 알았어. 알았어.

일출, 몇 발 옆으로 비척비척 걸어가더니 문 닫은 어느 가게 앞에 쭈그리고 앉는다.

기도, 그런 일출을 보고 다시 미니카지노로 들어가려는데 애꾸가 지하로 내려가지 않고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

애꾸 재 언제부터 나왔어?

기도 아이고. 한... 한 달 됐나? (웃음) 매일 와요.

애꾸, 쭈그려 앉아 있는 일출을 바라본다.

(JUMP)

쭈그려 앉아있는 일출에게 다가오는 그림자.

일출, 인기척을 느끼고 올려다보면, 험상궂은 얼굴의 기도.

일출 왜요? 앉아 있는 것도 안 돼요?

기도, 일출을 내려다보다 고개를 까딱하며 들어오라는 신호를 준다.

일출, 얼굴이 밝아진다.

26. 앙구정 미니카-지노. 밤.

룰렛테이블. 애꾸가 앉아 베팅을 하고 있다.
일출, 서둘러 애꾸 옆에 앉는다.

일출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요.
애꾸 (턱 끝으로 가리키며) 저 여자 보이냐? 파란 땡땡이.
일출 네?

일출이 애꾸가 가리킨 쪽을 보면 여자들 한 무리가 포커테이블에서 카드를 치고 있다. 뭐가 재미있는지 연신 깔깔거리고 있다.
그 중 파란색 물방울무늬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눈에 들어온다. 여자는 앓된 티를 벗지 못한 젊은 새댁(이하 준이엄마)이다.

일출 (여자 보고) 네.
애꾸 어떻게? 저 여자랑 한 번 할래?
일출 (인상 쓰며) ... 네?
애꾸 (포커 테이블을 향해) 저기, 준이 엄마!

카드를 열심히 쪼던 준이엄마가 애꾸 쪽을 바라본다. 눈빛이 맛이 가 있다.

준이엄마 ... 네, 네?

준이엄마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훨씬 여리고 앓되다.

애꾸 지금 애랑 좀... 하고 올 수 있어요?
준이엄마 아, 아... 지금이요?
애꾸 네. 지금.
일출 ...?

준이엄마, 아쉬운지 카드에서 눈 떼지 못하다가 이내 덮고 만다.

준이엄마 아... 네. (미소 지으며 카드 덮고) 저 죽어요.

준이엄마,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둔 외투와 가방을 챙기는데.

애꾸 (웃으며) 에이~ 농담이야.

준이엄마 ...네? (빨쫘하게 서 있다) 아, 아...(웃음) 네. 하하하.

준이엄마, 서둘러 외투와 가방을 다시 내려놓고 자리에 앉는다.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시 유심히 카드에 집중하는 준이엄마.

애꾸 (다시 룰렛에 베팅하며) 지금 저 여자한테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냐?

일출 ...

애꾸 저 여자도 한 때는 남편도 있었고 애도 있었어. 나한테 도박 빚을 지기 전까지.

일출 ...

일출, 준이엄마를 다시 보는데 너무 해맑게 웃으며 포커를 친다.

애꾸 처음엔 친구를 잃고... 그 다음엔 가족을 잃고... 마침내 자기 영혼까지 잃어버리는 거야.

일출 ...

애꾸 돌아가. 다 잃어버리기 전에.

일출 ...

딜러가 힘차게 룰렛을 돌리고 구슬이 그 위를 돌기 시작한다.

일출, 돌아가는 구슬을 바라본다.

일출 (룰렛을 보다가)... 누가 도박하겠대요?

애꾸, 일출을 본다.

일출 사기꾼이라고 하셨죠? 전에.

애꾸 ...?

일출 저도 그거 할래요. 사기꾼.

애꾸, 피식 웃으며 다시 베팅을 한다.

일출 세상에 씨발, 전부 다 사기 치는 새끼들뿐인데. 저라고 좀 치면 안 됩니까? 사기?

애꾸 (룰렛을 보며) 넌 안 돼.

일출 왜요?

애꾸 재능이 없어. 내가 보기엔.

일출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애꾸 재능 있는 놈이 그런 어스레기들한테 빨려서 공지를 쓰냐?

일출 아니에요. 그건, 그냥... 운이 존나 안 좋아서...

애꾸 운도 재능이야.

구슬이 정확히 애꾸가 베틀한 곳에 떨어진다.

애꾸에게 침을 몰아주는 딜러.

애꾸 (침을 뱉으며) 억울해? 억울하겠지. 누구는 날 때부터 그냥 싸복을 타고
나고 누구는 지지리 가진 것도 없이 부랄 두 쪽 달랑 차고 나오고. 그 마
저도 좇밥들한테 걸려서 수술이나 당하고... 불공평한 것 같지? (일출보고
씩 웃으며) 그래도 어쩌냐? 세상의 룰이 그런 걸.

애꾸, 다시 베틀을 시작한다.

일출 저희 아버지가 진짜 타짜라고 하셨죠?

애꾸, 베틀하던 손이 잠시 멈춘다.

애꾸, 표정이 굳는다.

일출 그럼 뭔가 물려받은 게 있지 않겠어요? 이 지긋지긋한 가난 말고도.

애꾸의 손, 다시 베틀을 시작한다.

일출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은 이것 밖에 없어요. 저 정말 열심히... 아니 잘 해
서 빌려주신 돈, 갚을 게요.

애꾸 필요 없어. 그건 짝귀한테 내가 갚은 거야.

일출 아, 씨발. 그러니까!!

애꾸 ... (일출을 본다)

일출 아니, 씨발은... 아니고...

애꾸, 일출을 빤히 본다.

애꾸 (피식 웃으며) 지 아버지랑 똑같네. 고집불통인 게.

일출 거 봐요. 뭔가 물려받은 게 있다니까.

애꾸, 말없이 일출을 노려 본다.

일출도 지지 않고 애꾸를 빤히 본다.

애꾸 ... 그럼, 한 번 볼까?

일출 뭐요?

애꾸 니 재능.

(JUMP)

룰렛 테이블 앞. 일출, 칩 하나를 들고 고민에 빠져있다.
그 모습을 흥미롭게 지켜보는 애꾸.

애꾸 (일출의 어깨를 잡고) 두 번은 없어. 잘 생각해.
일출 한입 갖고 두 말 합니까? 남자가?

일출, 들고 있던 칩 하나를 빨간색 베팅박스에 밀어 넣는다.

일출 빨강! 남자는 또 존나 빨강이지!

애꾸, 피식 웃으며 앞에 있는 모든 칩을 빨간색 베팅박스에 밀어 넣는다.
일출, 깜짝 놀란다.
룰렛 테이블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웅성이며 몰려든다.

애꾸 (흥미로운 얼굴로 테이블을 보며) 베팅을 할 땐 인생을 걸어라.

구경꾼들이 더 신났다.
딜러가 힘차게 룰렛을 돌리고. 구슬이 힘차게 룰렛 위를 움직인다.

눈을 질끈 감고 기도하는 일출.

일출 (중얼중얼) 빨강, 빨강... 빨강 씨발...

그 모습을 흥미롭게 바라보는 애꾸. 구경꾼들.
힘차게 돌아가는 룰렛.

마침내. 구슬이 툭하고 칸에 떨어진다.
침묵.
눈을 질끈 감고 있는 일출과 놀란 애꾸.
구경꾼들의 환호성!
일출, 살짝 눈을 떠보면.
빨간색 칸 위에 구슬이 정확히 떨어져 있다.

일출 그래! 씨발, 빨강!!

일출, 구경꾼들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난리를 치고.

일출 (다가와서 흥분된 목소리로) 봤어요? 저의 재능?!!

애꾸는 이마를 짚고 씩씩한 미소를 짓는다.
그러던지 말던지 구경꾼들과 지랄을 하며 좋아하는 일출.

음악, 장난스럽게 변하며, 동료들의 몽타주 시퀀스 이어진다.

27. 몽타주 / 호텔 바. 밤.

젊은 여자 바텐더가 위스키잔을 바 위에 올려 놓는다.

위스키 잔을 집어드는 남자는 누가봐도 양아치인 **까치**(남/33).

까치가 여자 바텐더에게 왕크하면, 웃던 여자 바텐더 뒤돌아 구역질이 난다.

까치 실실 쪼개다가 **여사**(여/48)가 들어오자 얼른 얼굴을 바꿔 침울한 표정을 짓는다.

여사 애기야. 오래 기다렸지?

까치, 슬픈 얼굴로 여사를 바라본다.

28. 몽타주 / 정석기원. 낮.

한가한 오후의 기원.

두 남자. **교수**(남/58)와 **일타**(남/37)가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며 내기 바둑을 둔다.

카운터에 앉은 **권원장**(남/50) 전화를 받고 있다.

권원장 아니 애들이 아빠도 안 보고싶대? 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당신
 이라도 들어와. 나도 혼자서 이게 무슨 고생이니?

일타 아저씨.

권원장 뭐? 이만볼? 아니, 지난번에 보낸...

일타 (신경질적으로) 어이!!

권원장, 일타를 본다.

일타, 손짓으로 권원장을 부른다.

젊은새끼가... 하는 표정으로 쳐다보는 권원장.

29. 몽타주 / 앙구정 미니카. 지노. 밤.

작지만 화려한 미니카지노.

가슴이 강조된 아슬아슬한 원피스를 입고 카지노를 돌고 있는 **영미**(여/24). 한손에는 위스키 잔을 들고 있다. 그 모습이 매력적이다.

영미 한구석에 늑다리들 - **사장**(남/60), **사장친구**(남/60)를 발견한다.

영미, 포커를 치는 늑다리들에게 다가가 옆자리에 자연스럽게 앉는다.

영미 어머~ 사장님.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사장 나야 여기 죽돌인데, 미스윤이 오랜만 아니야?

사장, 테이블 밑으로 영미의 허벅지를 스윽 만진다.

영미 (사장의 손을 자연스럽게 뿌리치며) 무슨 소리에요. 나 맨날 사장님 오나
 안오나 저~기 테이블에서 보고 있었는데.
사장 (흐뭇) 정말?
사장친구 나? 나?

교태로운 웃음을 흘리며 위스키를 훌쩍이는 영미.

30. 몽타주 / 호텔 바. 밤.

걱정스런 얼굴로 까치를 바라보는 여사.

여사 자기, 정말 나한테 왜 그래? 애기 안 해줄거야?

까치, 말없이 위스키를 한잔 마신다.

여사 일 때문에 그래? 왜? 어려워?
까치 누나.
여사 응?
까치 나... 아파요.
여사 (깜짝 놀라며) 왜? 어디가? 어디가 아파?

까치, 여사의 손을 들어 자신의 왼쪽가슴에 갖다 댄다.

까치 여기가.
여사 (까치의 가슴을 때리며) 에이~ 뭐야. 놀랬잖아.
까치 (여사의 손을 덥석 잡으며) 진짠데.
여사 ...

까치 나 지금 미치겠어. 아파서.

여사, 표정 굳는다.

Cut To - 호텔 투명 엘리베이터.

격정적인 키스를 나누며 뒤통으로 올라가는 까치와 여사.

리. 몽타주 / 정석기원. 낮.

일타 (지갑에서 돈을 꺼내며) 외통수에 걸렸는데 훈수 한번 받으시다.

일타, 교수와 권원장에게 각각 오만원짜리 한 장씩을 준다.

교수 (돈 챙기며) 그러시지요. 게임도 싱거운데.

권원장 5만원짜리?

일타 다른 것도 있어요?

권원장 (심드렁한 얼굴로) 그럼요. 5만원, 10만원, 20만원짜리. 이렇게 있어요.

잠시 고민하는 일타.

일타 (다시 지갑 꺼내며) 에이, 큰 판이니까 20으로 합시다, 20! (교수에게) 괜
찮죠?

교수 (약간 당황하며) 어허, 이러면...

일타 에이... 실력은 내가 안 되고.

권원장, 신나서 얼른 20만원을 챙긴다.

교수, 어쩔 수 없이 20만원을 주섬주섬 집어 든다.

권원장 (유심히 기반을 보며) 보자... 앞산에는 불이 났는데, 등 뒤로는 한강이
라... 그래도 젊은 분이 도망을 치면 쓰나.

권원장, 흑돌을 들어 상대 진영으로 깊숙이 이어 들어간다.

교수, 진지한 얼굴로 백돌을 놓는다.

권원장 (흑돌을 놓으며) 산에는 언제나 길이 있는법.

교수 (백돌을 놓으며) ...

권원장 (다시 흑돌을 놓으며) 잠시 어려움을 견디고 묵묵히 걸으면...

교수 (당황한 얼굴로 다시 백) ...
권원장 (다시 흑) 길은 반드시 다른 길로 이어지지요.

흑돌이 백돌을 역포위했다.
교수와 일타의 얼굴 표정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다.

일타 키야~ 이거 묘수네 묘수. 이야...

교수, 못마땅하다.

권원장 (흐뭇하게 웃으며) 어떻게? 재떨이 좀 갈아드릴까?
일타 아, 네. 그러세요!

권원장, 기반을 넘어 한 손으로 재떨이를 치우며 다른 한 손으로 일타 앞쪽의 바둑돌의 위치를 살짝 바꾼다.
권원장, 뒤돌아서서 카운터로 가며 손가락으로 숫자를 만들어 바뀐 돌의 위치를 교수에게 알려준다.

교수 (손가락을 확인하고) 이거 큰일이네, 이거...

흐뭇한 일타.

32. 몽타주 / 앙구정 미니카지노. 밤.

영미, 늑다리들과 대화하다가 갑자기 뭔가가 생각난 듯.

영미 아, 맞다. 사장님. 이따가 나 술 한잔 사줄 수 있어요?
사장 술?
사장친구 내가 살게, 내가. 술.
영미 (사장에게 다가가며) 내가 요즘 고민이 많아서 그래. 상담 좀 해줘요.
사장 (흐뭇) 아이구, 상담. 좋지!
영미 그럼 나 기다린다. 저~기 안 쪽 테이블에 있어요.

영미, 잔을 들고 테이블에서 일어서는 순간.
위스키 잔 아래 골드 칩이 하나 붙어 있다.
영미, 걸으며 살짝 잔 밑에서 칩을 떼어 가슴 사이로 집어넣는다.
위스키를 훌쩍이며 유유히 테이블 사이를 걷는 영미.

33. 몽라주 / 호텔 스위트 룸. 밤.

욕실에서는 여사의 콧노래와 함께 샤워기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방안은 조악하게 꽃잎이 흩뿌려져 있고 케이크가 있는 테이블엔 초가 켜져 있다.
나체로 서서 전화를 하고 있는 까치.

까치 아니, 장난해? 다 됐다니까! 야, 이 씨발. 그럼 내가 좇빨났다고... (한숨)
판돈은... 다 돼 가니까 넌 딴 생각하지 말고 조사장네 그 호구 새끼들만
잘 달라고 있어. 가족 여행은 씨발... 아, 못 가게 해야지!!

그 때, 울리는 벨소리.

까치 (황급히 전화기를 막고) 누구야?
호텔직원 룸서비스입니다. 화이트 와인 주문하셨죠?
까치 아, 네, 네.

까치, 수건으로 대충 아랫도리만 가리고 문 쪽으로 걸어간다.

까치 (전화기에 대고) 하여튼 너는 그 새끼들 어디 딴 판 기웃 거리는지 잘 보
고만 있어. 새벽같이 일어나서 정성껏 밥 다 지어놔는데, 남의 아가리에
쳐넣을래?

까치가 전화를 하며 문을 여는데 겁에 질린 호텔 직원이 화이트 와인을 품에 들고 서 있다.
직원의 양 옆으로 거구의 남자 둘이 나타난다.
상황파악이 안 되는 까치.
까치의 안면을 강타하는 남자들.
나뒹구는 까치, 수건이 날아가 나체가 된다.
남자들 뒤로 침울한 얼굴의 **중년남자**(남/52)가 서 있다.

34. 몽라주 / 압구정 미키카지노 화장실. 밤.

좌르르. 변기 아래 놓아둔 백 위로 쏟아지는 골드칩들.
화장실 변기에 걸터앉은 영미가 상체를 숙이고 가슴을 털고 있다.
영미, 칩이 브래지어에 걸렸는지 가슴 사이에 손을 넣어 뒤적인다.

영미 (가슴을 뒤적이며) 씨발, 커도 문제야.

35. 몽타주 / 정석기원. 낮.

일타 쌍!!

하늘로 날아가는 기반과 바둑돌들.

분을 삭이지 못하는 일타, 지갑을 꺼내 오만원짜리로 100만원을 꺼내놓고 사라진다.
교수, 권원장을 보고 웅크한다.

36. 몽타주 / 호텔 스위트 룸. 밤.

수건을 입에 문 까치가 나체 차림으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있다. 많이 맞은 듯 얼굴이 엉망이다.

중년남자, 의자를 가져와 까치 앞에 앉는다.

중년 남자가 담배를 꺼내무는데, 까치는 또 때리는줄 알고 바짝 쫓아든다.

중년남자 저 여자... 우리 애들 엄마야.

까치 ...

중년남자 돌려보내줘.

까치 (고덕고덕) ...

중년남자 나... 저 여자 사랑한다.

까치 (고덕고덕) ...

중년남자 사랑이 뭐 있냐? 나이 먹고 의리 지키면... 그게 사랑이지.

중년남자, 담배를 까치의 허벅지에 끈다.

까치, 괴로워하면 덩치가 다가와 조용히 입에 손가락을 갖다 댄다.

37. 몽타주 / 정석기원. 낮.

교수가 권원장에게 돈을 나눠준다.

교수, 아까와는 말투가 사뭇 다르게 천박하다.

교수 (돈을 나눠주며) 아, 거 젊은 놈이 성질머리 하고는...

권원장 형님, 나... 염치 없는데. 좀... 더 주면 안 될까?
 교수 권원장아. 너도 참.
 권원장 필리핀에 돈이 떨어졌대. 아, 애들 공부는 마저 시켜야될 거 아냐.
 교수 너도 죽어가는데 애들은 무슨... 나는 무슨 자선사업하냐?
 권원장 ...
 교수 니가 보내는 거 애들한테 들어가는 건 맞아?
 권원장 형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슈?
 교수 제수씨도 그래. 한국 안 들어온지 벌써 삼년이야. 삼년. 막말로... 딴 농 만
 나서 짹짹해도 벌써 했지.
 권원장 에이, 씨발... 됐어, 가. 가, 그냥.

교수, 챙긴돈을 다시 꺼내 몇 장 다시 떼다가 아예 통째로 내려놓는다.

교수 이제, 따로 해. 나 찾지 마.

교수, 나가버린다.

권원장, 깊은 한숨을 쉰다.

38. 몽타주 / 앙구정미니 카지노. 밤.

화장실에서 나온 영미, 다시 먹잇감을 찾는다.

영미 (목을 돌리며 혼잣말) 아, 피곤해.

그 때, 저쪽에서 잭팟이 터졌는지 환호성이 들린다.

보면 구경꾼들이 잔뜩 몰려있다.

눈이 반짝 하는 영미.

영미 (위스키를 한 모금 훌쩍 하며) 그래도 일해야지. 부자 되게.

환호성이 터진 테이블로 다가가는 영미.

39. 몽타주 / 호텔스위트 룸. 밤.

수건을 물고 바닥에서 울고 있는 까치.

중년남자,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원가를 찾는다.

중년남자 어떤 남자가 알려주더라. 여기에 있다고.

까치, 비명도 못 지르고 울고만 있다.

중년남자 그 남자가 전해주랜다.

중년 남자, 지갑에서 카드 한 장을 훑 던지고 나가면 까치 물고 있던 수건을 뺄고 천천히 카드를 본다.

눈앞의 카드는 원아이드 잭.

까치 씨발... 이게 뭔데? 뭐, 어쩌라고!

그제야 샤워를 마치고 나온 여사. 바닥에 널부러진 나체의 까치를 본다.
비명을 지르는 여사.

40. 몽타주 / 정석기원. 밤.

혼자서 엉망이 된 기원을 정리하는 권원장.

바둑돌들을 주워 담고 기반을 제자리에 놓으려는데, 뒤집혀진 기반 뒷면에서 무언가를 발견한다.

기반을 자세히 보면 그것은 카드 한 장. 원 아이드 잭.

권원장, 카드를 집어 들며 씨익 웃는다.

41. 몽타주 / 앙구정 미니카지노. 밤.

웃는 얼굴로 칩을 챙기는 일출에게 카드 한 장을 툭 던져주는 애꾸.

카드는 원 아이드 잭.

일출 이게 뭐예요?

애꾸 원 아이드 잭. 선두장의 카드 중에 오직 두 장.

일출 그래서요?

애꾸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누구든 이길 수 있는 무적의 카드.

일출 ...?

애꾸 그게 나야.

일출 ...?

그 때, 위스키 잔을 칩 위에 놓으며 등장하는 영미.

일출과 애꾸가 대화하던 룰렛테이블은 영미가 있던 미니 카지노 안에 있던 것이었다.

영미는 칩 새 없이 떠들기 시작한다.

영미 어머~ 운이 좋으시네? 초심자의 행운같은 건가? 여기 오늘 처음 왔죠? 이렇게 잘 생긴 오빠들을 내가 못 봤을 리가 없지.

일출 ...?

영미 (일출을 보며) 오빠들 오늘 운 터지는 날인가 보다. 그러니까, 돈도 따고 게다가... 나도 만났네? (애꾸 보고 웃으며) 알죠? 이런 여자 만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사실... (애꾸의 귀에 대고) 제가 오늘 좀 취했어요.

애꾸, 영미를 빤히 보며 씩 웃는다.

영미, 따라서 헤하고 웃는다.

영미 (자리에서 일어서며) 저는 저~쪽 안 쪽 테이블에 있어요. 저한테 돈 잃어 주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콜~

영미가 테이블의 위스키 잔을 들고 일어서는데,
애꾸가 불쑥 위스키 잔을 든 영미의 손을 잡는다.

영미 (놀라서) 어땀!

잔에 든 위스키가 옆 사람들에게 튀고, 룰렛 테이블에 작은 소동이 일어난다.
멀리서 포커를 치고 있던 사장도 놀라 영미 쪽을 본다.

영미 (당황했지만 뻔뻔하게) 왜 이래요? 가슴 뛰게?

애꾸 심장이 약하네.

애꾸, 영미의 위스키 잔 바닥에서 칩을 떼어내 보여준다.

애꾸 손은 대범한데.

애꾸, 영미에게 칩을 던져주고 웃으며 미니카지노를 나간다.

일출도 얼레벌레 따라 나간다.

웅성이는 미니카지노. 사이로 카메라 쿵 줌 되면 화가난 사장.

사장 (자리에서 일어나며) 미스 윤!

영미, 사장에게 슬쩍 웃어보이며 서둘러 자리를 뜬다.

영미 조또...

42. 앙구정 미니카-지노 앞. 밤.

애꾸는 빙긋 웃으며 걷고 일출은 어리둥절해서 애꾸를 따라 걷는다.
급하게 따라 나온 영미가 짜증을 내며 소리를 지른다.

영미 야!
일출 재...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요.
영미 너 뭐야? 개, 그지 같은 게... (따라가며) 너 거기 안서?

애꾸, 웃으며 계속 걷는다.
영미가 애꾸와 일출 곁에 거의 다가왔다.

영미 너, 원데 남의 영업장에서 행패야?

애꾸, 멈춰선다.
따라서 멈춰서는 영미와 일출.

애꾸 영업장? 아... 이게 니 일이었구나. 고작 침 몇 개 뺨땅 치는게.
영미 그래 일이다. 아니, 일이었지. 방금 너 뺨에 실직했으니까.
애꾸 성실하게 푼돈 벌기엔... 탈이 너무 아깝지 않냐?
영미 남이사.
애꾸 (영미를 위 아래로 훑어보다) 안 되겠다.

애꾸, 주머니에서 카드 한 장을 꺼내 영미에게 준다.

애꾸 자.
영미 이게 원데?
애꾸 찬스지. 니 인생을 바꿀 찬스.

애꾸, 일출과 영미를 두고 가던 길을 간다.

애꾸 (가다가 뒤돌아 보며) 대신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일출에게) 너도.

사라지는 애꾸.

애꾸 남의 돈 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일출과 영미, 어색하게 원아이드 잭 한 장씩을 들고 서 있다.

영미 별 씨...

장난스러운 몽타주 음악이 끝나면서 암전.

3. 물영감

43. 당구장 / 애꾸의 아지트 안. 낮.

영업을 하지 않는 당구장. 애꾸의 아지트.

일출, 권원장, 까치가 제각각의 모습으로 아지트에서 애꾸를 기다린다.

권원장이 돋보기를 쓰고 카드의 뒷면을 비스듬하게 스탠드에 비춰보고 있다.

불빛에 반사되면 미세하게 작은 글씨로 주소와 시간이 적혀 있다. 권원장, 씩 웃는다.

까치는 화가 치밀어 오르는지 당구 쿣대를 분자리며 지랄을 하고 있다.

까치 (쿣대를 탕탕 내려치며) 잡히면 뒤흔어. 개새끼. 어딴어? 나와! 안 나와?

권원장 (돋보기 벗으며) 거, 조용 좀 하자. 콜택시도 아니고... 부른다고 오겠냐?

까치 아저씨. 나 지금 뚜껑 열렸거든. 피 보기 싫으면 빠지슈.

권원장 (비웃음) 피에 살에 뼈에 똥까지 다 봤다. 이눔아.

까치 내가 지금 뽀이 존나 치는 상황이거든! 나 오늘 사고 한번 칠 것 같으니까
꺼들지 마슈. 다들! (각목을 내리치며) 씨발, 다치기 싫으면.

일출 (피식 웃으며) 짓는 개가 무슨 거 봤냐?

까치 뭐야, 저 씨발새끼는?

일출 잘 아네. 씨발새끼다. 왜?

하는데, 뒤에서 섯터문이 드르륵 열리고 애꾸가 들어온다.

애꾸, 무리를 향해 두벅두벅 걸어간다.

까치, 애꾸를 쿣대로 가리키며 걸어간다.

까치 너야? 니가 그, 그... 씹새끼냐?

애꾸, 가볍게 쿣대를 제끼고 팔을 꺾어 까치를 제압한다.

까치 아, 씨발. 뉘. 안 뉘? 너, 내가 누군줄...

애꾸가 가볍게 까치의 팔을 돌려 까치를 제압하고 권원장에게 다가간다.

애꾸 (웃으며 권원장에게) 오랜만입니다. 형님.

권원장 (애꾸를 와락 끌어 안고) 이친구야, 연락이 하도 없어서 난 어디 빨래질이
라도 당한 줄 알았잖아.

애꾸 (웃으며) 외국에 좀 나가 있었어요.

권원장 그래, 그릴 리가 없지. 천하의 애꾸가 빨래질은.

까치, 어깨가 아프지만 꺾쩍 놀랐다.

까치 애꾸? 방배동 애꾸? 와, 씨발... 실화야?

그 때, 셔터문이 다시 한 번 드르륵 열리고 일동 문 쪽을 본다.

야구 모자를 눌러쓴 영미가 고개를 빼꼼 내민다.

영미 안 늦었죠? 이력서 내려 왔는데.

44. 당구장 / 애꾸의 아지트 사무실. 낮.

당구장 안 사무실에서 애꾸가 우리들을 향해 말을 한다.

구석에는 원형의 포커테이블과 당구다이와 컷대들이 있다.

애꾸 여기 다 프로들이니까 설명은 간단히 할 게요. 밀작업이 끝난 호구 하나가
있어요. 사이즈가 커서 팀으로 움직여야 해요. 적합한 멤버들을 모아봤습
니다. 계획이 마음에 안 들면 지금 빠지세요.

까치 잠깐. 여긴 뭐, 하이패스여? 통성명도 없이 바로 들어가나?

영미 얼굴들 보면 딱 알겠는데 뭐. (멤버들 하나하나 보며) 노름꾼에 사기꾼...
아냐?

일출 (트럼프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사기꾼... 까치는 아니고 아직.

권원장 사기꾼이 따로 있나? 패로 먹으면 하수고, 베팅으로 먹으면 고수고, 항상
먹으면 사기꾼이지. (일어서며) 권원장이요. 사기꾼이올시다.

일출 (일어나 권원장에게 인사하며) 도일출입니다.

애꾸 (권원장에게) 짝귀 선생님... 아들이예요.

권원장 (반가워하며) 아, 도선생. 나도 젊은 시절에 한번 뽀족이 있지. 횡성 어디
였는데... (애꾸를 보며) 그래, 같은 식구였지?

애꾸 네, 잠깐...

권원장 크아... 그 양반, 화투 참 예술로 쳤었는데. (웃으며 일출에게) 아직 화투 치시나?

일출 돌아가셨어요.

권원장 아니, 어쩌다...

일출 화투 치다 가셨겠죠, 뭐. 예술로.

권원장 ...

영미 (일어서며) 윤영미예요. 보시다시피 배웁니다.

까치 (야지주며) 배우치곤 와꾸가... 좀 그렇지 않나?

영미 (발끈하며) 내 와꾸가 어때서? 그리고? 요즘 누가 와꾸로 배우하니?

까치 그럼 뭘로 하는데?

영미 (자신의 몸매를 가리키며) 치명적인 무기는 가리고 다니지. 위험하니까.

까치, 음흉하게 웃으며 영미에게 다가간다.

까치 (비리게 웃으며) 그럼 뭘 좀... 보여줘야 하지 않겠어? 뭘 믿고 일을 같이 해?

영미 (위아래로 까치를 훑으며) 그럼, 너부터 좀 보자. 쓸만한지.

까치 나야 죽이지.

영미 보고 괜찮으면 나도 한번 보여줄게. 화끈하게.

까치 진짜지? 진짜지? (갑자기 성큼성큼 걸어가며) 딴 말하기 없기다.

까치, 일출의 트럼프를 빼앗아 원형 테이블에 다가가 앉는다.

까치, 혼자 뭐라고 뭐라고 지껄이면서 셔플을 시작한다.

멤버들이 하나둘 원형 테이블에 앉기 시작한다.

까치 (화려하게 셔플하며) 어떻게 줄까, 어떻게 줄까, 어떻게 줘야 영미가 한번 줄까?

영미 어머~ 애 이빨 터는 거 너무 양아치다.

애꾸 (웃으며 테이블에 앉으며) 그래, 나도 궁금하네. 실력 한 번 보자.

까치 (계속 셔플하며) 거, 시장조사도 안 해보고 사람 뽑았소? 나 까치요. 까치. 내가 왜 까친 줄 알아?

까치, 셔플을 마치고 멤버들 앞으로 패를 탁탁탁탁 던진다.

일출 앞에 자니 네장, 권원장에게 킹 네장, 애꾸에게 에이스 네장, 영미에게 퀸 네장이 각각 떨어진다.

까치 패를 하두 좇같이 준다 그래갖구. 그래서 까치야. 조까치.

권원장 (장난스럽게 놀란 표정) 호...

멤버들 살짝 놀라는 눈치.

영미 (정색하며) 어떡하니? 나는 마담 싫은데.

까치, 얼른 다시 패를 섞더니 셔플을 시작한다.

까치 (셔플하며) 어이쿠~ 안되지, 안되지. 우리 영미가 싫으면 안되지. 영미는 마담이 왜 싫을까? 보자. 그럼 우리 영미가 뭘 좋아할까... 보자... 보자... 봐빠따!

까치, 다시 빠른 손놀림으로 패를 던지면 이번에는 일출에게 클로버 1234, 권원장에게 다이아 1234, 애꾸에게 스페이드1234, 영미에게 하트1234가 떨어진다.

까치 (헤헤 웃으며) 우리 영미는 하트 좋아할 것 같아서. 넣어줘, 넣어줘.
애꾸 귀엽네, 이 새끼.
까치 애교쪄. 애교. (영미에게) 자, 이제 언니 차례.
영미 (잠시 생각하다) 그래. 약속은 약속이니까.

영미, 자리에서 일어나면 끈적한 음악이 흐르고. 돌아서서 모자를 획 벗는 영미. 영미의 긴 머리가 섹시하게 찰랑인다. 외투를 벗어 테이블로 던지는 영미.

다들 뭔가(?) 굉장히 기대하는 눈치.

영미가 웃길에 손을 가져가다가 갑자기 멈춘다. 음악도 힘없이 함께 멈춘다.

영미 아니지. (까치보며) 내가 보여주기로 한 건 너잖아.
까치 (벌떡 일어나며) 그, 그렇지.
영미 그러니까... 너만 봐.
까치 씨발, 존나 멋있다!

까치를 제외한 일동, 뭔가(?) 굉장히 실망하는 눈치.

영미 요 앞에 세워져 있는 BMW 니꺼니?
까치 그, 그건 어떻게 알았대?
영미 차가 하도 좇같이 생겨서. 차에서 기다려. 너만 보여줄게.

흥분한 까치, 뛰쳐나가며 넘어지기까지 한다.

까치 와우~ 죄송합니다. 대신에 제가 자세하게 보고... (넘어졌다 일어서며) 자세하게 얘기해줄게요.

까치, 뛰쳐 나간다.

영미 (다시 모자를 쓰며) 재 확실히 좀... 모자란 것 같은데?

영미가 주머니에서 까치의 BMW 차키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다.
일출, 크하고 웃는다.

권원장 재미있어 지겠다. 꼬라지 보니까. (애꾸에게) 사업얘기나 더 들어봅시다.

그 때, 까치 다시 창고로 들어온다.
까치, 꾸벅대며 차키를 찾는다.

까치 내가... 차키를... 어디에 뒀더라...
애꾸 (웃으며) 앓아. 이 새끼야. 일하자.

신나는 음악과 함께 수술 몽타주 시작.

45. 수술 몽타주 / 서천 관공호텔 커피숍. 낮.

화면이 누군가의 시선으로 지방의 관공호텔 커피숍 입구에서부터 내부로 훑어 들어간다.
종업원이 화면을 맞이하여 어떤 자리로 안내한다.

애꾸(E) 졸부야. 졸부. 젊어서는 그냥 술팔고 여자팔고 땅놀이 좀 하다가 그 지역
온천이 터져서 건물을 몇 개 올렸지.

화면 커피숍 어딘가에서 멈추면. 깊은 소파에 앉아 발을 만지고 있는 **물영감**(남/65). 아집
과 천박함으로 가득한 전형적인 졸부의 얼굴.

물영감 맞은편의 **부동산 업자**(남/58)가 일어나 화면을 향해 인사하고 그제서야 물영감이
화면 쪽을 바라본다.

화면의 시선은 까치와 영미였다. 화려하게 차려입은 영미와 까치는 팔짱을 끼고 바짝 붙어
있다. 물영감 앞에서 다소 긴장한 까치가 작심하고 영미의 허리에 손을 넣어 영미를 바짝
끌어당긴다.

당황한 영미의 표정.

영미(E) 뻘!

46. 수술 몽타주 / 애꾸 아지트. 낮.

영미는 정말 질겁한 표정이다.

영미 나 재 싫어. (일출 가리키며) 저 오빠랑 하면 안돼요?

까치, 슬쩍 쪼개고. 일출 머쓱하다.

애꾸 일출이는 할 일이 따로 있어. 아직 배워야할 것도 많고.

영미 그럼, 빼줘요. 내가 꼭 안 껴도 되겠네 뭐.

권원장 (웃으며) 미인이 껴야 판이 커지지. 더 들어보자.

영미, 짜증내며 자리에 앉는다.

47. 수숙 몽타주 / 서천 관공호텔 커피숍. 낮.

영미, 어쩔 수 없이 까치 옆에 바짝 붙어 환하게 웃는다.

물영감이 일어나 발을 만지던 손으로 까치에게 악수를 청한다.

까치는 정말 똥 씹은 얼굴로 마지못해 악수를 한다.

애꾸(E) 이 영감이 자존심이 세. 그 동네에서는 아주 지가 왕이거든.

부동산업자가 뭐라고 뭐라고 떠들며 까치와 영미를 앉힌다.

물영감은 슬쩍 영미를 훑쳐보며 커피를 홀짝인다.

애꾸(E) 지는 거 싫어 하고. 여자 좋아하고. 그러면서 뱃보는 또 좇만하고... 전형
적인 졸부야. 졸부.

48. 수숙몽타주 / 해변. 낮

경치가 끝내주는 곳에서 먼 바다를 보며 미소 짓는 까치와 영미.

뒤로 차를 세워놓고 빼딱하게 서 있는 물영감과 열심히 설명하는 부동산업자.

진지하게 얘기를 듣고 있는 까치와 영미.

애꾸(E) 까치랑 영미는 별장을 지을 땅을 보러 내려온 젊은 사업가 부부. 며칠 땅
보러 다니면서 이것저것 불평하면서 까탈스럽게 굴어.

까치 이야~ 공기가 진짜... (숨을 들이마시며) 음~ 달콤해.

영미 자기야. 나 여기 너무 좋아. 진짜 너무.

까치 근데... 그것뿐이잖아. (주위를 보며) 뭐, 편의시설도 전혀 없고 교통도...
 여기 올라오는데 집도 몇 채 없더라.
 영미 그래도 여기 좋은데...
 까치 (손가락으로 영미의 코를 살짝 치며) 당신 맨날 밤에 무섭다고 혼자 울겠?
 (부동산 업자에게) 좀 더 뭐랄까... 사람이 살만한 데 없어요?
 부동산업자 아... 그러시면...

그 꼬라지를 바라보는 물영감. 말하는 게 영 못마땅하다.

49. 수술 몽타주 / 골프장. 낮.

그림같은 컨트리클럽에서 라운딩을 하는 까치, 영미, 물영감, 부동산업자.
 티샷을 준비하는 까치. 그 때 갑자기 울리는 까치의 전화벨.
 까치, 전화를 확인하고 골프채를 영미에게 건네준다.

까치 당신이 좀 쳐.
 영미 내가? 나 못하는데?
 부동산업자 (당황) 아니, 이, 이거 내긴데...
 까치 (전화를 가리키며) 급해서... (전화를 받고 화내며) 아니 도대체 as-is분석
 을 어떻게 한 거야? P.I. 데스크 포스 팀에서 시스템 더 이상 아작스 방식
 으로는 무리라는데. 박팀장은 확인해 봤어? WAS서버 디벨로퍼들이랑 킥
 오프미팅하기 전까지 RFP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요. 알았어? 아니 내말이..

알 수 없는 말을 하며 멀어지는 까치가 자꾸 신경쓰이는 물영감.

애꾸(E) 그렇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해가면서 심기를 계속 건드리라고.

영미는 호들갑을 떨며 볼을 계속 치지 않고 연습 스윙만 한다.
 물영감의 짜증이 점점 올라간다.

50. 수술 몽타주 / 한정식집. 밤.

잘 차려진 한상 앞에서 술을 마시는 까치, 영미, 물영감, 부동산.
 영미는 과장된 손짓을 섞어가며 뭐라고 뭐라고 계속 떠들어대고 물영감은 똥씹은 표정이다.
 덕분에 부동산업자도 가시방석이다.

애꾸(E) 결정적으로 그 동네에 대한 흥을 보란 말이야. 더럽다느니, 교통이 불편하

다느니, 낙후되었다느니, 사람들이 이상하다느니...

물영감, 표정 썩어들어간다.

영미의 불평이 끝나자마자 까치가 안주를 집어 먹으며 한마디 한다.

까치 (웃으며) 그래도, 공기는 좋잖아.

물영감, 눈에서 살기가 느껴진다.

일출(E) 계속 심기만 건드려요?

51. 수술 몽타주 / 아지르. 밤.

애꾸의 말을 경청하고 있는 무리들.

일출 작업은 언제 들어가는데?

애꾸 그게 작업이야.

권원장 자존심을 계속 건드려라?

애꾸 게이지가 짝 찼다고 생각 됐을 때...

애꾸, 까치를 가리키며 엄지와 중지를 부딪혀 딱. 소리를 낸다.

52. 수술 몽타주 / 한정식집. 밤.

까치 (부동산업자에게) 사장님. 담배 한 대... 태실래?

부동산업자 아... 아, 네. 갑시다.

까치와 부동산업자가 나가면 영미 술을 한잔 마시며 교태롭게 몸을 꼰다.

영미 참... 남자들은 이상해요... 담배를 못 끊어.

영미, 밥상 아래로 다리를 뻗고 비스듬히 앉는다.

물영감, 자기 옆으로 나온 영미의 발을 슬쩍 바라본다.

영미 아, 심심해.

물영감, 스타킹을 신은 영미의 발을 보며 술을 한잔 들이킨다.

영미 저기요.

물영감, 살짝 놀라 영미 쪽을 본다.

영미, 술에 취해 발그레해진 얼굴로 물영감을 빤히 쳐다본다.

영미 뭐... 재미있는 거 없어요?

물영감, 눈이 번쩍.

53. 수술 몽타주 / 서천관광호텔 스위트룸. 밤.

포커 테이블이 마련된 관광호텔의 스위트 룸.

문을 열고 의기양양하게 들어서는 물영감.

애꾸(E) 그럼 자연스럽게 카드판이 마련될 거야.

물영감의 뒤로 험악한 남자 (이하 선수)가 따라 들어온다.

애꾸(E) 물영감이 남자 하나 데려와서 판에 끼울 거고.

물영감 까치와 영미에게 선수를 소개한다. 선수의 얼굴은 사뭇 험악하다.

54. 수술 몽타주 / 애꾸 아지트. 밤.

까치 타짜?

애꾸 (웃으며) 타짜는 무슨... 시골에서나 통하는 어스레기야. (까치의 어깨를 살짝 주무르며) 너랑은 급이 다르지.

까치, 괜히 으쓱해진다.

멤버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방법을 설명하는 애꾸.

애꾸 (계속 이동하며) 세 번쯤 판을 만들어서 한 일억쯤 잘라.

권원장 그거가지고 되겠어? 그래도 지방 유진데.

애꾸 말했잖아요. 졸부라고. 그 정도만 굶어줘도 아주 몸이 달아서 절절 맬거예요.

55. 수술 몽타주 / 서천관광호텔 스위트룸. 밤.

까치 (놀리듯) 아이고, 이거... 스트레이트로 먹어도 되는지 몰라.
영미 끼약!

침을 slurp하는 까치.

까치의 볼에 뽀뽀하는 영미.

물영감이 섭외한 선수는 아까와는 사뭇 다르게 순진한 표정.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쭈뼛거리고 있다.

물영감의 얼굴이 완전히 붉그락푸르락.

56. 수술 몽타주 / 부동산. 낮.

부동산 업자를 따로 만나는 까치와 영미.

애꾸(E) 그리고 나서 부동산 업자를 따로 만나라고. 만나서 영감 땅이 아무래도 가치가 없으니까 영감 빼고 다른 땅을 소개해 달라고 해.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게...

까치 아, 그리고 그분... (꺄꺄 웃으며) 도박에는 아주 켜뽕이더라고.

믹스커피를 마시며 호탕하게 웃는 까치와 따라 웃는 영미.

까치 (호탕하게 웃으며) 아주... 호구야, 호오구! 허허허.

57. 수술 몽타주 / 로터리클럽 회장실. 밤.

바닥에 머리를 박고 킁킁대는 선수를 넘어 화면 트랙인 하면.

물영감에게 조용히 귓속말을 하고 있는 부동산 업자.

애꾸(E) 그럼 자연스럽게 영감 귀에 들어갈거고...

물영감, 화가 치밀어 손까지 부들부들 떨고 있다.
어금니를 짹 깨물고 눈이 충혈되는 물영감.

58. 수술 몽타주 / 애꾸 아지르. 밤.

애꾸, 멤버들 사이에서 말을 하다 자연스럽게 일출과 권원장 사이에 멈춰선다.

애꾸 그 때, 바로. 권원장과 일출이 등장.
권원장 곳.
영미 (손들며) 질문.
애꾸 해.
영미 대장은 뭐해? 우리는 다 일하는데?
까치 그러게?

애꾸, 씨익 웃는다.

애꾸 (웃으며) 나?

59. 조기축구 운동장. 낮.

음악 멈추고 한적한 시골 운동장.
조기축구회원들 틈에서 열심히 공을 쫓아다니는 애꾸.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도 뛰어다닌다. 공을 제법 잘 찬다. 행복한 표정.

물영감(E) 복수유. 복수...

처음 나온 물영감의 목소리는 너무 가늘다. 모기 같다.

화면 애꾸에게서 멀어지면.
운동복 차림의 물영감이 스탠드에 볼품없이 앉아 운동장을 바라보고 있다.
권원장과 일출이 물영감 옆에 앉아 이야기를 듣고 있다.

물영감 그깟 돈 일억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지. 내가 원하는 건 뭣이냐, 아주 그냥... 순수한 복수. 그거란 말유.

권원장과 일출,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인다.

물영감 아니, 이 썩을 놈들이 카드에서 돈 좀 땀다고 그래, 뭐라는 줄 알어유? 물
 이라는규. 물
권원장 아... 물...
물영감 내가 그래도 이, 서천에서 로타리클럽 회장이유. 그 호랑말코같은 서울 새
 끼들이 그 지랄을 허고 설치고 다니니까 내가 이 서천바닥에서 뭐가 되
 유? 안그류?
권원장 그렇죠.

그 때, 애꾸가 공을 받아 슛을 쏘면 골인이 된다.

물영감 하이구~ 좋다. 짱짱하다.
권원장 강슛이네요.
물영감 (일출을 못미더운 듯 바라보며) 나사장이 그러든디, 참말로 기술이 그렇게
 좋대유?
권원장 그럼요. 저희는 또 팀으로 움직이니까 실수가 없어요.
물영감 (일출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믿어두 되유?
일출 (정색하며) 갈까요, 그냥?

일출을 보며 잠시 생각하는 물영감.

물영감 (혀를 차며 짧은 한숨) 아뉴. 나는 뭐... 나사장이 믿으니께.

애꾸가 물영감을 향해 손을 흔든다.

물영감 같이 손을 흔들어준다.

물영감 나헌티는... 아들이나 진배없슈.
권원장 아, 네...
물영감 하... 암튼간에. 이 연놈들... 꼭 좀 잡아줘유.

60. 관공호텔 스위트 룸. 낮.

스위트룸의 문을 열고 들어서는 까치와 영미.

호텔방에 들어서면 기다리고 있던 물영감이 일출과 권원장을 소개한다.

물영감 여기는 내 처조카. 서천 놀러왔다가 카드가 치고 싶다는 거 아녀. 워프케?

괜찮지?

까치 좋죠. 저희야. 판 커지고. (서둘러 테이블로 이동하며) 개강합니다.

영미가 물영감을 지나치며 일출과 권원장에게 웅크한다.

다시 신나는 음악.

6. 물영감의 승리 몽타주 / 관공호텔 스위트룸. 낮/밤.

재빠르게 카드들이 돌려지고. 각자가 패를 쥔고 있을 때.

영미와 까치, 권원장이 저마다 카드를 잡은 손가락으로 일출에게 칸을 준다.

칸을 읽은 일출이 물고 있던 담배를 재떨이 위에 비스듬히 놓는다.

재떨이를 본 물영감.

물영감(E) 죽어?

일출, 곳곳하게 카드만 본다.

물영감(E) 아툰디?

일출, 미동도 없다.

물영감(E) 아, 고수는 하이 투페어로 승부를 보는 법인다...?

일출, 물영감이 망설이자 슬쩍 눈빛을 보낸다.

까치 아, 거 빨리 좀 하쇼. 뭐, 수능 봐?

물영감 (눈을 질끈 감고 카드를 덮으며) 에이 몰러! 죽어. 죽어빠러!

영미 (카드를 까며 아쉬워한다) 애개... 카집 잡고 요거 먹어?

물영감, 놀란 얼굴로 일출을 본다.

물영감(E) 뭐여? 이 새끼.

일출, 다시 담배를 들어 한모금 뺏다.

- 음악 더욱 고조되며 물영감이 일출과 권원장의 도움을 받아 연전연승하는 모습이 몽타주 되어 보여진다.

까치 ... 받고 삼천. 쫓리시는 분들은 뉘지시고.

모두 놀라서 까치를 바라본다.

권원장 (패를 덮으며) 아이고 발을 잘못 담겼네.
일출 죽어요.

일출, 카드를 덮으며 이번에는 담배를 다른 쪽으로 놓는다.
물영감, 카드를 들고 어찌해야할지 몰라 우물쭈물 한다.

물영감 ... 에이, 몰러. (돈다발 올리며) 따당!
까치 ... 씨발...

까치, 인상을 찌푸리며 카드를 꺾는다.
싱글빙글한 물영감.

(JUMP)
일출의 재떨이.
눈치 보는 물영감.

까치 카투.
물영감 아투.

(JUMP)
일출의 재떨이.

영미 스트레이트.
물영감 플러신디?

아쉬워하는 까치.

(JUMP)

까치 삼집.
물영감 아이구... 워찌? 칠집.

아쉬워하는 영미와 이제는 초조한 얼굴의 까치.

(JUMP)
물영감, 싱글빙글해서 돈다발을 쓸어담는다.

물영감 (키득거리며) 원 농의 뻐, 뽕카를... 그렇게 살벌하게 친디야. 살살 쳐, 살살.. 크크...

까치 (담배 물며) 니미... 죽을 듯 말 듯 죽지를 앓어. 우리 할머니 마냥...

물영감 아이구. 너무 먹었나? 똥이 다 마렵네. 크크. 나 잠깐 다녀올팅게. 돌려, 돌려.

물영감, 일출에게 윙크하고 화장실로 사라진다.

나머지 모두는 돈 잃어주는 것도 힘들다. 서로 스트레칭을 도와주는 일당들.
그 때, 갑자기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는 물영감.
깜짝 놀라 다시 정색하고 카드를 집는 모두들.

물영감 (흔жат말) 휴지가 없어. 씨벌...

신나는 음악이 찾아들면.

62. 바닷가 호텔. 밤.

insert - 고요한 밤바다. 밤낚시를 하고 있는 애꾸.

소주잔을 부딪히는 물영감, 일출, 권원장.
밖으로 보이는 해변에서 애꾸는 낚시대를 드리우고 있다.

물영감 아, 고놈들 고거 낚짝 봤슈? 완전히 잿빛이 되어갓구는.... 카~ 내가 여한이 없슈. 여한이.

권원장 다행입니다. 어르신 화가 좀 풀리셨다니.

물영감 (일출에게) 와~ 거 신기허대. 워찌케 그렇게 척 보은 안대유? 녀의 손에 든 패를? 신박허. 아주.

일출 일인데요 뭐.

물영감, 기분 좋게 현금 뭉치를 나눠준다.

물영감 요것은 공사비 천 허고... 허이구, 일주일치 공사비가 너무 적어서 워찌...

권원장 (웃으며) 아닙니다. 덕분에 손맛 한번 찐하게 봤습니다.

물영감 (망설이다) 아이, 몰러. 요것은 나가 주는 보너스여.

권원장 아이고, 괜찮은데... 뭐 이런 걸...

물영감 서해 왔으니께 술맛도 좀 보시고 서천 아가씨들 불기짝도 좀 만져주고 하.

권원장 (받으며) 아이고, 감사합니다.

화기애애한 술자리. 갑자기 화면 멈춘다.

일출(E) 아니, 잠깐.

63. 애꾸 아지르. 밤.

놀란 일출의 얼굴.

앞 수술몽타주의 한 장면이다.

일출 그거 벌려고 서천까지 가요?
영미 그러게. 이걸 아니지. 우리는 입이 다섯칸데.
까치 니미, 공사비도 안 빠지겠네.
애꾸 (웃으며) 여기까지가 바로... 미끼.

64. 해변바닷가. 밤.

고요한 밤바다.

낚시대를 드리운 애꾸가 전화기를 들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건다.

애꾸 까치야... 미끼 물었다.

화면이 전화를 끊은 애꾸를 지나 뒷편의 횃집을 향해 천천히 들어가면.

화기애애한 술집에서 물영감에게 전화가 걸려온다.

전화를 받은 물영감이 화들짝 놀라서 일출과 권원장을 바라본다.

애꾸(E) 20억짜리 판을 만들거야.

65. 애꾸 아지르. 밤.

깜짝 놀란 멤버들.

까치 (자세 고쳐 잡으며) 이, 이, 이십...억?

일출, 들고 있던 트럼프 카드를 떨어뜨린다.

영미 아~ 듣기 좋은 소리다.

권원장 (흐뭇하게 웃으며) 갑시다. 쿨.

애꾸 자, 준비합시다. 부자될 준비.

음악, 신나게 변주되며 몽타주 시퀀스로 이어진다.

66. 일출의 성장 몽타주 / 애꾸 아지트. 낮/밤.

- 애꾸가 서천의 지도를 테이블에 짝 펼치며 몽타주가 시작된다.
칠판에는 물영감과 그의 가족, 주변인물, 거느린 조직들의 사진이 붙여져 있다.
디테일한 계획을 설명하는 애꾸.
- 체력훈련.
운동장을 뛰는 일출과 동료들.
- 까치의 셔플 강의.
일출이 까치와 마주 앉아 까치에게서 셔플을 배운다.
까치가 여러 가지 손기술들을 가르쳐주고 일출은 따라해 보지만 잘 안 된다.
까치가 비웃으며 놀린다.
- 권원장의 게임 종목 강의.
칠판에 세븐오디, 바둑이, 훌덤, 파이프카드스터드, 강시리즈 등의 룰과 각 패에 따른 승리 확률, 그에 따른 베팅 기술들로 빼곡 하다.
일출은 열심히 필기를 하며 강의를 듣는다.
- 체력훈련.
금새 지친 권원장은 달리기를 포기하고 일출, 까치, 영미가 경쟁하듯 달린다.
- 영미의 탄 올리는 법 강의.
영미가 일출에게 탄을 주고받는 연습을 시킨다.
권원장이 기침을 하며 시선을 끄는 척을 하면 일출이 뒷춤의 카드를 영미에게 전달한다.
일출이 서둘러 카드를 떨어뜨리고 자연스럽게 영미와 서로의 뺨이 닿으며 야릇한 분위기가 만들어 진다.

까치가 일출을 타박하며 자기가 해보겠다고 나선다.

영미에게 노골적인 스킨십을 시도하는 까치.

영미가 까치의 뺨을 때리고 나가버린다.

갈갈거리는 멤버들과 무안한 까치.

- 애꾸의 칸 강의.

애꾸가 칸(사인)의 종류들을 설명하고 있다.

카드, 담배, 재떨이, 술잔, 손모양, 소리, 표정 등을 이용하는 법을 알려준다.

일출과 영미와 까치가 칸을 익히며 따라하는 모습이 우스꽝스럽다.

- 까치의 셔플 강의.

까치와 마주 앉은 일출.

일출의 셔플은 앞에서보다는 나아졌지만 아직도 좀 서툴다.

셔플을 하던 카드가 튀면서 흩어지자 일출이 짜증을 낸다.

- 일출의 복습.

혼자서 카드를 셔플하는 일출. 제법 늘었다.

고도로 집중하는 일출의 모습.

- 까치의 탄 강의.

까치가 탄의 종류와 순서를 빼곡이 적어 알려준다.

일출은 열심히 받아 적는다.

따분한 듯 영미가 잠든 척하며 슬쩍 일출의 어깨에 기대다.

열받은 까치가 분필을 날려 영미의 이마를 맞춘다.

짜증내는 영미와 갈갈대는 멤버들.

- 체력 훈련.

새벽의 운동장을 홀로 달리는 일출.

- 일출의 셔플 복습.

늦은 밤, 홀로 셔플을 연습하는 일출.

일출의 셔플은 이제 거의 완성되어 자연스럽게 셋팅을 만들 수 있어졌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애꾸.

우아한 셔플을 마치고 원하는 카드를 까보는 일출. 소리를 지른다.

애꾸 (다가오며) 제법 가다가 나온다?

일출 (그제야 애꾸를 발견하고) 봤어요? 죽이죠?

애꾸 오바하지 마. 실전에선 쓸 수도 없어.

일출 에? 왜요?

애꾸 (자리에 앉으며) 그렇게 셔플했다가는 손모가지가 날아가지. 카드는 화투

랑 달라. 크기도 크고 무게도 가벼워서 손장난으로 눈을 속이기 어렵다.
호구는 호구지, 바보가 아니야.

일출 그럼? 연습은 왜 시킨 거예요?

애꾸, 웃으며 카드를 들고 셔플을 한다.

애꾸 일종의 기본자세랄까? 끊임없이 반복해서 연습을 하는 동안 집중을 하고
마음을 가다듬는 거지. 노름판에서는 한순간이라도 빠끗하면 목숨이 날아
간다. 집중하고 집중해서... 극단적으로 단순해지는 거지.

애꾸, 카드를 네 장 차례대로 오픈하면 모두 에이스다.

일출 어? 어떻게 했어요?

애꾸 알 필요 없어. 아까 말했잖아. 실전에서는 아무 쓸 모 없는 거라고.

일출 그럼, 호구 돈은 뭐로 따 먹습니까?

애꾸 믿음이지, 믿음. 이건 절대로 사기가 아니라는 믿음.

일출 믿음...

애꾸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 밀작업을 하는 동안 절대적인 믿음을 호구에게
줘야한다. 그러면 호구는 집문서를 날리고도 운이 없었다고 생각하지 사기
당했다고는 절대 생각 못 해. 그리고 항상 명심해야할 것.

일출 ...?

애꾸 호구를 제외한 모두는 항상 내 편이어야 한다.

일출 아...

애꾸, 패를 다시 모아 일출에게 건네준다.

애꾸 (일어서며) 연습해.

일출 근데...

애꾸, 돌아본다.

일출 (셔플하며) 우리 아버지도 형만큼 그렇게 했어요? 셔플?

애꾸 (피식 웃으며) 다 니 아버지한테 배운 거야. 아직 반도 못 따라 하지만.

일출 (셔플하며 피식 웃으며) 대단하긴 했나보네.

애꾸 ...

일출 그냥... 궁금해졌어요. 처음으로.

애꾸, 쓸쓸하게 웃으며 퇴장한다.

일출, 열심히 셔플 연습에 매진한다.

몽타주의 음악이 또다시 변주되고.

67. 관공호텔 복도. 낮.

돈으로 가득찬 가방이 옮겨지고 있다.

가방을 들고 있는 것은 물영감. 당당한 걸음걸이.

물영감의 뒤로 일출과 권원장이 따르고 그 뒤로는 조기축구회 복장을 한 덩치들이 보디가드처럼 따른다. 마치 한 무리의 갱들 같다.

68. 관공호텔 VIP룸. 낮.

호기롭게 테이블 위에 돈가방을 내려놓는 물영감.

물영감 젊은 양반이 뱃보가 크네이. 자, 여기 오억이여.

까치, 역시 돈가방을 톡하고 테이블 위에 올려 놓는다.

까치 제가 지고는 못 살아서요.

물영감 이걸 뭘째? 미룬디?

영미는 옆에서 괜히 불안한 연기를 한다.

영미 자기야...

까치 (무시하고) 판이 크니까 2:2로 가시죠. 머릿수로 먹을 수 있으니까.

물영감 거, 말 잘한다. 오브코스여.

(JUMP)

물영감, 영미, 까치, 일출이 앉아서 세븐오디를 친다.

권원장과 축구단 덩치들은 관전. 긴장감이 감돈다.

패를 쏘는 물영감. 개패다.

일출 (돈다발을 얹으며) 천.

일출 담배를 재떨이 바깥쪽으로 둔다.

물영감 (약간 고민) 에이 몰러. 레이즈여. 이천.

영미 (패 덮으며) 죽어요.
까치 (고민) ...씨발, 가자.. 콜.
일출 (기다렸다는 듯) 레이즈, 받고... 일 억 더.

일출, 담배를 한모금 빨고 이번에는 재떨이의 가운데에 둔다.

물영감 (약간 당황) 코, 콜...

까치, 장고 끝에 인상쓰며 패를 덮는다,

까치 (패를 덮으며) ... 씨발.

살아남은 사람은 물영감과 일출 뿐.

마지막 패가 돌고. 물영감은 개패. 그러나 일출의 재떨이를 보면 담배는 여전히 바깥쪽.

물영감 (아리까리) 처... 천만...원만 가볼까?
일출 (기다렸다는 듯 패를 덮으며) 다운.

까치, 테이블을 쿵 내리치며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일출, 까치를 보고 놀리듯 어깨를 으쓱.

일출 (까치에게) 기다리는 게 안 들어왔어.

물영감, 싸움도 하지 않고 먹었다.

기분이 찌지는 물영감. 돈을 쓸어간다.

물영감 (싱글벙글 돈을 챙기며) 왜? 뱃보어디간겨? 뱃보?

까치가, 손까지 부들부들 떨며 분해한다.

영미가, 침울하고 불안한 표정으로 셔플을 한다.

물영감 뭐? 시골이라 공기가 좋아? 달콤혀? 서천 포카맛은 워떠냐? 달콤혀냐?

참고 있던 까치가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소리를 지른다.

까치 씨발, 아가리에 좇대가리 박아버리기 전에.. 거, 입 좀 다무쇼!!

깜짝 놀란 권원장. 곁에 앉아 있던 덩치들이 자리에서 일어선다.

덩치 이 상노무 새끼야. 서천 앞바다에 고기밥 한번 되볼터?
권원장 젊은 친구. 거, 말이 너무 심해.

영미 (놀라는 척하며) 자기야... 왜, 왜그래? 나 무섭잖아...

그 순간, 테이블 아래에서는 일출의 발이 영미의 허벅지 위에 올라가 있다.

영미, 재빨리 일출의 바짓단에서 탄을 받아 카드를 바꿔치기 해 테이블 위에 올린다.

물영감 (웃으며) 에이~ 아녀. 화날 수 있는겨. 괜찮여. 괜찮여. (영미에게) 뭐다는
가? 돌려, 돌려.

영미, 불안한 얼굴로 일출에게 패를 내민다.

영미 기, 기리... 하실 거예요?
일출 기리 좋쥬. 기리기리...

일출, 패를 받아들여 기리하려고 할 때.

까치 (민망한 듯 담배에 불을 붙이며) 거.. 패 좀 잘 뜨쇼. 벌써 몇 판째야...
일출 (빙긔 웃으며) 그거 알아? 입이 걸면 패가 안붙어.

물영감이 일출의 말에 크게 웃는다.

일출, 기리를 하는데, 능숙하게 제트기리다. 하나마나.

다시 영미에게 패를 돌려주는 일출.

영미, 비장한 얼굴로 패를 받아 돌린다.

물영감, 6구에 카플러시 메이드.

물영감 (조심스럽게) 한... 천만... 가보까?
영미 콜.
까치 천 받고 이천 더.
일출 콜.
물영감 콜.

히든카드가 돌고.

고민에 빠진 물영감.

까치 카원 보스. 아, 거 좀... 빨리 좀 하슈. 수학여행 왔어?

물영감, 당황하며 일출의 재떨이를 유심히 본다.

일출, 담배를 똑바로 앞을 향해 놓는다.

물영감 땡.
영미 아, 몰라. 히든까지만 봅시다. 콜.

까치 ... 일 억.

깜짝놀라는 일동.

일출 죽어.

일출, 패 덮으며 자연스럽게 담배를 한 모금 빨고 죽으라는 신호를 보낸다.
그러나 물영감 회심의 미소를 짓는다.

물영감 ... 전부 넣어.

일출, 놀라서 물영감 바라본다.
바보같은 물영감은 일출을 보며 눈을 찡긋한다.

영미 하... (패를 덮으며) 전 빠질게요. (사람들 보며) 심장이 약해서.
까치 (고민하다 담배를 비벼 끄며) ... 받아요. 쿨.

일출, 원망스런 얼굴로 물영감을 본다.

물영감 (기다렸다는 듯) 받아? 받아? ㅋㅋㅋㅋ... 키야~ 받아부렸네. 받아부렸어!!
안 받으면 워프카나 열매나 댜 줄인줄 알아? 손에 땀봐, 이거. ㅋㅋㅋㅋ.

일동, 주목.

물영감 (패를 하나하나 까며) 마지막에 꽃혔네. 2,3,5,6에서 빨건 새가 한마리 날
아와 꽃혀부렸어. 줄도 맞고, 꽃도 맞아부렸네.

구경하던 덩치, 깜짝 놀라 벌떡 일어선다.

덩치 스, 스... 스티폴이유?

모두들, 할 말이 없다.

물영감 왜? 스티폴 참보는거? ㅋㅋㅋ...

물영감, 돈을 쓸어가려는데...

까치 저도 마지막에 꽃혔습니다.
물영감 (놀라서) 뭐? 뭣이?

까치, 패를 하나씩 천천히 깎는다.

까치 (패를 까며) 저도 기다렸거든요. 스티플. 8,9,자,마에 장이 날아와 꽃혔습니다.

물영감보다 높은 스페이드 Q 스티플.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는 물영감.

까치 (늘어선 패를 보여주며) 줄도 맞고... 꽃도 맞고.
영미 끼약!!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는 물영감.

69. 관광호텔 앞. 낮.

호텔 앞에서 볼품 없는 모습으로 꾸그리고 앉아 담배를 피워대는 물영감. 낯간 얼굴이다.
권원장이 다가와 같이 꾸그리고 앉는다.
그 곁에 뽀뽀하게 일출과 덩치가 서 있다.

권원장 왜 싸인대로 안 하십니까? 체크만 하라면 체크만 하셔야죠.
물영감 (무안해서) 아니... 저 이가 암만 기술자라도 내 패를 워즈케 알겠는가? 스티플인데... 확 빼껴묵어볼라 그랬지...
권원장 이렇게 하실 거면 저희는 빠집니다. 자꾸 이렇게 판이 커지면 저희도 얼굴 팔려서 앞으로 이 일 못해요.
물영감 아, 미안혀. 미안허니까... 이번에 한번만 더 해보자고. 내 말 잘 듣고 하란대로 할티니까. 응?
권원장 ...

그 때, 호텔 입구로 들어오는 검은 세단 하나.

물영감 (세단을 발견하고) 아따, 실탄 와부렀네이.

물영감, 차 쪽으로 걸어가면 권원장과 덩치가 어쩔 수 없이 물영감을 따라간다.
일출은 그저 서서 바라본다.
그런데... 차에 내려 가방을 들고 오는 여자는... 마돈나다!!
놀라는 일출.

마돈나 (돈가방을 건네며) 또 카드예요?
물영감 (돈가방 받으며) 이, 이. 크크. 호구 하나 제대로 물어 부렸어.

마돈나 이거... 잃으면 안 되는 돈인데.
물영감 (정색) 아! 나여. 나! 김회장이여! 아무 걱정 말고 온김에 한 매칠 온천이
 나 함서 놓고 있으라고. 이자는 내 두둑이 챙겨 줄티니까.

물영감이 말하는 동안 일출은 마돈나에게서 시선을 뗄 수 없다.
일출의 표정이 묘하다.
물영감, 일출과 권원장을 소개한다.

물영감 여그가 바로 서울 서 온... (컷속말) 타짜들이여.

권원장이 인사하고 일출도 어색하게 인사한다.
일출을 보는 마돈나의 눈빛은 읽을 수가 없다.
일출, 무섭게 마돈나를 노려본다.

마돈나 (일출 보며) 아... (빙긔) 타짜?

구뻑 인사하는 권원장.
그러나 일출은 마돈나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다.

물영감 (덩치에게) 아가, 뭐더냐? 얼른 뛰어가서 스위트 룸 하나 잡아오니라.
덩치 아, 네.

덩치가 뛰어가자 돈가방을 든 물영감이 마돈나를 안내한다.

물영감 들어가, 들어가. 여기 물 좋아. 아주 그냥, 피부가 매끄러워지는게...

마돈나와 물영감이 호텔 안으로 사라지고 일출은 그 뒷모습을 노려본다.
권원장 따라 들어가려다 말고 멍하게 서 있는 일출을 발견한다.

권원장 왜? 아는 여자야?
일출 아, 아뇨... 그냥...

권원장, 무리를 따라 안으로 들어가고 일출은 멍하게 그들의 뒷모습을 보고 서 있다.

70. 관공호텔 VIP룸 . 낮.

패가 돌아가고 판이 이어지지만 일출에게는 마치 진공의 시간 같다.
도박판이 진행되는 동안 모든 소리가 제거된 채 일출의 머리속엔 마돈나의 이미지들이 파편

처럼 뛰어다닌다.

패를 쪼는 물영감.

일출에게 강을 전달하는 까치.

멍한 일출의 얼굴

Insert - 살짝 웃는 마돈나의 입가.

다시 강을 주는 까치.

그제서야 물영감에게 강을 전달하는 일출.

다시 패를 보는 일출.

Insert - 셔플을 하며 예쁘게 춤추는 마돈나의 손과 손목.

돈을 따서 환호하는 물영감.

속상해하는 연기를 하는 까치와 영미.

불안하게 바라보는 권원장.

무표정의 일출.

Insert - 마돈나의 예쁜 목선. 컷볼 뒤로 흘러내리는 머릿결.

돈을 따서 기뻐하는 덩치와 뭐라고 뭐라고 입을 털어가며 패를 돌리는 물영감.

찌푸린 인상의 일출.

Insert - 똑바로 일출을 바라보는 마돈나의 눈. 검은 눈동자.

환호하는 물영감.

눈을 질끈 감아버리는 일출.

일출(E) 씨발.

암전.

4. 마돈나

기. 롱썸/롱 안. 밤.

거나하게 술에 취해 노래를 부르는 권원장. 곡명은 나훈아 ‘부모’

일출은 물영감의 옆에 앉아서 술을 마신다.

물영감은 이미 술이 많이 올랐다.

물영감 아, 스티폴이 날아와서 가슴팍에 딱 꽂히는데... 아주 눈까리가 헛까닥 돌아가버리더라니까. ㅋㅋ... 그래도 동상들 때문에 참말로 죽다가 살은거 아녀, 그지, 이? ㅋㅋ.. 오늘 적어도 반은 회복했응게. 내일부터는 아주 조저 불자고.

일출 ...

물영감이 잔을 들어 내밀면 일출이 어쩔 수 없이 따라서 술을 마신다.

일출 (망설이다) 저, 오늘... 돈 들고 오신분은...?

물영감 누구? 아, 아... ㅋㅋ.. 미인이제? (새끼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내 이거. 애인.

일출 ...

물영감 (낄낄대고 웃으며) 워매, 믿어? 타짜가 뭐 그리 순진하디야. ㅋㅋ... 아, 내 애인이면 얼마나 좋아. 쌍년, 워지건히 비싸게 굴어야지.

일출 그럼...?

물영감, 갑자기 옆에 있던 아가씨들에게 화를 낸다.

물영감 아야, 수진아. 너들은 뭐더는겨? 일 안혀? 우리 동상 술잔 빈 거 안 보이나?

그제야 아가씨들이 술잔에 술을 따르고 일출이 마지못해 술을 받는다.

물영감 노래도 허고, 춤도 추고 좀 하. 무노동 무임금이여. 콕, 돈 안줘볼랑게.

아가씨들 똥뺨은 얼굴로 춤추러 나간다.

나가는 아가씨들 엉덩이를 찰싹 때리고 일출 곁에 가까이 앉는 물영감.

물영감 (일출 곁에 바짝 붙어서) 서울서 내려온 과부여, 과부.

일출 ...

물영감 짬혀. 들어보니까 곡절이 많았더라고. 남자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고생을 그냥.. 술창이 헛어. 남편 죽고, 전재산을 정리해서 여그 고향에 내려와서 정착하고 싶대니까... 내가 워쩌? 또 내가... 마음이 안됐고, 동상갈고, 또... 이쁘고. ㅋㅋ.

일출 ... (말 없이 술을 들이킨다)

물영감 찌어기, 대천에 건물 하나 올라가는 것이 있시아. 뭐, 한 50억짜리 찌간한 거인디... 그 건물에 돈을 반씩 박기로 했다, 이 말이어. 나는 가진 게 죄

건물뿐인게, 그바게 현찰 유통을 좀 했지. 아, 돈이야 따서 값으면 되니까.
안 그러? ㅋㅋ

일출 ... 잃으면요?

물영감, 일출을 보다가 술을 한잔 짹 들이킨다.

물영감 동상. 내가 워즈케 부자가 된줄 알어?

일출 ...

물영감 돈이란 건 말여, 원래가 임자가 없는겨. 따는 놈이 기냥, 전부... 저기 해버리는 거란 말여. 나는 그래서 도박이 좋아. 임자 없는 돈 먹기. 따지고 보면 이 사업이라는 것도 말여, 도박이랑 똑~같은 거.

일출 ...?

물영감 어차피 다 내 돈이 될 거란 말여. (더 가까이서 귓속말하듯) 그 건물... 안 올라가네. 백날 기다려도 안 올라갈 것이여.

일출, 물영감을 본다.

물영감, 탐욕스런 눈빛으로 킬킬대며 웃는다.

일출 ...

물영감 자네는 도박으루 타짜, 나는 사업으루 타짜. 잃을 일이 없잖여? 타짜가 둘이나 있다.

일출 ...

킬킬대며 시원하게 술을 들이키는 물영감.

72. 룬싸롱 앞. 밤.

밖은 주룩주룩 비가 내리고 있다.

일출은 룬싸롱 입구에서 비를 피하며 담배를 피우고 있다. 생각에 잠긴 듯.

인사불성이 된 물영감을 업고 나오는 덩치. 뒤로 만취한 권원장이 비틀비틀 따라 나온다.

권원장 (허꼬부라진 소리로) 아, 형님... 노래 더... 내가 더 해야 돼~ 씨발... 노래... 존나 잘하는데... 형님... 왜 취한거여~

덩치가 물영감을 차에 싣고 운전석에 탄다.

권원장 (차 문을 두드리며) 형님. 나... 진짜.. 존나 사랑해. 사랑한다. 형님~

물영감을 싣고 서둘러 떠나는 덩치의 차.

덩치의 차가 멀어지면 완전히 풀린 권원장의 다리와 두 눈이 똑바로 돌아온다.

권원장, 급하게 전화를 걸며 일출 쪽으로 걸어온다. 전화 상대는 애꾸인 듯.

권원장 (침착하게) 응. 아주 잔뜩 마셨어. 응. 응. 지금 보냈고... 내일은 저녁부터 판이 시작 될 거야. 응.

여전히 생각에 잠긴 일출.

무언가 결심이 선 듯 갑자기 담배를 던져 끄며 빗속으로 걸어간다.

전화를 걸다가 그런 일출을 발견하는 권원장.

권원장 야, 일출아. 어디가니?

일출, 말없이 빗속으로 걸어간다.

권원장 (전화기에 대고) 응, 아, 아니야. 응. 응...

73. 모퉁이까지 방. 방.

전화를 끊는 애꾸. 불길한 얼굴.

영미와 까치는 뒤에서 떡볶이를 먹으며 애꾸를 유심히 보고 있다.

영미 왜요? 무슨 일 있어?

애꾸 아니, 예정대로... 내일 저녁, 마지막 판이다.

까치 씨벌, 누구는 좋겠다. 서천까지 내려와서 아가씨 끼고 양주도 먹고. (젓가락 내팽개치며) 거, 너무 한 거 아뇨. 진짜? 떡볶이가 뭐예요? 떡볶이가.

영미 떡볶이가 어때서? 이거 유명한 집에서 사온 거야. 인터넷 찾아봐.

애꾸, 빙긋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선다.

애꾸 긴장해. 내일만 지나면 지겨울 때까지 놀게 해 줄 테니까. 준비 잘 하자.

애꾸, 방 밖을 나간다.

영미 어? 이거 안 먹어요? 많이 사왔는데...

애꾸는 그대로 방을 나간다.

까치 ... 영미야.
 영미 (떡볶이를 우물대며) 왜?
 까치 내일이 디데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막... 긴장되고... 그러네.
 영미 그래서?
 까치 내가 부탁 하나만 해도 되냐?
 영미 뭐?
 까치 ... 함 주라.

영미, 품하고 먹고 있던 떡볶이가 목에 걸린다.

까치 (무릎을 꿇으며) 내가 진짜 빈다. 한 번만 주라.
 영미 (물을 들이키고 짜증내며) 뭘 줘, 봉신아! 아... 양아치 같은 새끼. 드러워.

영미, 불쾌해 하며 방을 나간다.
 혼자 남은 까치. 처량하다.

까치 ... 씨발, 함 줘!!

74. 택시. 밤.

택시 안. 물에 젖은 일출이 창밖을 본다.
 빗줄기가 세차게 유리창에 부서진다.

75. 스위트 룸 앞. 밤.

땡땡땡. 울리는 벨소리.
 비를 쫓막 맞은 일출이 스위트 룸 앞에 서 있다.
 바짓단에서 물이 똑똑 떨어진다.

잠시 후. 문을 열고 마돈나가 나온다.
 마돈나, 물에 젖은 일출을 보고 깜짝 놀란다.

일출 나... 기억 안나요?
 마돈나 왜 안나겠니?
 일출 그런데 왜 모른척 했어?
 마돈나 ... 넌?

일출 ...
 마돈나 넌 왜 그랬는데?
 일출 ... 그 때... 그 남자는...
 마돈나 죽었어.
 일출 ...
 마돈나 원래 노름꾼들은 결국... 다치거나 죽어.
 일출 나한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마돈나 미안해. 진심이야.
 일출 씨발.
 마돈나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해도 어차피 안 믿을 거잖아.

억지로 화를 참는 듯한 일출의 얼굴.

마돈나 나 다시 시작할거야. 그러려고 내려왔어.
 일출 ...
 마돈나 노름꾼, 도박꾼, 사기꾼... 이제 지겹다. 그런 놈들이랑 더 이상 얹히고 싶지 않아.
 일출 ...
 마돈나 그러니까 너도... 그만 가줄래?
 일출 ... 돈 빼요.
 마돈나 ... ?
 일출 그 영감... 우리가 수술할 겁니다.
 마돈나 (놀라서) ...?
 일출 그러니까 돈 빼. 그리고 다른 데에 투자해요. 그 돈...
 마돈나 ...왜?
 일출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 사기꾼이랑 얹히기 싫다면? 물영감 그 새끼... (말하려다 말고 답답해서) 사람이 왜 이렇게 순진해?
 마돈나 아니. 왜... 그걸 나한테 알려주는 건데?
 일출 ... 몰라. (헛웃음) 미친놈인가봐.

일출을 바라보던 마돈나, 갑자기 일출에게 키스한다.
 일출, 놀라다가... 어느새 같이 키스한다.

76. 스위트 룸. 밤/새벽.

격정적인 키스를 나누며 서로 옷을 벗기는 일출과 마돈나.
 둘의 정사 장면 위로 침대에 누워 대화하는 둘의 목소리가 들린다.

마돈나(E) 이상하지?

침대위로 넘어지는 일출과 마돈나.
성급하게 몸을 포개는 일출.

마돈나(E) 너를 처음 봤을 때... 이렇게 될 거란 걸 알았어.
일출(E) (미소) ... 어떻게? 어떻게 그걸 알았는데?

아파하는 마돈나.
마돈나의 눈을 바라보는 일출. 키스하며 천천히 허리를 움직인다.

마돈나(E) 몰라. 그냥 알았어.
일출(E) ...
마돈나(E) ... 무서웠거든.

일출을 와락 껴안는 마돈나.

(jump)

침대에 누워 서로를 바라보는 둘.
마돈나가 엮으려있는 일출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긴다.

마돈나(E) 아주 어릴 때... 아버지 노름빚 대신 팔려갈 때도 무서웠어.

일출, 문득 마돈나의 손을 잡는데 자해한 흉터가 손목에 선명하게 나 있다.
마돈나 부끄러운 듯 손을 가져가 돌아 눕는다.
마돈나의 등엔 여기저기 상처 자국이 보인다.

마돈나(E) 그 남자에게서 도망치지 못한다는 걸 알았을 때... 그냥 그 남자를 사랑해
 버리기로 했어. 너무 무서웠거든.

일출, 가만히 마돈나의 등을 바라보다 어깨에 키스한다.
마돈나도 고개를 돌려 일출에게 키스한다.

일출(E) 지금도 무서워?
마돈나(E) ... 응. 너무.

키스하며 다시 걱정적으로 사랑을 나누는 둘.
빗줄기가 세차게 유리창을 때린다.

(JUMP)

푸른 기운이 도는 새벽의 유리창. 빗줄기가 그치고 빗방울들이 멎혀있다.

일출(E) 나랑 다시 시작해요.

하얀 가운을 입고 앉아서 담배를 피우는 마돈나.
마돈나는 침대에서 잠이든 일출을 보고 있다.

마돈나(E) 그럴 수 있을까?

곤히 잠이든 일출의 얼굴
텅빈 눈동자로 일출을 바라보는 마돈나.

마돈나(E) 어차피 너도... 노름꾼이잖아.

누군가의 손이 일출의 얼굴을 쓰다듬는다.
일출, 잠결에 설핏 눈을 뜨면... 일출을 노려보고 있는 **물영감!!** 씨익 웃는다.

일출, 당황하여 몸을 움직여 보려 하지만 알몸인 일출의 손과 발은 이미 포박되어 있다.
마돈나는 보이지 않고 조기축구회 복장의 덩치들이 몽둥이를 들고 침대를 둘러싸고 있다.

물영감 너들도 나를 몰이라 생각한겨? 오냐, 이. 내가 오늘 서천 물 맛 한번 제대로 보여줄라니께.

물영감이 일어서면, 덩치들이 들고 있던 몽둥이를 일출을 향해 내려친다.

77. 모텔 영미 방 / 복도. 새벽.

복도. 광광광. 다급하게 영미 방의 문을 두드리는 까치.
영미, 잠결에 속옷 차림으로 문을 열고 나오면 까치가 영미의 입을 막고 방 안으로 밀어 넣는다.
영미, 깜짝 놀라고 까치는 그제서야 막은 입을 놓아준다.

영미 미친새끼, 뭐하는...

까치는 다급하게 손가락을 입에 대며 조용하라는 신호를 한다.
까치, 문틈을 살짝 열어 복도를 확인한다.

Cut To - 복도.

문틈으로 까치의 방 앞에 건달들이 쇠파이프며 야구방망이를 들고 몰려와 있다.

영미 (놀라서) 왜? 왜 그러는데?

까치 영미야... 쫓됐다.

78. 물영감의 차 안 / 주차장. 새벽.

주차장엔 물영감의 검은 세단과 마돈나의 하얀 세단이 앞뒤로 나란히 주차되어 있다.

피떡이 되어 끌려 나온 일출이 물영감의 검은 세단 뒷자리에 앉혀진다. 덩치들이 일출 사이에 끼어 앉는다.

뒤이어 마돈나와 물영감이 유유히 걸어 나온다.

물영감은 한손으론 마돈나의 허리를 감고 있고 다른 손으론 전화기에 대고 뭐라고 뭐라고 지껄이고 있다.

물영감 (전화기에 대고) 뭐여? 방에 없어? 그걸 말이라고 하는겨? 그럼, 찾아가든 거기서 기다리고 있겠냐, 도망을 가도 벌써 갔지, 이 병신버러지거튼 새끼야.

마돈나를 보는 일출. 원망스런 표정.

마돈나는 일출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자신의 하얀 세단으로 향한다. 운전열 말은 덩치 하나가 마돈나의 차 문을 열어준다.

물영감이 여전히 통화하며 자신의 차 보조석의 문을 열고 들어온다.

물영감 없시든 찾아야 될 거 아녀? 아니, 뭘 일을 그렇게 혀? 그 연놈들, 나사장이 이 개씨부렁 새끼들 다 잡아서 서천 앞바다 고기창고로 끌고 와. 아니면 니가 고기밥 되는겨, 알아 들어, 이 씨부렁 새끼야?

물영감, 화가 났는지 핸드폰을 대쉬보드에 내려친다.

물영감, 이번에는 룸미러에 비친 일출에게 욕지기를 내뱉기 시작한다.

물영감 어이, 서천바닥이 우습냐들? 개나 소나 씨벌놈들이 우습게보고... 녀들은 오늘 아주 쫓된겨. 두고봐. 아주 쫓이 될겨. 아주 그냥... (운전석에 대고) 출발 혀.

힘차게 출발하는 물영감의 검은 세단.

마돈나의 하얀 세단도 뒤이어 물영감의 차를 따라 출발한다.

79. 모텔 까지 방. 새벽.

전화를 끊은 덩치. 화가 났다.
다른 덩치들이 방안을 뒤지고 있다.

덩치 아이, 씨벌. 영감탱이... (부하들에게) 방마다 전부 다 싹 뒤져라. 아주 조
저볼자. 이 씨벌 것들.

건달들 우루루 방을 나간다.

80. 모텔 영미 방 / 복도. 새벽.

문틈으로 복도를 보고 있던 까치.

Cut To - 복도.
방 하나 하나를 다 열어보며 확인하는 덩치들이 보인다.
점점 영미의 방 쪽으로 다가오는 덩치들.

까치 씨발...

영미는 가운 같은 것을 걸쳤다.
그 때, 울리는 까치 전화의 벨소리.

Cut To - 복도
문밖의 덩치들이 벨소리가 나는 영미 방쪽을 본다.

문을 잠그고 다급하게 전화를 받는 까치.
전화를 건 사람은 권원장.

권원장(E) 창문! 창문!

까치, 창 문 밖을 내려다보면 권원장이 차를 대고 기다리고 있다.
권원장이 손으로 창 옆쪽을 가리킨다.

권원장(E) 계단! 계단!

창문 밖 베란다에서 1층까지 철제로 된 비상계단이 연결되어 있다.

그 때, 덜컹덜컹 문고리 돌아가는 소리.

놀란 영미의 눈.

까치, 황급히 문쪽을 본다.

Cut To - 복도

건달들, 영미의 방이 잠긴 걸 확인하고 안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눈치 챈다.

야구 방망이로 문고리를 부수기 시작하는 건달들.

쉽게 문고리가 부서지고 문이 열리려고 한다.

까치, 급하게 등으로 문을 막는다.

영미는 창문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다.

영미 (내려가다 말고) 넌?

까치 (문을 막고 포기한 듯) 그냥, 가. 빨리!

영미 같이 가야지!

까치 빨리 가라고! 씨발!

영미, 아래를 보면 아슬아슬하게 계단이 있다.

영미 (울먹이며) ...죽지마라.

문이 거의 박살이 내려한다.

영미, 계단으로 내려가려는데,

까치 야!

영미, 까치를 본다.

까치 살아 돌아가면... 인간적으로 함 주라.

영미 ... 똥신... 뭐래...

피식 웃는 까치.

영미, 계단 아래로 사라지면 문이 거의 박살이 나고 까치는 더 이상 건디기 힘들다.

까치 씨발...

문이 부서지고 쏟아져 들어오는 덩치들.

8. 도로 / 물영감, 애꾸, 마돈나의 차 안. 새벽.

달리던 물영감의 차가 갑자기 멈춰선다.

사람 하나 보이지 않는 한적한 새벽의 사거리.

뒤에 붙어 따라오던 마돈나의 차도 같이 멈춰 선다.

물영감의 차 안.

물영감 (놀라서) 뭐여?

운전건달 시, 신호가...

사거리.

보면, 사거리의 신호등이 빨간불이다.

물영감의 차 안.

물영감, 화가 덜풀렸는지 괜히 운전하는 운전건달의 뒷통수를 마구 때린다.

물영감 아, 너들은 진짜... 나 시험하는겨? 어디까지 화내나 시험하는겨, 이 씨벌
름들아. (뒷통수를 때리며) 이 새벽에 신호를 기다리냐? 그러고도 니가 건
달이여? 이 씨부렁 개잡노무 새끼야. 가. 가. 빨리 안가? 이 새끼들은 씨
벌... 법 다 지킬 거면 씨벌놈아, 판사를 해야지, 좇빨났다고 건달을...

사거리.

다시 출발하는 물영감의 검은 세단.

마돈나의 하얀 세단도 같이 출발한다.

물영감과 마돈나의 차가 나란히 사거리를 지나자 왼쪽 편에서 조용히 좌회전을 해서 따라오
는 SUV 한 대가 보인다.

검은 썬팅이 되어있는 SUV가 마돈나의 하얀 세단을 지나 물영감의 검은 세단 옆에서 바짝
붙어 따라간다.

달리는 SUV 보조석의 유리창이 스르륵 열리면 운전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애꾸다.

애꾸의 차 안.

애꾸, 물영감의 차 안을 살핀다. 뒷좌석 가운데에 피떡이 된 일출이 갇혀 있다.

애꾸, 앞을 보면 곧 해안으로 연결되는 고가도로의 진입로가 나온다.

고가도로의 진입로는 아직 개통되지 않았는지 진입금지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다.

애꾸는 유리창을 울리고 물영감의 차에 조금씩 더 바짝 다가간다.

물영감의 차 안.

운전건달 (옆차가 너무 바짝 붙자 놀라서) 뭐, 뭐여?
물영감 뭐? 왜 또?
운전건달 (턱 끝으로 옆차를 가리키며) 아니, 저기...
물영감 (그제서야 SUV를 발견하고) 뭐여? 이 씹새끼는...

애꾸의 차 안.

애꾸의 눈에 막혀있는 고가 도로의 진입로가 눈에 들어온다.
그대로 핸들을 꺾어버리는 애꾸.

물영감의 차안.

비명을 지르는 건달들과 물영감.
운전건달은 밀리지 않으려고 핸들을 꼭 붙잡고 있지만 옆 차의 힘을 막을 수 없다.

도로.

물영감의 차가 그대로 밀리더니 애꾸의 SUV와 함께 진입로의 바리케이트를 들이받는다.
바리케이트가 힘없이 날아가고 물영감의 차와 애꾸의 차가 비좁은 고가도로에 태워진다.
따라오던 마돈나의 차는 상황을 예측 못하고 그대로 고가 진입로를 지나쳐 버린다.

마돈나의 차 안.

당황한 운전건달과 마돈나.

운전건달 뭐, 뭐여?

마돈나의 시선으로 딱 붙어서 고가를 올라가는 두 대의 승용차가 보인다.

마돈나 세워. 차 세워!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는 운전 건달.

도로.

좁은 가드레일에 굽히며 불꽃을 튀기는 두 대의 자동차가 고가도로를 올라가고 있다.
두 대의 차 너머로 멈춰서 있는 마돈나의 하얀 세단. 쿵 쯤하면 뒷좌석의 열린 유리창 너머로 마돈나가 걱정스럽게 그 모습을 보고 있다.

82. 고가 도로 - 러닝 / 물영감, 애꾸의 차 안. 새벽.

집입로를 다 올라온 올라온 애꾸의 SUV와 물영감의 검은 세단.
고가 도로 위에서 서로 옆 차선을 달리는 두 대의 자동차.
멀리로 보이는 새벽의 바다.

물영감 차 안.
여전히 긴장하고 있는 운전 건달과 화가 머리 끝까지 난 물영감.

물영감 (화가 나서) 이 씨벌새끼가.. (운전 건달에게) 뭣혀? 받아! 받아부러!

고가도로.
이번에는 물영감의 세단이 애꾸의 SUV 앞 모서리를 세게 받아버린다.
균형을 잃고 휘청거리는 애꾸의 SUV. 비틀거리다 가드레일을 들이 받는다. 그 충격으로 보조석의 유리창이 깨져버린다. 긴장한 애꾸의 얼굴.

물영감의 차 안.
물영감, 그제서야 SUV의 운전자가 애꾸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물영감 나사장이 이 씨벌놈. 지발로 찾아왔다 이 말이지? 이... 개 호로새끼!!

애꾸의 차 안.
흔들거리는 차 안에서 핸들을 고쳐잡아 어떻게든 차를 바로하려는 애꾸.

고가도로.
애꾸의 SUV 뒷바퀴에서 휠캡이 떨어져 나가더니 자동차의 흔들거림이 멈춘다.
곧, 애꾸의 SUV와 물영감의 검은 세단 앞으로 공사중인 터널 하나가 나타난다.

애꾸의 차 안.
애꾸, 힘차게 핸들을 꺾는다.

고가도로.
물영감의 차가 애꾸의 SUV에 밀려 가드레일에 닿는다.
가드레일 아래는 까마득한 바다.

물영감의 차 안.
물영감 자신 옆에 낭떠러지가 보이자 잔뜩 겁을 먹었다.
운전당치, 더 속력을 내 애꾸의 SUV와 가드레일 사이를 빠져나가려고 엑셀을 힘껏 밟는다.

애꾸의 차 안.
애꾸도 지지 않고 가속페달을 더 힘껏 밟는다.

고가도로.

무서운 속도로 터널로 향하는 두 대의 자동차.

애꾸의 차 안.

터널이 가까워지자 갑자기 애꾸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기며 핸들을 왼쪽으로 꺾 꺾는다.

고가도로.

애꾸의 SUV가 연기를 내며 그 자리에 멈춰서며 빙글빙글 돌고 물영감의 차는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무섭게 터널쪽으로 향해 간다.

애꾸의 차 안.

이를 악 물고 돌아가는 차를 멈추려고 하는 애꾸.

물영감의 차 안.

비명을 지르며 몸을 주체하지 못하는 물영감과 덩치들.

고가도로.

물영감의 차가 무서운 속도로 터널 안의 벽면 양쪽을 번갈아 돌이 받는다.

애꾸의 차는 빙글빙글 돌다가 터널 입구에서 멈춰선다.

그제서야 멈춰선 물영감의 차. 반파 직전이다.

고요한 터널 입구.

SUV에서 애꾸가 내리면 다리를 전다.

애꾸, 터널 안으로 걸어 들어가 물영감의 차로 다가간다.

터널 안.

피를 흘리며 신음하고 있는 물영감과 덩치들. 사이로 일출이 보인다. 일출은 양옆의 덩치들 덕에 비교적 충격을 덜 받았다.

애꾸, 물영감 차의 뒷좌석 문을 열어보려하지만 구겨진 차문은 열리지 않는다.

팔꿈치를 들어 그대로 유리창을 박살내는 애꾸.

83. 터널 앞. 새벽.

일출을 부촉하며 터널을 빠져나오는 애꾸. 반파된 SUV로 일출을 끌다시피 데려온다.

일출을 힘겹게 보조석에 앉히는 애꾸. 다리를 절며 운전석쪽으로 향한다.

그 때, 소리가 들려 바라보면 마돈나의 하얀 세단이 애꾸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

세단을 바라보는 애꾸.

조용히 멈춘 세단 뒷좌석에서 마돈나가 내린다. 운전 건달도 따라 내린다.

마돈나를 보는 애꾸.
애꾸를 보는 마돈나.

딸깍. 운전석의 문을 여는 애꾸.
마돈나는 애꾸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한다.
애꾸 역시 마돈나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천천히 차에 올라탄다.
상황파악이 안 되는 운전 건달.
애꾸의 SUV가 곧 출발하지만 텅텅거리며 터무니없이 느린 속력이다.
마돈나의 하얀 세단을 걸을 지나치는 반파된 애꾸의 SUV.

운전건달	... 뭐, 뭐쨌데유?
마돈나	(애꾸의 SUV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
운전건달	따, 따라 가유?
마돈나	(여전히 애꾸의 SUV를 보며)... 담배... 하나 줘봐.
운전건달	... 예?
마돈나	(건달을 노려보며) 담배. 달라고.

운전건달, 놀라서 얼른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마돈나에게 준다.
점점 멀어지는 애꾸의 SUV를 바라보는 마돈나.
담배를 든 마돈나의 손이 가늘게 떨린다.
생각에 잠겨 담배연기를 길게 내뿜는 마돈나.

84. 정석기원. 낮.

햇볕이 비스듬하게 들면 먼지의 입자들이 보인다.
벽 한쪽 구석, 간이침대에 누워있던 일출이 힘겹게 눈을 뜬다.
며칠 시간이 흐른 듯 일출의 몸엔 붕대가 감겨져 있고 얼굴은 반창고가 붙어있다.
자세히 보면 애꾸와 권원장, 영미가 뭔가를 진지하게 논의 중이다.
부스스하게 일어나 자리에 앉는 일출.
대화하던 영미, 일출을 발견한다.

영미 ...쨌니?

일출, 찡그리며 영미를 바라보지만 할 말이 없다.

영미 (분노에 차서) 쨌냐고, 이 개새끼야.

일출, 멤버들 중에 까치가 없는 것을 알아챈다.

일출 ... 까치는...?

영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렇그렇 맺혀있다.

애꾸, 권원장에게 눈짓하면 권원장이 영미를 데리고 나가려고 한다.

영미, 권원장의 손을 신경질적으로 뿌리치고 일어서서 먼저 나가버린다.

권원장도 원망스런 얼굴로 일출을 보다 영미를 따라 나간다.

어색한 침묵.

애꾸, 자리에서 일어나 일출에게 다가간다.

애꾸, 허리춤에 차고 있던 호신용 칼을 꺼내 일출이 앉아있는 간이침대에 던진다.

칼을 바라보는 일출.

애꾸, 의자 하나를 끌어와 일출 앞에 앉는다.

애꾸 **손목. 잘라라.**

일출, 칼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85. 양식장. 낮.

착. 하고 뿌려지는 사료.

바글거리는 물고기들이 서로 먹겠다고 바둥거린다.

이름 모를 외딴 섬의 양식장.

인부 하나가 쉬지 않고 삼으로 사료를 퍼나르고.

구석에서는 대형 민찌기에 고기들이 갈려져 나오고 있다.

고물라디오에선 흘러간 옛 노래가 흘러나오고.

담배를 입에 문 도록덩치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무심히 고기들을 썰고 있다.

양식장의 한구석.

만신창이가 되어 쓰러져 있는 까치.

창고 문이 켜. 열리더니 목과 다리에 깁스를 한 물영감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온다. 물영감의 휠체어는 덩치가 밀고 있다.

물영감, 까치 앞에 다다르자 불편한 몸을 움직여 까치를 툭툭 건드려본다.

미동도 하지 않는 까치.

덩치 (도록덩치에게) 뭐여? 죽은겨?

도륙덩치 아뉴, 안 죽었슈. 죽은 척 하는규.

까치, 갑자기 자세를 고쳐 잡고 무릎을 꿇고 물영감 앞에 앉는다.
까치의 다리엔 쇠사슬이 걸려있다.

까치 살려주십쇼. 잘못했습니다.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물영감 하, 사기꾼 노무 새끼... 야, 이 씨벌롱아. 내 돈 들고 댜 니 친구들 있는 데를 댜. 나가 가서 아주 주겨버릴라니께.

까치 몰라요. 저는 아무 것도... 저는 그냥 땅보러...

물영감 (버럭 화내며) 씨벌놈!! 끝까지 씨벌... 나가 넜 잡아낼 것 가터? 이? 오냐, 두고 보자. 나사장이, 이 씨벌 연놈들... 나가 다 잡아서 아주 잘근잘근 씹어먹어줄테니께.

물영감, 침을 한번 탁 뱉으면 덩치가 혈체어를 밀어준다. 창고를 나가는 물영감.

도륙덩치가 도마 위에 있는 이런 저런 장비들을 훑어본다.

한손에 잡히는 그라인더 절단기를 선택한 도륙 덩치, 싸인펜을 입에 물고 까치에게 다가온다.

까치 (놀라서) 아니, 저기요. 넜가 오해가 있어요. 저기요!

도륙덩치는 무심하게 까치를 의자에 앉히더니 두팔에도 쇠사슬을 건다.
까치, 그러면서 열심히 덩치를 설득해 보려 한다.

까치 내, 내가... 도,돈 줄게. 돈. 나 돈 많아.

도륙덩치, 까치의 몸 구석구석을 보더니 발뽀꿈치를 유심히 본다.
오른 발목의 아킬레스건 위를 싸인펜으로 슅크 긋는 도륙덩치.

까치 하지마! 이 씨발... 내가 넜... 이 씨발새끼야!! (포기한 듯 울먹이며) 살려주세요. 제발...

도륙덩치, 울고 있는 까치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본다.

눈물에 콧물에 침까지 흘리며 울고 있는 까치.

도륙덩치, 담배 하나에 불을 붙여 까치의 입에 물려준다.

들고 있던 그라인더 절단기에 스위치를 켜는 도륙덩치.

까치, 거의 혼이 나가있다.

위잉, 소리를 내며 돌아가는 절단기. 까치의 발뽀꿈치에 점점 다가간다.

그라인더 절단기에 고기가 찢리는 소리.

까치, 비명도 넜 지르고 이를 악 물자 물고 있던 담배가 똑하고 끊어진다.

86. 정석기원. 낮.

자신 앞에 놓인 칼을 바라보는 일출.
마주 앉아 그런 일출을 보는 애꾸.

일출 자르면...? 용서해 주나요?
애꾸 ... 용서?

일출, 칼을 들어 자신의 손목 위에 대고 누르기 시작한다.
그 모습을 우두커니 서서 지켜보는 애꾸. 텅빈 얼굴.
일출, 팔등에서 피가 베어나오지만 설βολ리 자르지 못한다. 이를 악무는 일출.
애꾸, 냉정하게 일출의 팔목을 바라보다 입을 연다.

애꾸 ... 마귀...
일출 ...?
애꾸 마귀라는 자가 있었다.
일출 ...
애꾸 절대 이길 수 없었지. 침착하고 잔인하고... 무서웠다.
일출 ...
애꾸 그 마귀가... 짝귀를 죽였다.

깜짝 놀라는 일출. 애꾸를 본다.
애꾸는 일출의 손목과 칼에서 시선을 떼지 않는다.

애꾸 내가... (일출 보며) 너희 아버지를 배신했거든.

텅 빈 애꾸의 얼굴.

87. 플래시 백 / 산 속 암자. 낮.

애꾸의 얼굴에서 20년 전, 10대 후반의 애꾸(아역-이하 어린 애꾸)의 얼굴이 겹쳐진다.
어린 애꾸는 겁에 질린 얼굴로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다.
누군가에 손에 들린 화투장 하나. 화투장을 든 손에 획하고 올라간다.
한지로 된 하얀 문풍지에 찍히고 피가 날아와 묻는다.

깊은 산속에 위치한 조그마한 암자다.

곧이어 비명소리가 들리더니 문을 부수고 어린 애꾸가 한쪽 눈을 부여잡고 뛰쳐나온다.

애꾸의 눈에는 화투장이 하나 박혀 있다. 피가 계속해서 뿜어져 나온다.

화투를 치고 있던 방 안에서 한 무리의 사내들이 애꾸를 따라 나온다.

애꾸, 미친 듯이 비명을 질러대다 결국 바닥에 쓰러진다.

그러거나 말거나 스님 한 분이 조용히 마당을 쓸고 있다.

사내1 (키득거리며) 어린 노무 새끼가... 깡다구 있다야.

사내2 (혀를 차며) 으이구... 쫓쫓. 일을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거야? 우리 돈 가져오라 그래. 니 싸부한테.

조용히 사내들 틈을 비집고 나오는 남자. 마귀다. (여전히 얼굴 보이지 않는다.)

마귀의 그림자가 어린 애꾸 앞에서 멈춰 선다.

바닥을 뒹구는 어린 애꾸의 눈에는 한낮의 해를 등지고 서있는 마귀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

마귀, 쭈그리고 앉아 어린 애꾸의 눈에서 화투장을 뽑아낸다. 피가 더욱 뿜어져 나온다.

어린 애꾸는 지랄을 하며 비명만 지른다.

마귀 (피물은 화투장을 입에 갖다대며) 쉬...

어린 애꾸, 공포에 질린 얼굴로 마귀를 본다.

여전히 해를 등지고 있는 마귀의 얼굴은 보이지 않는다.

마귀 (조용히) 짝귀... 어딴나?

88. 공중전화 부스. 밤.

시골 읍내 공중전화 부스.

손을 부들부들 떨며 전화를 하고 있는 애꾸. 머리를 대충 감고 있는 붕대가 한쪽 눈을 가리고 있다.

어린애꾸 네... 네. 선생님.

사내1,2가 투명한 부스 밖에서 애꾸를 보며 장난을 치고 있다.

어린애꾸 (눈치보며) 아뇨. 죽은 듯이 지내려고 했는데... 어쩌다가 판에 끼었는데... 죄송합니다. 한번만... 한번만 좀 도와주세요. 호, 호구들이예요.

좋아죽겠다는 표정의 사내1,2.

어린 애꾸 여, 여기가... 어디냐면요...

차 안에서 이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는 마귀.

89. 차안 / 공사-중인 고층빌딩. 밤.

마귀의 차 안에서 덜덜덜 다리를 떠는 어린 애꾸.

앞자리에선 사내1,2가 유심히 앞을 보고 있다.

옆에 앉은 마귀의 손이 어린 애꾸의 무릎에 얹히면 어린 애꾸 다리 떠는 것을 멈춘다.

사내2 왔다.

멀리서 커다란 돈가방을 든 짝귀가 건물 앞에 나타난다.

주위를 한번 살피더니 건물 안으로 쑥 들어가는 짝귀.

마귀가 어린 애꾸의 무릎위에 얹었던 손을 떼고 차에서 내린다.

사내1 (차키를 뽑으며 애꾸에게) 고맙다.

사내1,2가 차에서 나가고. 잔뜩 겁먹은 얼굴의 어린 애꾸.

90. 공사-중인 고층빌딩 앞. 밤.

고층빌딩 앞을 서성이는 어린 애꾸. 올라가 볼까하지만 너무 두렵다.

그 때, 옥상에서 들려오는 우당탕 소리.

어린 애꾸가 옥상을 쳐다보는데. 획 하고 떨어지는 무언가. 퍽하고 바닥에 부딪힌다.

어린 애꾸, 놀라서 다가가 보면... 짝귀다.

눈을 뜨고 있는 짝귀의 머리에선 피가 흘러나오고 있다.

원망스런 얼굴로 어린 애꾸를 바라보는 짝귀.

어린 애꾸, 울먹이기 시작한다.

옥상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던 마귀의 실루엣이 속 사라진다.

어린 애꾸, 어찌지 못하고 쭈뼛쭈뼛 짝귀의 시체에서 멀어진다.

울면서 도망치는 어린 애꾸.

91. 플래스시 포워드 / 정석기원. 낮.

텅빈 얼굴의 애꾸.

놀란 얼굴의 일출이 애꾸를 노려본다.

텅빈 눈의 애꾸는 천천히 의자에 앉는다.

애꾸 배신자에게... 용서는 없어.

일출 ...

애꾸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며 사는 거야... 나처럼.

일출 ...

애꾸 복수 하고 싶으면... 지금 해라.

칼을 든 일출의 손이 떨어진다.

일출이 든 칼을 바라보는 애꾸.

92. 정석기원 앞. 낮.

기원 입구를 나가는 일출.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아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무작정 걸어간다.

흔란스러운 얼굴로 거리를 걷는 일출.

화면 위로 올라가면 기원의 창 너머로 슬픈 얼굴의 애꾸가 일출을 지켜보고 있다.

93. 정석기원 안. 낮.

창밖으로 멀어지는 일출을 보는 애꾸.

권원장이 조심스럽게 애꾸에게 다가온다.

권원장 이대로... 보낼 건가? 까치... 데리러 가야지.

애꾸 없는 게 나아요. 저 혼자 갑니다.

권원장 ... 혼자?

애꾸 ... 마귀가 올 겁니다.

권원장 마, 마귀?

놀라는 권원장의 얼굴.

간이 침대 위에 놓여진 일출이 두고 간 칼. 칼엔 일출의 피가 묻어 있다.

애꾸(E)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눈.

94. 플래시 백 / 공사-중인 고층빌딩 앞. 밤.

바닥을 적시는 붉은 피.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짝귀.

어린 애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는 짝귀의 두 눈.

애꾸(E) 어딜가든 항상 지켜보고 있어.

겁먹은 어린 애꾸가 울먹이며 도망친다.

애꾸(E) 짝귀의 눈이.

95. 플래시 포워드 / 국도. 낮.

국도를 달리는 애꾸의 차.

운전을 하는 애꾸의 옆에 커다란 돈가방이 놓여있다.

애꾸(E)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소용 없어요.

96. 배위 - 1XX성 간이 부두. 낮.

바다 위를 달리는 작은 모터선.

커다란 가방을 들고 홀로 서 있는 애꾸.

애꾸(E) 그건 마귀도 마찬가지로일 겁니다.

배가 천천히 부두로 들어서고.

멀리서 모습을 지켜보는 마돈나.

97. 양식장. 낮.

커다란 철제 문이 열리면 가방을 든 애꾸가 양식장으로 들어선다.

묶여 있는 까치는 피칠갑을 하고 기절한 상태다.

안타까운 애꾸의 얼굴.

물영감이 비리게 웃으며 테이블로 애꾸를 안내한다.

애꾸(E) 틀림없이...

테이블에 앉아서 애꾸를 기다리는 마귀. (탐라이트 때문에 얼굴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애꾸(E) 거기에 마귀가 있어요.

애꾸, 담담하게 돈가방을 테이블에 던진다.

암전. 침묵.

애꾸(E) 마귀가 올 겁니다.

5. 마귀

98. 서면 마당 하우스. 밤.

수염이 가뭇하게 난 초라한 행색의 일출이 무표정한 얼굴로 카드를 치고 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일출의 얼굴에서 총기는 모두 사라졌다. 노름에 찌든 전형적인 노름꾼의 얼굴.

테이블엔 신사, 업소녀, 포주, 일출. 4포.

옆 테이블을 치우는 마담(45세/여)이 걱정스런 얼굴로 일출을 흘깃흘깃 본다.

신사 땡.

업소녀 음... 쿨.

포주 따라 가요. 쿨.

일출 받고. 전부.

깜짝 놀라 일출을 쳐다보는 사람들.

포주 (카드 꺾으며) 씨발놈이 보자보자 하니까...
일출 ...
업소녀 (뒹으며) 오빠? 계속 이럴 거야? 좀 살살 쳐. 재미없게.
일출 ...
신사 (죽으며) 이거 무서워서 치겠나? 포커는 신사 게임이야. 매너 지켜.
일출 매너? (비웃음) 웃기고 있네. 베팅을 할 땐 인생을 거는 거야.
신사 (벗어난 겹옷을 집어 들며) 저는 일어섭니다. 이러다 집문서 들고 오겠네.
포주 (침을 뱉고 일어나며) 아... 개새끼.

신사는 나가버리고 다른 멤버들은 옆 테이블을 기웃거린다.

테이블에 홀로 남은 일출.

일출에게 다가오는 마담. 화가 난 얼굴로 일출을 본다.

일출 적어 놔.

일출, 자리에서 일어난다.

99. 세면 마담 하우스 사무실. 밤.

잔에 위스키를 따라 벌컥벌컥 들이키는 일출.

마담이 침상자를 들고 사무실로 들어온다.

일출, 사무실 소파에 아무렇게나 누워버린다. 그 모습이 영락없는 <타짜 1편>의 짝귀다.

마담, 일출의 침을 정산한다.

마담 그냥, 땀 데 가지?
일출 ...
마담 손님들 그만 쫓아내고... 땀 데 가지?
일출 ...
마담 야!!

일출, 돌아누워 눈을 감아버린다.

마담, 일출 곁으로 다가와 앉는다.

마담 (한숨) 삼촌아. 니 여서 먹고 자고.. 벌써 몇 달째고? 살살이나 좀 치든가?
아싸리 큰 판을 가든가? 잔채이들 다 쫓아내고... 내는 우째 장사 한다 말

이고?
 일출 ...
 마담 삼촌 니... 내 좋아하나?
 일출 ...
 마담 좋아하면 얘기해라. 내는 마음의 준비가 벌써...
 일출 (여전히 돌아누워) 누나.
 마담 (진지하다) 응. 삼촌아.
 일출 좇같은 소리 하지 말고 포나 한번 맞춰줘요. 크게.
 마담 ...

100. 세면 마담 하우스 VIP룸. 낮.

험악한 인상의 사내들, 심각하게 표정이 굳는다.
 말없이 침을 뱉기는 일출.
 사내1, 계속해서 일출을 노려본다.

일출 (침을 뱉기며) 오링 났으면 꺼져. 뭘 꼬라봐?

사내1, 어이없어 웃다가 들고 있던 카드를 찢어버린다.

사내1 저 새끼 배때지는 철관으로 돼있나? 니미, 칼로 함 썰시 볼 수도 없고...

사내1이 일어서자 옆에 있던 사내들도 따라서 나간다.

일출 (침을 각에 정리하며) 조또... 아가리 털기는.

사내들 나가다가 입구에 서 있던 누군가와 부딪힌다.
 입구에 서 있던 누군가는 까치다.
 인상을 구기며 사라지는 사내들.
 까치, 일출을 보며 피식 웃는다.

까치 아주, 아도를 치시는구만?

일출, 그제서야 까치를 발견하고 깜짝 놀란다.
 까치, 천천히 일출에게 다가온다. 목발을 짚은 까치는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전다.
 일출, 그런 까치를 바라보며 얼굴이 굳는다.

까치 (테이블에 앉으며) 꼬라지 보니까 너도 곧 나처럼 되겠다.

일출 ...
까치 (테이블 위의 카드를 보고) 패나 한번 돌릴까 오랜만에?

까치, 천천히 셔플을 한다.

까치 (셔플을 하며) 이게 이게... 오랜만에 뭘지 모르겠네?
일출 ... 복수하러 왔냐?
까치 복수? (피식) 복수를 왜 너한테 해? (턱끝으로 자신의 다리를 가리키며)
니가 잘랐냐?

까치, 셔플을 마치고 카드를 돌리고. 일출은 그 모습에 쓴웃음을 짓는다.

까치 (패를 쪼며) 보자, 보자... 에이, 씨발... 개패네. 안 된다. 이제. 크크.
일출 게임하고 싶으면 돈 들고 와.
까치 노름은 안 해, 이제. 명절에... 재미로만 할라고.
일출 그럼? 뭐하러 왔냐, 노름판에?
까치 ... 얼굴보러 왔다. 배신자 새끼 얼굴.
일출 ... (표정이 굳는다)

서로 똑바로 바라보는 두 사람.
묘하게 흐르는 긴장감.

까치 (침묵을 깨고) 애꾸... 죽었다.

일출, 표정이 굳는다.

까치 최소한 너는 알아야 하지 않겠냐?
일출 어, 어찌다...?
까치 서천에 다시 왔더라. 덕분에 씨발... 나는 살았지.
일출 ...
까치 그 여자가... 선수를 하나 섭외했는데... 속절없이 당했다.
일출 ... 애꾸가?
까치 나도 그런 건 처음 봤다. 구라든 실화든 치는 족족 잡히더라. 침착하고, 잔
인하고...
일출 ... (생각)
까치 ... 무섭더라.
일출 ... (생각)
까치 그 새끼 이름이...
일출 (혼잣말처럼) ... 마귀...

일출을 보는 까치, 무언의 긍정.

까치 ... (목발을 짚으며) 간다. 복수는 내가 아니라 니가 해야 할 것 같은데?
돈 받으러 가야지.

까치, 일어나 다리를 절며 문 쪽으로 간다.

일출 ... 돈? 무슨 돈?

까치, 멈춰서 뒤돌아 본다.

까치 마귀가 그러던데? 국밥값 받으러 오라고.

일출 ...?

까치 만팔천원.

일출 ...!!!!

놀라는 일출의 얼굴. 일그러진다.

10. 이상무/마귀 플래시백 몽타주. 낮/밤.

놀라는 일출의 얼굴에서 파편처럼 튀겨져 들어오는 이상무/마귀 플래시백 몽타주.

- 서천 양식장.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애꾸.
애꾸의 잘린 팔을 주워드는 이상무/마귀.
- 털보하우스 VIP룸.
절망하는 일출.
패를 까며 깔깔거리는 이상무/마귀.
뒤로 일출을 바라보는 마돈나의 눈빛.
- 털보하우스 앞.
쓰러지는 일출의 자전거.
벤츠에서 내리는 이상무/마귀.
- 차 안.
어린 애꾸의 허벅지를 꼭 쥐고 있는 손.
팔 따라 올라가면 젊은 날의 이상무/마귀.

- 산 속 암자.

비명을 지르며 나뿔구는 어린 애꾸.

애꾸의 눈에 박힌 화투장을 빼내는 이상무/마귀.

- 공사중인 건물 옥상.

매달린 한 팔을 놓쳐버리는 짝귀.

담배에 불을 붙이면 어둠속에서 드러나는 이상무/마귀의 얼굴.

다시 현재로 플래시 포워드 되면.

이상무가 마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일출의 일그러진 얼굴.

102. 세면 마담 하우스 앞. 낮.

마담하우스를 빠져나가는 까치.

까치를 따라가 보면 작은 소형차 운전석에 영미가 타고 있다.

영미 봉신아. 왜 이렇게 오래 걸려?

까치 아. 장애인한테 봉신이라 그러면 안돼. 그건 진짜... 존나 무식한 거야.

영미 뭐래, 봉신이. 빨리 타. 담배 땡겨서 뉘지는 줄 알았네.

영미, 까치의 목발을 받아주러 차에서 내리는데.

급하게 까치를 따라 마담하우스를 나오는 일출과 눈이 마주치는 영미.

일출, 쭈뼛거리며 까치와 영미에게 다가온다.

까치 (어색해 하며) 영미는... 너 못 보겠다고 해서.

일출, 자세히 영미를 보니 영미의 배가 불러 있다.

일출 ...

까치 ... 왜? (피식 웃으며) 같이 가자고?

영미, 화난 얼굴로 까치를 본다.

일출 아니... 잘 살라고.

까치 ... (피식 웃으며) 미친놈. 죽지 마라.

까치와 영미, 차에 오르려 한다.

일출 영미야.

영미, 일출을 본다.

일출 ... 미안하다.

말없이 차에 오르는 영미.

떠나가는 소형차를 바라보는 일출.

일출의 얼굴엔 회한이 가득하다.

비장한 음악이 흐르고.

권원장(E) 여기서... 끝내고 싶었던 게 아닐까? 애꾸는...

103. 애꾸의 점심 몽타주 / 플래시 백. 낮/밤.

- 산 속 암자.

비명을 지르며 나뒹구는 애꾸.

키득거리는 사내1,2. 암자를 따라나오는 이상무/마귀.

암자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어린 마돈나(아역 - 이하 어린 마돈나). 이제 갓 열 살이나 되었을까.

어린 마돈나는 매를 맞았는지 얼굴이 상해 있다.

권원장(E) 끝없이 반복되는... 배신과 복수...

- 차 안.

어린 애꾸의 다리를 잡고 있는 이상무/마귀와 사내1,2가 차에서 내린다.

어린 애꾸 눈치를 보다가 자기도 차문을 열려고 한다.

어린마돈나 아저씨...

어린애꾸 ...?

보조석엔 모자를 꼭 눌러쓴 어린 마돈나가 타고 있었다.

어린마돈나 (울조리듯) 저도... 데려가면 안돼요?

어린 애꾸, 잠시 망설이다 서둘러 혼자 차 문을 열고 나간다.

홀로 남겨진 어린 마돈나.

권원장(E) 도망치고 싶었는지도 모르지.

- 서천 관광호텔 스위트룸 앞.
비에 젖어 마돈나와 대화 하고 있는 일출.
그 모습을 복도 구석에서 지켜보는 애꾸. 놀란 눈.
마돈나와 키스하는 일출.
굳어지는 애꾸의 얼굴.

권원장(E) 지긋지긋하게 애꾸를 따라다닌... 어떤 후회로부터.

- 정석기원/과거.
창 밖으로 멀어져 가는 일출을 바라보는 애꾸.
그런 애꾸를 바라보는 권원장.

권원장(E) 그건 내가 잘 알아.

- 서천 양식장.
팔이 잘린 채 쓰러져 있는 애꾸.
애꾸의 잘린 팔을 주워드는 이상무/마귀(이하 마귀).
허공을 바라보며 누워 허탈하게 웃어버리는 애꾸.

권원장(E) 후회는 노름꾼의 제일 친한 친구니까.

- 정석기원.
기원의 기반과 물품들을 실어 나르는 인부들.
분주한 이삿날. 이삿짐센터 소장에게 뭔가를 얘기하고 있는 권원장.

권원장(E) 너도 이미 알게 됐잖아.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인부들 틈으로 권원장을 지켜보고 있는 일출.
일출을 발견한 권원장. 뭔가 반갑고 또 뭔가 씁쓸하다.
일출도 권원장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한다.

권원장(E) 그러니까... 가지 마라.

어색하게 마주 선 두사람.

권원장(E) 가지 마. 일출아.

104. 랑골공원 대포장. 낮.

낮술을 마시는 초로의 노인들 틈에서 수육에 소주를 놓고 마주하고 있는 권원장과 일출.
권원장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일출, 소주를 한잔 마신다.

일출 마귀는 왜... 저를 찾아왔던 걸까요?
권원장 기막힌 우연이거나... 기막힌 필연이겠지. 그게 뭐든... 가지 마.
일출 알아야 겠어요. 도대체 왜... 우리 아버지를 죽이고... 돈도 가져가고... 저
 까지 이렇게...
권원장 ...
일출 지금 안 가면... 평생 후회하면서 살게 될 것 같아요.
권원장 원래 그런 거야. 노름꾼이라는 게... 졌던 판 생각나고 잃은 돈 생각나고...
 그러다가 배신하고 배신당하고... 결국엔... 후회만 남지.
일출 ...
권원장 복수? 복수 한다고 후회가 사라질까? 아니야. 내가 잘 알아. 애꾸도 그랬
 고 나도 그랬으니까. 니 아버지... 짝귀도 아마... 그랬을 거야.
일출 ...
권원장 일출아. 가지 마라.
일출 ...

권원장, 소주를 한 잔 들이킨다.
음악 더욱 비장해지며.

105. 서면 마당 하우스. 밤.

카드 테이블에 홀로 앉아 생각에 잠긴 일출.
여러 사람들이 드나들고 웃고 울고 떠들고... 더러는 환호성을 지르고 더러는 아쉬운 탄성을
자아낸다.
일출은 그런 사람들을 하염없이 바라본다.

음악과 함께 모든 사운드가 사라진다.
일출의 아무 것도 없는 무표정.

일출(E) 아뇨. 가야해요.

106. 서면 마담 하우스 사무실. 밤.

텔레비전을 보면서 라면을 먹고 있는 마담.
마담에게 다가오는 일출.

마담 쯤 비키라. 안 보인다.

일출, 멀뚱히 마담을 내려다본다.

마담 ... 왜?
일출 ... 정산 해줘.
마담 ...

107. 고속버스 터미널 매표소. 밤.

커다란 돈가방을 든 일출이 사람들 틈을 지나간다.
매표소에 다다른 일출.

일출 서천이요. 제일 빠른 거.

빠른 손놀림으로 버스표를 발권해주는 매표소 직원.
일출, 가만히 버스표를 보더니 피식 웃는다.

일출 미안한데... 왕복으로 바꿔줘요.

108. 고속버스 안. 밤.

가방을 들고 서천으로 내려가는 일출.
일출의 얼굴에 비치는 가로등 불빛.
일출, 돈가방에 손을 얹어 본다.
페이지 아웃.

109. 배위/서해. 낮.

마귀가 탄 모터선이 서해 바다를 달린다.

마귀의 곁엔 어린 **여자 아이**(8/여/이하 여자 아이)가 하나 서 있다.

마귀의 뒤로 돈가방을 든 보디가드1,2가 병풍처럼 뒤에 서있고.

마귀는 어린 여자 아이의 머리칼을 쓰다듬는다.

힘차게 바다를 가르는 모터선.

110. XX섬 간이부둣. 낮.

마귀가 탄 배가 작은 섬 간이 부두에 다다르면.

물영감과 덩치들이 드럼통에 고기를 구워먹고 있다.

마돈나는 물영감 우리들 옆에서 들어오는 배를 보고 있다.

배 위에서 씨익 웃는 마귀.

마귀와 보디가드들이 물영감 패거리에게 다가간다.

마돈나의 시선은 마귀 곁에 선 여자아이에 닿는다.

물영감 이걸 워찌? 다 독어부렸는디. 아, 그러게 좀 빨리빨리 좀 다녀. 해 떨어지
 겻네.

마귀 도일출이는?

물영감이 턱 끝으로 가리키는 곳에 실내 양식장이 있다.

물영감 이 개 잡노무새끼가... 간뎡이도 크지. 여기가 워디라고. 아, 지발로 돈을
 들고 찾아왔대니께.

마귀 내가 워렸어? 저년이 여기 있는한 도일출이 그새끼는 반드시 다시 온다니
 까.

마돈나, 여자아이를 보던 시선을 마귀로 옮긴다. 분노에 찬 표정.

마돈나 말조심해. 나 더 이상 니꺼 아냐.

마귀 (마돈나를 보며) 여... 얼굴 좋다? 영감이 물 좀 주냐?

마돈나 ...

마귀 (고기를 한점 집어 먹으며) 쌍년. 좇밥 새끼한테 쫓아서 부를 땀 언제고.

마돈나 개새끼...

마돈나, 마귀를 무섭게 노려본다.

물영감 에헤이, 피아구분을 해야지. 같은 핀끼리 못써 그럼. (마귀보며) 두당 이십
억씩. 팔십억. 워떠?
마귀 돈이야 많을수록 좋지.
마돈나 (물영감 보며) 왜 팔십억이에요? 셋이면 육십이지.
물영감 나도 깰거거든.

마귀, 킁킁거리며 웃는다.

마돈나 제정신이에요? 얘기가 다르잖아.
물영감 왜? 안더? 같은 핀이 많아야 더 나은 거 아녀?
마귀 우리는... (뒤의 보디가드를 슬쩍 보고) 돈만 걸 거 아닌데?
마돈나 빠지세요. 위험해요.
물영감 선수들끼리 붙는디 나가 딸 것 같지는 않고, 나는 판 만들어주고 쿵짝이나
맞춰줄테니까 누가 따건 수수료는 50프로여.
마귀 (놀라며) 오십... 씨발, 강도야, 뭐야?
물영감 싫음 말어. 난 복수니, 의리니 그딴 거 몰러. 돈만 믿고 돈만 따라가니까...
아, 할꺼 말꺼? 시간 얹어.
마귀 도일출이... 낯짝이나 봅시다.

물영감, 물로 입을 행군다.

물영감 좋다. 씨발. 레츠꼬여.

III. 양식장. 낮.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있는 도일출.
맞은 편에 큰 천으로 덮여진 무언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다.
축축하고 비릿한 양식장의 공기.
꿈틀.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도 같다.

덜컹,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일출의 얼굴로 빛이 새어 들어온다.
일출, 눈이 부시다.
창고로 들어서는 마귀, 물영감, 마돈나 그리고 돈가방을 든 덩치들.

마귀 (손을 흔들며) 여~ 고놈 명 한 번 참 기네. 두 번이나 나를 만나는 거. 그
거 쉽지 않다.

일출 여전하네. 아가리 터는 건.
 마귀 (겹겹웃으며) 룰이 어떻게 되나? 넌 뭘 걸래?
 일출 돈. (가방을 툭 끝으로 가리키며) 안 보여?
 마귀 (겹겹 웃으며) 그 돈은 어차피 잃을 거고. 서해 바다 한가운데 풍지가 있
 을리도 없고. ㅋㅋㅋ... 안 그래?
 일출 ...

일출, 마귀를 노려보다 곁에 있는 마몬나에게 시선이 간다.
 일출의 시선을 피하는 마몬나.

마귀 (비리게 웃으며) 다 잃고 나면? 손을 자를래, 귀를 자를래? 아니면 눈썹을
 하나 파줄까? ㅋㅋㅋㅋ.
 일출 ... 베풀할 땐 인생을 걸어라.
 마귀 ... 뭐?
 일출 모가지. 걸자.
 마귀 (웃으며) ㅋㅋㅋ, 모가지... 좋지. ㅋㅋㅋ.
 물영감 이, 네 그럴줄 알았네.

물영감 무언가를 덮어놓았던 커다란 천을 확하고 걷는다.
 천을 걷자 피칠갑이 된 정장남이 입에 재갈을 물고 혼절해 있다.
 정장남의 발목엔 족쇄가 채워져 있고 뒤로 거대한 쇠구슬이 매달려 있다.

물영감 나가 보험하나 들어놔네. 막 겁주고 막 그러는 거슨 아니고. (정장남의 머
 리칼을 움켜쥐고) 이놈이 우리 조카 그 뭐시냐 상가 건물 하나를 저기 해
 먹으라고 문서 몇 개에다가 찌간한 글씨로 장난을 좀 쳤더라고.
 마귀 (겹겹 웃으며) 영감, 씨발 부지런도 하네.
 물영감 아, 타짜들이 기술쓰고 그라운 내가 무슨 수로 당하겠는가? 안 그러?

물영감, 정장남의 재갈을 풀어주자 그제서야 정장남은 정신이 좀 드는 것 같다.

물영감 이, 워떠? 숨통이 좀 트이지? 기지?
 정장남 사... 살려줘유...
 물영감 숨 한 번 크게 들이 마시봐. 숨.

정장남 상황파악이 안 된 채 숨을 들이마신다.

물영감 이, 이, 옳지.

물영감이 바닥에 튀어나온 레바 하나를 힘껏 들어올리자 덜컥.하고 거대한 쇠구슬이 놓여진
 곳이 살짝 기운다.
 쇠구슬이 떼구르르 굴러 양식장으로 빠지고 정장남은 발버둥쳐보지만 순식간에 물 속으로

빨려들어간다.

정장남이 빨려들어간 물위로 물보라를 일으키며 징그럽게 모여드는 물고기떼.
그 모습을 바라보는 도일출, 얼굴이 굳어진다.

마귀 (놀라며) 오호~
물영감 그렇게 또... 깊지는 않아. 한 오메다... 되나?
덩치 아뉴. 그거보단 더 되쥬. 한...
물영감 (말꼬고) 아무튼 내일은 이거 하나씩 차고 뛰자고.
마돈나 (가만히 물속을 바라보다) 좋네요. 손에 피 안 묻히고.

일출, 그런 마돈나의 얼굴을 본다.
마돈나는 물속만 뚫어져라 바라본다.

물영감 보는 눈이 여럿잉게 누구든지간에 기술만 써봐 어디.
마귀 (비웃으며) 아, 토끼 한 마리 잡는데 대포 쏠 일 있어?
물영감 (덩치들에게) 오늘은 시간이 애매하니께... 우리 호텔서 폭들 쉬고 내일 아침 물들어올 때 다시 보자고. 여기는 물 빠지면 배가 못 떠. 그래서 도망도 못 치니께 종교 있으면 오늘 밤에 기도들하시교.
마귀 야... 심장이 막 벌렁벌렁한다 야. 그지? ㅋㅋ크.
도일출 ...

마귀를 노려보는 도일출.
마귀, 보디가드들과 문 쪽으로 사라진다.

물영감 아야. 뭐더냐? 배 띄우니라.

112. 배위 / 서해 . 저녁.

불안한 음악이 흐르고.
늦은 오후 바다 위를 달리는 모터선.
벋전에 선 일출이 어두운 얼굴로 바다를 바라본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마돈나.

113. 호텔 롱. 밤.

어두운 방안. 불도 켜지 않고 홀로 앉아 있는 일출의 얼굴과 오버랩된다.
생각에 잠겨 허공을 바라보는 일출의 얼굴.

114. 호텔 복도. 밤.

조심스럽지만 급하게 복도를 걷는 누군가의 발.
그 발은 어느 방 앞에 멈춰 선다.

그 발의 주인공은 마돈나다.
방 앞에서 망설이는 마돈나. 주위를 살핀다.

115. 호텔 룸 앞. 새벽.

쿵쿵. 조용히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문 쪽을 보는 일출.
일출, 조심스럽게 도어체인을 걸고 문을 반만 연다.
열어보면 마돈나가 서 있다.

마돈나 ...
일출 ... 이거... 뭔가 익숙하다?
마돈나 ...
일출 전에는... 반대였던 것 같은데.
마돈나 내일... 이길 수 있니?
일출 내가 이기길 바래?
마돈나 ... 아니.

피식 웃는 일출.
마돈나, 도어 체인을 잡고 있는 일출의 손을 슬쩍 본다.

마돈나 내가 그랬지? 노름하면 안되는 손이라고.
일출 개수작 부리지 마!!
마돈나 마귀가 이기는 것도 바라지 않아!!
일출 ...
마돈나 물영감도.
일출 ... 그 얘기하러 왔어? 이 시간에?
마돈나 마귀, 물영감... 그리고 나까지. 모두 같은 편이야. 절대로 이길 수 없어.
일출 ...

마돈나 너 혼자선.
일출 ...?
마돈나 우리... 돈만 들고 가자. 나한테 계획이 있어.
일출 ... 당신한테 세 번이나 속을 만큼... 더 이상 내가 순진하지 않아.

마돈나를 노려보는 일출.

마돈나, 일출의 단호한 얼굴을 바라보다 이내 시선을 떨군다.

마돈나 ... 내가 너한테 했던 말... 전부 다 거짓말은 아니었어.
일출 ...
마돈나 ... 미안하다. 이번엔 진심이야.

마돈나, 돌아서려는데.

일출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지? 두 번이나 날 속였는데?
마돈나 (다시 돌아서서) 날 믿지 마.
일출 ...
마돈나 돈을 믿어.

마돈나를 바라보는 일출.

일출을 바라보는 마돈나.

쿵. 하고 닫히는 문.

가만히 문을 바라보고 있는 마돈나.

손잡이가 삐걱 돌아가더니 천천히 다시 문이 열린다.

마돈나의 입가에 아주 살짝 작은 미소가 떠올랐다 사라진다.

불안한 얼굴의 일출이 문을 열고 서 있다.

불길한 음악.

116. 호텔 룸 안. 새벽.

방 안으로 들어오는 마돈나. 미소가 더 짙어진다.

조용히 문을 닫고 문을 잠그는 일출.

일출 (문을 보며) 말해봐. 당신 계획이라는 거.
마돈나 (표정 바꾸며) 내가 약을 탈 거야. 술잔에.
일출 (뒤 돌아보며)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

마돈나, 슬쩍 일출에게 다가간다.

마돈나 우리... 내일만 생각하자. 응?

마돈나를 피해 방 안으로 들어가는 일출, 의자에 앉는다.

일출 ... 그 다음엔?

마돈나 너는 절대로 술을 마시지 마. 한꺼번에 탈거니까.
 마귀랑 물영감이 술을 마시면... (아주아주 작은 미소) 너도 알지?

일출, 마돈나의 말을 들으며 생각에 잠기는 일출.

점점 고조되는 불길한 음악.

117. 양식장. 낮.

Insert - 양식장 앞에 앉아있는 여자 아이. 흙을 발로 차며 장난치고 있다.

물영감과 덩치, 마귀의 보디가드들이 모여서 카드와 테이블들을 살펴보고 있다. 어수선한 분위기.

말없이 앉아있는 일출과 마돈나. 그리고 마귀. 발에는 저마다 하나씩 족쇄가 채워져 있다. 서로 알 수 없는 표정. 말없이 상대방을 주시한다.

물영감이 카드 한 벌을 들고 앉으며 농을 친다.

물영감 월래? 분위기가 왜 이라? 노름판은 즐거워야 하는 법인데. 안 그러?

마귀 좀 봤어. 간밤에 연놈들이 똥꼬 한번 맞췄는지 어떤지.

마귀를 바라보는 마돈나.

물영감 (패 섞으며) 크크. 그래서? 뭐가 보이는가?

마귀 (비리게 웃으며) 모르지. 몇 번 돌아보면 알겠지.

도일출 (물영감에게) 안 돌려요?

물영감 카드를 죽 깎는다.

물영감 자, 피차 친목은 아닌게 노리미뜨 풀빼팅. 선들 잡으시고.

저마다 카드 한 장 씩을 까면 모두 다른 숫자. 일출이 원아이드잭을 잡는다.

물영감 도일출이. 선.

마귀 뭐야, 애꾸네? ㅋㅋ 불길하다 불길해.

일출, 마귀를 노려보며 셔플을 한다.

마귀 애꾸가 저승서 보고 있나... (하늘 보며) 어이. 패나 한 번 잘 줘봐. 내 저승가면 뽀찌는 넉넉히 줄테니까. ㅋㅋ크.

마귀가 술잔으로 손을 가져간다.

초조한 얼굴의 마돈나.

일출 (어금니를 깨물고) 하나만 묻자.

마귀 뭐?

일출 (패를 돌리며) 짝귀는... 왜 죽었냐?

일출을 보는 마돈나.

마귀, 술잔을 잡으려던 손을 잠시 멈추더니 자기 앞에 떨어진 카드를 본다.

마귀 (패를 받으며) 누구? 니 아버지? ㅋㅋ. 씨벌놈이 재수없게 뒤편 사람들 애기를 왜 자꾸 물어?

마귀 손에는 스페이드 에이스, 하트8, 하트 K.

마귀, 스페이드 에이스를 버린다.

마귀 내 돈을 들고 튀었거든. 짝귀가.

물영감 내가 보스네. (칩 던지며) 천만.

일출 (마귀 보며) 그게... 다냐?

마귀 그것 말고 무슨 이유가 있겠냐? 노름꾼이.

일출, 말없이 무섭게 마귀를 노려본다.

마돈나 ... (일출에게) 안 할 거야?

일출 ... (칩 던지며) 따라 가.

마돈나 저두요.

일출, 다시 패를 돌리는데 일출에게 스페이드가 붙고 마귀에게 하트가 붙는다. 각각 세장의 하트와 스페이드. 물영감에게는 스페이드 K. 마돈나는 개패.

마귀 (물영감을 보며) 희한하지? 천하의 짝귀가 구라를 다 치고 말야. 돈이 어지간히 급했던 모양이야. 일억.

물영감 말년에 어디 기집질이라도 했는가부지 뭐... ㅋㅋ. (칩 던지며) 따라가. 콜.

일출 (버럭 화내며) 왜 죽었냐고, 이 개새끼야! 돈은 가져갔잖아!!

불안한 얼굴로 일출을 바라보는 마돈나.
마귀, 일출을 가만히 쳐다본다.
분노한 얼굴의 일출.

마귀 ... (실소) 구라를... 두 번이나 쳤거든. 짝귀가.

Cut to - 공사중인 건물의 옥상.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는 짝귀.
그 모습을 바라보는 마귀.

사내1 형님!

마귀가 슬쩍 고개를 돌려보면 사내1이 급하게 돈가방을 들고 와 마귀에게 보여준다.
돈가방 안은 잘라놓은 신문지와 옷가지들로 가득하다.
분노에 찬 마귀. 어금니를 짹 깨문다.

짝귀 손에 힘이 점점 빠진다. 마침내 난간을 놓치고 만다.
담배에 불을 붙이는 마귀. 마귀의 얼굴은 분노로 가득하다.

마귀(E) 짝귀가 유일했지, 아마?

Cut to - 양식장 / 현재.

마귀 (무서운 얼굴로) 내 돈을 먹고 똥 놓은.

손 안에 든 패를 보고 있던 마귀. 일출을 본다.

마귀 궁금하지 않냐? 짝귀는 어디에 뒀을까? 그 많은 돈을...

일출 ...

물영감 키야. 완전 소설이네이.

마귀 지옥 끝까지 찾아 가거든. 내 돈을 들고 똥 새끼는.

일출 그래서? 나한테 받으러 왔던 거냐?

마귀 아직 다 못 받았어, 이 개자식아.

일출 ...

마귀 걱정 마. 이거 다 따면 얼추 될 것 같으니까. (피식 웃으며) 여기가... 지옥
인가보다.

마귀를 바라보는 일출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진다.
불안한 눈으로 일출을 바라보는 마돈나.

일출, 술잔을 들어 맥주를 벌컥벌컥 마신다.
마돈나의 안타까운 표정.

일출 (빈술잔을 바라보다) 받고 올인.

모두들 놀란 얼굴.

물영감 뭐여? 플러시 메이드여? 이 쪽도 플러시 그림인디?
마돈나 (포기한 듯 패를 덮으며) 죽어요.
마귀 (판 위에 패들을 흘깃 보다) 지옥... 맞네. 콜. 올 인.

술렁이는 구경꾼들. (덩치들, 보디가드들)

물영감 에이, 첫 판에 이러면... 나는 못 따라가네.

물영감, 패를 뒤집고 판을 본다.

일출이 다시 한 번 패를 돌리면 또 둘 다 하트와 스페이드.
낮게 터지는 탄성.
마지막 히든이 돌고.
마귀는 히든을 보지도 않고 웃으며 패를 깐다.

마귀 에이, 발전 없는 새끼야. 나는 카플러시야. 니가 아무리 플러시 메이드라도
날 이길 순 없지. 왜? 물영감한테 스페이드 킹이 떨어졌고 스페이드 에이
스는 애초에 내가 버렸으니...

일출 ... (카드 한 장을 보여주며) 이거?

카드는 스페이드 에이스.

일출이 패를 뒤집으면 아 플러시.

일출 히든에 들어왔는데?

마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이, 이... 씨발새끼! 분명히... 내가 버렸어!

일출 그래? (처음에 버린 네장의 카드를 보며) 그럼 여기에 있겠네. 어때? 모가
지, 겔래?

마귀 이, 이 개새...

일출, 네 장 중에 한 장을 뒤집는다. 클로버 2.

물영감 이, 내가 버린 크로바여.

일출, 다음 카드를 또 한 장 뒤집으면. 하트7.

마돈나 (마귀를 보며) 내꺼네.

일출, 또 한 장을 뒤집으면. 다이아 8.

일출 (다이아 5 보여주며) 자, 내가 버린 8.

물영감 (덩치들에게) 아야. 뭐가 됐든 하나는 땡겨야 쓰겠다.

덩치 예.

덩치, 레바들 앞에 선다.

마귀의 보디가드들이 움직이려하자 물영감의 덩치들이 막아선다.

일출이 나머지 한 장에 손을 가져가는데.

마귀 건들지 마, 이 씨발 새끼야!!

일출 쫄리냐? 쫄리면 없던 일로 하자. 나는 돈만 가져가면 되니까.

마귀 무섭게 일출과 카드를 노려본다.

마귀 (갑자기 웃으며) 야, 야 이 새끼...

놀라는 모두들.

마귀 응. 이제 알겠네. 엇다 에이스 한 장을 숨겨 들어왔는지는 몰라도 판 위에 장난은 없었어. 니가 셔플할 때부터 돌리는 손 하나하나 유심히 봤거든. 이 판 위에 스페이드 에이스는 두장이야.

일출 (긴장한 얼굴을 감추는 듯) 그럼 까 봐. 니가 직접.

카드 한 장에 손을 가져가는 마귀.

모두들 카드 덮여진 카드 한 장을 바라보고.

긴장이 고조되는 순간.

음악이 고조되고.

마귀의 손이 카드를 뒤집는데.

일출(E) 말 해봐. 당신 계획이라는 거.

118. 플래시 백 / 호텔 룸 안. 밤.

조용히 문을 바라보고 있는 일출.

마돈나 (표정 바꾸며) 내가 약을 탈 거야. 술잔에.
일출 (뒤 돌아보며)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

마돈나, 슬쩍 일출에게 다가간다.

마돈나 우리... 내일만 생각하자. 응?

마돈나를 피해 방 안으로 들어가는 일출, 의자에 앉는다.

일출 ... 그 다음엔?

마돈나 너는 절대로 술을 마시지 마. 한꺼번에 탈거니까. 마귀랑 물영감이 술을
마시면... (아주아주 작은 미소) 너도 알지?

일출, 마돈나의 말을 들으며 생각에 잠기는 일출.
점점 고조되는 불길한 음악.

마돈나 아무도 눈치 못 챌 거야. 내가 손을 다 써놨거든.

피식 웃는 일출, 마돈나의 말을 들으며 천천히 손을 의자 옆 조명 컨트롤러에 가져간다.

마돈나 일단, 술을 마시면 그 때 니가 셔플을 해서...

일출의 손이 컨트롤러의 스위치를 누른다.

갑자기 환해지는 방안.

눈을 찡그리는 마돈나.

마돈나의 옆으로 열려있는 화장실 문안. 웅기종기 모여 있는 물영감과 덩치들이 보인다. 좁은 공간에 많이도 모여있다.

깜짝 놀라는 마돈나.

물영감은 마돈나를 보며 야비하게 웃고 있다.

물영감 잡았다. 요년.

당황하여 일출을 바라보는 마돈나.

일출, 무덤덤하게 마돈나를 바라본다.

119. 플래시 백 / 로터리클럽 회장실. 낮.

물영감 돌은겨?

로터리 클럽 회장실에 물영감과 일출이 마주보고 앉아 있다.

일출의 주위로 흥기를 든 덩치들이 둘러싸고 있다.

돈가방을 열어 돈을 확인해 보던 물영감. 위에 가려진 돈 아래로는 그냥 종이뭉치다.

물영감 (돈가방을 들어 뒤집으며) 아니면 장난치는거? 뭐, 뭐하자는 거여?

물영감, 돈가방을 뒤집어 종이뭉치들을 테이블 위에 쏟아낸다.

물영감 이따위 거를 갖고 와서는 나한테 뭐? 판을 만들어라?

일출 말했잖아요. 돈은 없어요.

물영감, 어이없어 웃는다.

물영감 야, 이... 개 버러지거튼 새끼야. 간쟁이 하나는 씨벌 존니 크네이. 너 오늘 잘 찾아왔다. 이왕 온 거, 아주 그냥 죽지 않을만큼 매나 한번 실컷 맞고 가라.

덩치들이 흥기를 든 손에 힘을 준다.

일출 제가 다 잃어도 수수료 50프로는 드시는 겁니다.

물영감 ...?

일출 20억.

물영감, 손을 들어 덩치들을 제지한다.

일출 제 계획대로 되면... 제 몫 20억 빼고는 다 드릴게요.

물영감 ...

일출 ... 40억.

물영감, 담배를 하나 꺼내 불을 붙인다.

물영감 (담배 피우며) 허... 고놈... 참...

일출 선택하세요. 20억을 벌지, 40억을 벌지... 아니면 그냥 저를... 쫓아버릴지.

물영감 ... 만에 하나...

일출

물영감 일이 잘못 되든?

일출 ... 죽이세요. 절.

물영감 에라이, 썩을 놈... 너 죽여 사료값 거, 몇 톤이나 나온다고...

일출 ...

물영감 할거면... 이기야지.

일출, 입가에 피식. 미소가 지어진다.

물영감, 여전히 생각에 잠겨 있다.

물영감 그런데 말여. 고년이... 계획대로 움직여 줄까?
일출 아시잖아요.
물영감 ...
일출 그런 여자예요.

120. 플래시 포워드 / 호텔 룸 안 - 양식장. 밤.

호텔 룸. 겁에 질려 의자에 앉아 있는 마돈나.

마돈나의 주위를 탐욕스런 눈으로 쳐다보는 덩치들과 물영감.

일출은 떨어져서 지켜만 보고 있다.

물영감 쌍년. 예상을 씨벌, 한치도 벗어나질 않아.
마돈나 ...

마돈나, 원망스런 얼굴로 일출을 보지만 일출은 마돈나를 쳐다보지 않는다.

물영감 선택을 혀. 결론은 하나겠지만. 그냥 혈지... 험한 꼴 당하고 혈지.
마돈나 (원망스런 얼굴로 일출을 보며) ...
일출 (가까이 다가가며) 어차피 이렇게 된거... 우리 내일만 생각하자. 응?
마돈나 ... 나쁜 자식.
물영감 그럼 긍정의 신호로 알고. (일출에게) 작전은?
일출 내가 싸인을 보내면 바로 들어간다.
물영감 싸인? 원 싸인?
일출 싸인은... 짝귀.
마돈나 짝귀?

Cut to - 양식장.

일출 (어금니를 깨물고) 하나만 묻자.

슬쩍 일출을 보는 물영감.

마귀 뭐?
일출 (패를 돌리며) 짝귀는... 왜 죽었냐?

일출을 보는 마돈나.

마귀, 술잔을 잡으려던 손을 잠시 멈추더니 자기 앞에 떨어진 카드를 본다.

마귀 (패를 받으며) 누구? 너 아버지? ㅋㅋ. 씨벌놈이 재수없게 뒤편 사람들 애
기를 왜 자꾸 물어?

마귀 손에는 스페이드 에이스, 하트8, 하트 K.

마귀, 스페이드 에이스를 버린다.

Cut to - 호텔 방.

물영감 그 다음엔?
도일출 영감은 마귀가 계속 짝귀 얘기를 하게 바람을 잡아요.

Cut to - 양식장.

물영감 키야. 완전 소설이네이.
마귀 지옥 끝까지 찾아 가거든. 내 돈을 들고 똥 새끼는.
일출 그래서? 나한테 받으러 왔던 거냐?
마귀 아직 다 못 받았어, 이 개자식아.
일출 ...
마귀 걱정 마. 이거 다 따면 얼추 될 것 같으니까. (피식 웃으며) 여기가... 지옥
인가보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마돈나.

마돈나(E) 그래서?

Cut to - 호텔 방.

마돈나 그런다고 기술을 쓸 수는 없잖아. 마귀가 보고 있는데. 니가 아무리 기술
이 좋다고 해도...
도일출 걱정마. 기술은 당신이 쓸거니까.
마돈나 ... 내가?
물영감 ... 호...
마돈나 내, 내가 어떻게...?

Cut to - 양식장.

일출, 술잔을 들어 맥주를 벌컥벌컥 마신다.
마돈나의 안타까운 표정.

일출(E) 뭐,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야.

일출 (빈술잔을 바라보다) 받고 올인.

모두들 놀란 얼굴.

일출(E) 모두가 보고 있는... 손에 든 카드를 바꾸라는 것도 아니고.

물영감 뭐여? 플러시 메이드여? 이 쪽도 플러시 그림인디?
마돈나 (포기한 듯 패를 덮으며) 죽어요.

마돈나, 자신의 손에 든 카드를 버린 카드 쪽으로 버린다.

Cut to - 호텔 방.

일출 아무도 보고 있지 않는 카드.
마돈나 ...

Cut to - 양식장.

마귀 (판 위에 패들을 옮기듯 보다) 지옥... 맞네. 콜. 올 인.

술령이는 구경꾼들. (덩치들, 보디가드들)

일출(E) 이미 버린 카드를 바꾼다.

그 때 마돈나의 손이 버린 카드들의 위치를 살짝 바꾼다.

Cut to - 호텔 방.

물영감 키야....
마돈나 ...
도일출 할 수 있겠어?
마돈나 ... 할 수 밖에 없잖아.
도일출 마귀한테 걸리면... 당신이 죽는거야.
마돈나 ...
도일출 화이팅.

음악 고조되고 절정에 다다르면.

12. 플래시 포워드 / 양식장. 낮.

마귀의 손에 들린 카드 한 장. 스페이드 9다.

모두들 놀란 눈으로 마귀와 손에 든 카드를 바라본다.

일출, 마돈나를 보고 피식 웃는다.

마귀 이, 이럴리... 없어. 내가 분명... 씨벌...

물영감 (덩치에게) 아야, 뭐더냐?

덩치 예? 아, 예...

마귀의 보디가드들이 달려오려 하는데 도륙덩치를 비롯한 수많은 덩치들이 연장을 꺼내며 앞을 가로 막는다.

잠시 소란이 일자 덩치가 그 쪽을 바라본다.

도일출 뭐 해? 안 놀러?

덩치 이, 이...

덩치, 레바를 힘껏 누르면 덜컥. 큰 소리가 나며 경사면이 기울고 쇠구슬이 구르기 시작한다.

마귀 이, 이... 씨벌...

마귀가 거대한 쇠구슬에 끌려 물 속으로 빨려들어간다.

Insert - 큰 소리에 놀라 양식장 문 쪽을 보는 여자아이.

발버둥치는 마귀, 물에 빨려 들어가기 직전. 가까스로 귀퉁이 난간을 붙잡는다.

보디가드 혀, 형님!

도륙덩치 뭐여, 같이 갈꺼?

마귀는 발버둥치고.

보디가드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머뭇대며 대립하고 있다.

마돈나가 말 없이 일어나 덩치들의 그라인더 하나를 들고 마귀에게 다가간다.

마귀, 놀란 눈으로 마돈나를 본다.

그라인더에 전원을 켜는 마돈나.

마귀 너, 너 이 씨...

마돈나, 말 없이 마귀의 손목에 그라인더를 갖다댄다.
마귀, 비명을 질러대고 마돈나의 얼굴에 피가 튀기 시작한다.
마침내 마귀의 팔이 잘려나가고 마귀는 깊은 물 속으로 빨려들어간다.
수면으로 물보라를 일으키며 달려드는 물고기 떼들.

모두들, 놀란 눈으로 마돈나를 본다.
마돈나, 떨어져나간 마귀의 손을 본다.

마돈나 씨발놈. (얼굴을 한번 쓱 닦으며) 꼭 피를 보게 만들어.
물영감 허, 거 참... 예술로 가네이.

마돈나, 마귀의 손을 발로 툭 차 물 속으로 밀어넣고 돌아선다.
마돈나의 얼굴은 핏방울로 그로테스크하게 물들어 있다.
일출은 굳은 얼굴로 마돈나를 바라본다.

마돈나 (일출에게) 돈은... 못 가져가겠지?
일출 ... (끄덕)
마돈나 ... (허탈한 웃음) 그래.

마돈나, 비척비척 걸어가 어두컴컴한 양식장의 문을 연다.

물영감 아야, 게임 끝났다. 피 닦고 돈챙기자이.

122. 양식장 문 앞. 낮.

밖은 너무나 밝은 햇볕이 내려쬰고 있다.
얼굴에 묻은 피를 아무렇게나 닦아내는 마돈나. 눈이 부시다.
그런 마돈나를 바라보고 있는 여자아이.
마돈나, 여자아이를 바라보다 여자아이에게 다가간다.
쭈그리고 앉아 여자아이를 뚫어져라 바라보는 마돈나.
피로 얼룩진 마돈나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는 어린아이.

마돈나 이름이... 뭐야?
여자아이 헤미요.
마돈나 언니랑... 같이 갈래?

여자아이 ... (고덕)

마돈나, 천천히 여자아이에게 손을 내민다.

여자아이와 함께 사라지는 마돈나.

그 모습을 슬픈 눈으로 바라보는 일출.

123. 물영감의 차 안 / 도로 / 해변. 낮.

물영감의 차를 운전하는 덩치(물영감의 최측근).

보조석엔 물영감이 타고 있다.

뒷좌석엔 일출과 커다란 돈가방 두 개가 놓여있다.

물영감 그래도 내가 충청도 양반인디, 돈 사십억을 벌어들인 손님들 그냥 보내면 안되는데... 그게 참 법도가 아니다... 아, 진짜로 그냥 갈거?

일출 됐어요. 피차 즐거운 사이도 아닌데.

물영감 아, 돈도 댔는데 수진이랑 술이라도 한잔 허고 노래도 좀 허고 허지... 젊은 사람이 흥이 없어 그래, 흥이...

일출 됐어요. 터미널까지 태워주시는 것만도 충분히 고마워요.

물영감 아... 아무래도 이건 아니다... 법도가 아니다...

물영감이 계속 씨부리는데 물영감의 차는 한적한 해안으로 빠진다.

일출이 바라본 표지판에 터미널은 직진이다.

불길한 음악.

일출, 뭔가 잘못되고 있음을 직감한다.

일출 터미널이... 이 방향... 이었던가?

덩치 이? 이... 지, 질러가는 거.

물영감 아, 토박이라 아주 그냥... (창 밖보며) 아... 바다 좋네.

일출 ...

일출, 돈가방으로 자연스레 손이 간다.

124. 물영감의 차 안 / 해변. 낮.

물영감의 차가 인적이 몹시 드문 해안에서 점점 속력을 줄이더니 이내 멈춰선다.

일출 ... (불안한 얼굴)

물영감 내가 생각을 하봤는디 말여... 아무래도 이걸 아니란 말여. 아니, 나는 돈을 투자했고 자네는 몸으로만 뛰었는디 20억이나 가져간다? 그건 아니지. 자본주의 사회 아녀? 돈이 주인인거, 돈이...

운전을 하던 덩치가 품에 있던 회칼을 꺼내든다.

일출 개새끼...

물영감 돈은 그냥 거기 댈뉘. 아니은 뭐... 고기 밥이 되든가.

회칼을 든 덩치가 룸미러로 일출을 보며 씨익 웃는다.

물영감 (실실 쪼개며) 내가 워뜨케 부자가 된 줄 얘기 안 해줬는가? 내 돈을 그렇게 쉽게 먹을 수 있간디, 어디? ㅋㅋ크.

일출 (같이 쪼개며) 어떻게 한치도... 예상을 벗어나질 않나?

물영감 ... 뭐?

일출이 눈짓하자 덩치 웃음을 멈추고 옆자리의 물영감 배를 푹. 하고 찌른다.

물영감, 느닷없이 칼침을 맞자 상황파악이 안 된다.

물영감 뭐, 뭐여? 너, 너 이 씨벌...

덩치, 사정없이 물영감의 배를 찌러댄다.

Cut-to. 고즈넉한 바닷가에서 물영감의 차가 빼걱거린다.

피투성이가 된 물영감, 원망스런 얼굴로 덩치를 바라본다.

물영감 ... 워, 워뜨케... 니가...

덩치 (칼질을 하다) ... 왜? 돈 40억이면... 사람 하나... 죽일 수 있는 거 아녀?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영감 이... 씨벌...

다시 칼질을 하는 덩치.

125. 해면. 낮.

해가 지고 있는 황금 빛 바다.
일출과 덩치가 끄덕대며 차를 밀고 있다.
피칠갑이 된채 죽어있는 물영감의 시체가 차 안에 놓여있다.
물영감의 승용차는 스르륵 바다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덩그러니 남겨진 커다란 돈가방 두 개.
일출과 덩치가 돈가방을 사이에 두고 서 있다.

아뿔사. 덩치의 손에는 아직 물영감의 피가 묻은 회칼이 들려져 있다.
덩치는 말없이 뚫어져라 돈가방만 바라본다.
일출, 불안한 눈으로 그런 덩치를 바라본다.

일출 (눈치보며) 왜? 돈보니까... 욕심 생기냐?

덩치, 머뭇거리다 이내 피식 웃는다.

덩치 내가... 영감따라 도박판 기웃거리면서 배운게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알어?

일출 ... 원데?

덩치 먹을만큼 먹었으면... 눈 딱 감고 일어나라.

덩치, 들고 있던 회칼을 멀리 바다에 던져 버린다.
돈 가방 두 개 중 하나만 들고 사라지는 덩치.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일출, 멀어지는 덩치를 바라본다.

일출 (피식 웃으며) 씨발... 타짜네.

일출도 남은 돈가방을 들고 해안을 따라 걷는다.
황금빛 바다가 그림 같다.

일출(E) 사람들이 도박에서 왜 돈을 잃을까?

126. 산부인과 주차장. 낮.

영미와 까치가 티격태격하며 산부인과를 빠져 나와 주차장으로 향한다.

일출(E) 돈을 잃을 때까지 도박판에서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이야.

까치 (걸으며) 그렇게 잘 좀 먹으라니까. 말 안 듣고.
영미 (같이 걸으며) 봉신아. 니가 입덧 해봤어? 생각처럼 그게 쉬운줄 알아?
까치 힘들어도 먹어야지. 너만 먹는 거야? (영미 배를 만지며) 우리 아봉이도 같이 먹는 거 아냐. 애가 작대잖아.
영미 (까치의 손을 탁 치며) 시끄러. 힘드니까 빨리 차나 빼와.

127. 인천공항 게이트 앞. 낮.

권원장이 분주한 공항 게이트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일출(E) 이제 알았어. 언뜻 보면 삶이 도박같지만.

권원장의 손에는 여권과 비행기 티켓. 필리핀 마닐라행이다.
권원장의 얼굴은 싱글벙글.

권원장 응. 짐만 부치면 되는데... 짐이 좀 늦네. 아니, 아니. 차가 어딴거? 이민가는데. 공항 리무진 버스에서 내려줄거야. (웃음) 애들 옆에 있지?

그 때, 이민가방으로 가득한 커다란 카트를 끌고 오는 권원장에게 다가오는 리무진 기사.

권원장 아, 지금 왔다!

일출(E) 삶은 그 이상이야.

128. 산부인과 주차장. 낮.

어느새 소형차 앞에 다다른 영미와 까치.

까치 안되겠다. 소고기 먹으러 가자. 한우로 먹자. 너 한우 좋아하잖아. 투뿔.
영미 미친놈. 돈 아껴. 애기 나오기 전에 사야할 게 한두개줄 알아?
까치 (차 문을 열며) 몰라. 씨발. 한우 먹어. 먹고 생각해.

까치, 차 문을 여는데 운전석에 못 보던 가방이 하나 놓여있다.

까치 어? 뭐야, 이거?

까치, 영미를 쳐다보는데 영미도 모르겠다는 얼굴.

일출(E) 나는 내 삶으로 돌아간다. 내 영혼까지 잃기 전에.

129. 인천 공항 게이트 앞. 낮.

짐들을 확인하는 권원장.

돌아서 가는 리무진 기사.

짐들 속에 까치와 영미가 받은 가방과 똑같은 가방이 섞여 있다.

권원장 저기요!

기사 (뒤 돌며) 네?

권원장 (가방 가리키며) 이거는... 내 짐이 아닌 것 같은데?

기사 네? (리스트를 자세히 살펴보며) 아니요. 맞아요. 갈색, 체크 가방.

기사, 서둘러 사라지고 권원장 상황파악이 안 되는 얼굴.

일출(E) 돈은 두고 갈게.

130. 산부인과 주차장. 낮.

까치, 서둘러 가방을 열어보면 가방 안엔 5만원권 지폐가 가득 담겨 있다.

놀라는 까치와 영미, 서로 어이없어 웃는다.

지폐 위에 놓여있는 원아이드 잭. 한 장.

일출(E) 이 돈을 들고 있는한 언제든 다시 돌아오게 될테니까.

131. 인천 공항 로비. 낮.

권원장이 열어본 가방 안에도 5만원짜리 지폐가 가득하다.

일출(E) 그걸 어떻게 아냐고?

지폐위에 놓인 원아이드 잭 한 장을 집어드는 권원장.
카드를 바라보다 피식 웃는 권원장.

일출(E) 알지... 타짜니까.

페이드 아웃.

132. 엄마 식당 앞. 밤.

(시간경과)

눈덮인 거리를 뛰어가는 다리. 다리는 일출이다. 일출의 머리는 많이 자라있다.

일출, 엄마의 식당 앞에서 멈춘다.

일출이 식당 안을 들여다보면 연탄난로 옆 테이블에 앉아 엄마가 꾸벅꾸벅 졸고 있다.
숨을 고르며, 씨익, 웃는 일출.

133. 엄마 식당 안. 밤.

문이 열리고 문위에 달린 작은 종이 딸랑 소리를 낸다.

테이블이 네 개뿐인 좁은 식당에서 졸던 엄마가 깜짝 놀라 눈을 뜬다.

엄마 아들. 왔어?

일출, 애써 기쁜 표정을 감추며 테이블에 다가온다.

일출 문을 닫고 들어가시지... 왜 여기서 졸아?

일출이 맞은편에 앉으면 엄마는 일출의 눈치를 살핀다.

엄마 결과 나왔어? 어떻게 됐어?

일출, 엄마의 시선을 애써 외면한다.

엄마 (눈치 채고) 됐어! 괜찮아! 시험은 다음에 또 보면 되지. 젊은 놈이... 어깨
퍼! 괜찮아! 배고프지? (일어서며) 밥먹자, 밥.

일출, 주머니에서 합격통지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린다.

엄마, 놀라서 합격통지서를 들어본다.

합격. 9급 사회복지직 공무원.

엄마, 소리를 지르며 기뻐한다.

엄마 끼악~! 합격이잖아!!

일출 (씨익 웃으며) 에이... 오바다. 뭐 대단한 거라고...

엄마 대단하지! 얼마나 대단해!!

엄마, 아이처럼 좋아하자 일출도 괜히 째해진다.

엄마 일단, 밥먹자. 밥. 엄마가 오늘 특별히 맛있는 거 해줄게.

엄마, 부엌쪽으로 걸어간다.

일출 에이... 그냥 대충 나가서 먹자. 하루 종일 밥했잖아.

엄마 야. 엄마는 밥하는 거 하나도 안 힘들어. 행복해, 아주 그냥.

엄마, 부엌의 대형 식자재 냉장고를 연다.

안을 들여다보던 엄마의 표정이 갑자기 굳는다.

엄마 아니다.

일출 ...?

엄마, 부엌을 나와 일출의 테이블에 마주 앉는다.

엄마 ... 밥 먹기 전에 할 얘기가 있다.

일출 왜? 뭔데?

엄마 잘 들어. 니 아버지 이야기야.

일출 ... 아버지? (피식 웃으며) 됐어요. 뭐 좋은 얘기라고...

엄마 아니야. 언젠가는 니가... 반드시 알아야 할 얘기가 있어.

일출 ...?

얘기를 시작하는 엄마에서 화면이 점점 멀어진다.

엄마 아주 오랫동안 고민했는데... 이제는 너한테 얘기해도 될 것 같다. 니 아버지
 지에 대한 얘기...

일출 ...

화면이 열려진 냉장고까지 빠지면.

커다란 식자재 냉장고 안은 온통 구권 만원짜리 지폐로 가득하다! (짜귀의 돈)

엄마 잘 들어. 아주 긴 얘기니까...

신나는 음악 <송골매-세상모르고 살았노라>와 함께.

배우들의 캐릭터 타이틀과 함께.

엔딩 타이틀 - 타짜 : 원아이드 잭.

끝.

롯데엔터테인먼트